



7

197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9. 7 호

(루게 381)



◆◆◆◆◆◆◆◆◆◆

차 례

◆◆◆◆◆◆◆◆◆◆

| | |
|----------------------------|----|
| 언제나 조국과 함께 | 4 |
| 우리르는 마음속에 빛나는 모습이어! | 5 |
| 혁명의 새벽길 | 6 |
| 봉화산의 나팔소리 | 8 |
| 뽕죽봉마루에서 | 10 |
| 명신학교의 프락에 들어서며 | 11 |
| 사랑의 길우에서 | 12 |
| 다듬은 말 | 17 |
| 자애로운 품 | 18 |
| 세부묘사를 잘할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 | 21 |
| 은혜로운 품이어 | 29 |
| 불을 켜주오 (외 1 편) | 30 |
| 행복한 도시 | 31 |
| 대패질소리 | 32 |
| 피로써 지킨다 | 39 |
| 광부의 딸 | 47 |
| 너는 하늘에 살아도 | 54 |
| 축복하노라! | 55 |

| | |
|----------------------------------|----|
| 탄부의 걸음 | 56 |
| 제대군인 (외 1 편)..... | 57 |
| 청년분조원들에게 | 58 |
| 귀향 | 59 |
| 아들에게 | 60 |
| 어머니의 마음 | 61 |
| 조국의 미소 | 64 |
| 편지에 대한 시 | 66 |
| 포화속을 헤쳐온 기발앞에서 | 67 |
| 사과꽃이 만발할 때 | 70 |
| 당일군의 전형적성격형상..... | 72 |
| 소설의 형상성제고와 세부묘사 | 76 |
| 모든 인물선은 주인공선을 돌구는데 복종되어야 한다..... | 79 |

언제나 조국과 함께

김우협

기쁨이라면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날마다 따사로운 요람속에 안겨사는

정다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

내 누리는 기쁨

나에게

가장 큰 슬픔이었다면

내 조국이 없이 울며 헤매던 그날

언뺨을 적시던 그 차디찬 눈물

어머니조국이여

한세대에

조국없는 설움에 울며 살아보고

조국의 품에 안겨 살아보았기에

나는 안다

그대 얼마나 귀중한가를

간도 피바다에 단 하나 누이를 잃고

세상밖에 던져진 나는 고아였다

하늘을 홀기며 저주도 홀로

땅을 치며 설움도 홀로

아버이 없는 우리 민족은 홀어진 고아였고

살아도 죽은 목숨이었다

잊지 못하노라, 조국이여

이국의 거친 들에 숨져가던

나를 안아 일으켜준 은혜로운 그 손길

한밤 비쳐오던 백두산 장수별의 그 빛발

전설같은 이야기 주고받으며

깨어진 마음의 나래를 펴고

밤마다 그려보던 백두산!

그것이 수난의 날에 소생의 빛을 안겨준

그대 조국의 첫 모습이였다

아, 장군님 주신 땅에 첫씨앗을 뿌릴 때

땅김이 서려오르던 사래긴 그 밭이랑

채송화 핀 유치원의 트랙을 거쳐

내 귀여운 첫딸이 학교로 갈 때

눈물에 젖어 바라보던 푸른 하늘 푸른 들

그것이 소중한 나의 조국이였다

하늘땅에 불이 달린 결전의 날에

수령님 손수 피워주신 과일꽃바다

산을 넘어 들을 적시는 사랑의 젖줄기

그 어디를 봐도 나를 향해 미소짓는 땅

그럴 때면 피맺힌 옛세월이 눈에 밟혀서

다시다시 가슴에 안아보는 행복한 땅

이 땅이 나의 조국이여라

그때문에 설레이는 들은 그리도 소중하고

그때문에 폭포치는 쇠물은 저리도 황홀하고

그때문에 그때문에 두번다시 받아안은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빛내여갈 이 땅

아, 가장 크나큰 슬픔과 기쁨이

뒤바뀐 두 제도의 증견자, 나는 노래한다

수난의 긴긴 세월을 넘어온 우리 인민에게

조국이란 한마디

사람도 땅도 산천도 한품에 안아키워주신

위대한 아버지수령님 품!

무엇이 아까우랴 어머니 나의 조국이여

그대 위해 내 가슴 그리도 사무쳤기에

나의 생명은 오직 그대와 함께!

나의 행복도 오직 그대와 함께!

우러르는 마음속에 빛나는 모습이어!

김기호

봉화산마루에 오르시던
이슬젖은 신들메를 조이시고
압록강 거친 물결 넘나드시던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며
그날의 그 모습 그대로
꽃피는 봉화리에 들어서십니까

명신학교 종소리가 울리던 하늘가에
랑랑히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글소리에 귀기울이지는곳
프락프락들이 달리고
황금나락이 물결치는 들판을
선생님께서서는 기쁨에 넘쳐 바라보시는듯

일제의 칼부림소리 하늘에 울고
인민의 피눈물이
강산에 흐르던 그 세월
이 땅 이 하늘을 찾으시려
눈서리 덮인 조선혁명의 새벽길을
앞장서 걸으신
김형직선생님이시여!

우러르는 마음속에
걸어오신 자옥자옥 뜨겁습니다
한평생을 살고싶으시던
정든 고향 만경대를 떠나시여
봉화리와 증강진...
천만년을 살고싶으시던
사랑하는 조국산천을 떠나시여
림강과 팔도구 무송...

나라를 찾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조국을 해방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가정을 옮기시고
투쟁의 무대를 바꾸시며
가시는곳마다
혁명의 불씨를 뿌리신 선생님

만경대로부터 북변의 기슭까지
북변의 기슭으로부터
다시 이역땅 수천수만리...

선생님께서 새기신 그 자옥은
망국노의 설음을 터뜨리며
살길 찾아 구름처럼 흩어져가던 가슴들에
떠나온 고향
멀어져가던 조국산천을
다시금 가까이 안겨주신 길이 아니옵니까

어느 하루도 마를날이 없이
찬이슬에 젖고 눈서리에 얼어붙었던
그 신들메를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받으신 상처
산중에서 입으신 모진 동상
그 얼마나 아프고 쓰리시였으련만
이 땅의 상처, 인민의 아픔만을 생각하신
높으신 그 뜻에 목이 메입니다.

총칼도 철창도 두려움없이
조선국민회조직을 무으시고
혁명동지들을 묶어세우시며
낮선 고장을 다 찾으신 그 걸음...
바람세찬 이역의 항로길을 다 걸으신 그 자옥...
고향도 가정도 청춘도 모두 바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생애여!

해도 없고 별도 없던 이 강산에
태양이 솟아오를 새벽을 부르시며
선생님께서 걷고 걸으신 길
그 길은 이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러명이 불타오른
위대한 선구자의 빛나는 길이거니

아, 우러르는 마음속에
푸른 소나무처럼 빛나는 모습이어
우리를 해방된 이 땅에 살게 하시려
멀고 험한 력사의 새벽길을 다 걸으시고
선생님께서서는 서계십니다

조국해방의 성스런 위업이
대를 이어 꽃피여난 락원의 강산에
아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공산주의한길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속에
영원히 영원히 함께 계시옵니다

혁명의 새벽길

박세옥

길, 이 세상의 길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때로 길을 가다가도 문득 걸음을 멈추는 때가 있다.

길, 아름다운 행복을 속삭이며 아득히 뻗어간 길을 바라보며 깊어지는 생각,

누가 이 길을 먼저 내였을까.

인간이 태어나기전 지구우에는 길이 없었다. 이 세상에 처음 인간이 태어나고 그 누군가 이슬이 덮인 숲속에 첫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간 그 자국을 따라 길은 시작되었을것이다. 처음 그 길은 알릴듯말듯한 자취로부터 실오리같은 오솔길로 그리고 세월과 함께 넓어지기도 했으리라. 처음엔 가까운 이웃으로 또 이웃에서 마을로 그리고 밭으로 간 그 자국을 따라 멀리 더 멀리 뻗어갔으리라. 얼음을 까고 빨래를 행구러 가던 그 길, 시집가는 딸을 눈물로 바래주기도 하고 수자리에 간 님을 기다리던 그 길, 령너머 구름너머 있다는 《리상향》을 찾아가던 그 길, 기쁜 소식이 찾아들기도 하고 불행한 소식이 날아들기도 하던 그 길, 침노한 외적을 맞받아일어서고 붉은 피로 적시던 그 길...

바로 그 길위에 인간의 기쁨과 슬픔, 불행과 행복 그리고 소박한 인민의 지향과 인민의 념원이 언제나 놓여있었다.

이 땅우에서 우리 인민의 력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수천년, 우리 인민이 이처럼 열렬하게 행복을 념원했건만 해방전까지 우리 인민에게 차례진 운명은 오직 고통과 슬픔, 피눈물로 엮어진 것이었다.

착취사회의 암흑과 고통 속에서, 외래침략자들의 모진 탄압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행복이 찾아올 그 길을 즐겨 바라보았으며 그 길위에 언제인가는 찬란한 해빛이 비치기를 고대하였다. 피눈물나는 고통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들, 손자에게로, 다시 그다음 세대로 소박한 꿈과 념원을 물려주며 암흑의 그 장막이 가서지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에 대한 념원이 어린 길은 여전히 고통과 비애의 안개속에 잠겨있을뿐이였

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말속에서, 생활의 고통속에 시달린 아버지들의 단식속에서, 또한 어머니들의 구슬픈 자장가속에 깃들었던 행복에 대한 념원은 아직 간밤의 잠을 깨지 못한 질은 아침안개속에 사라진 길처럼 애매하고 몽롱한것이였다.

이처럼 이 땅우에 사람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길이 생겨나고 산너머 고개너머로 사라진 그 길위에 자기들의 소박한 념원을 실어보내던 우리 인민의 리상의 길은 우리 시대에 오기까지 제멋대로 시작되었고 멀리 에돌기도 하다가 력사의 가혹한 운명의 자취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곤하였다.

인간의 참된 권리와 자유가 없는 한 인민이 꿈속에서도 것처럼 바라던 행복의 길은 여전히 암흑속에 잠겨있을뿐이였다.

때문에 우리 인민이 세기를 두고 것처럼 안타깝게 찾아헤메던 리상의 그 길은 우리 인민이 자기의 참된 운명을 찾아 모색하고 방황해온 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간절한 념원과 희망은 일제침략자들의 피눈은 발자국이 이 나라 강토에 찍혀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더욱더 무참하게 짓밟혀지고말았다.

인민의 가슴속에서 소중하게 자라오던 그 꿈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에 의하여 문자그대로 무참하게 산산이 깨지고말았던것이다.

동구밖에 정자나무 서있는 고향마을의 아이들의 동요속에 깃들었던 소박한 꿈마저도 일제침략자들은 무참히 빼앗아갔다.

그 시기는 조선민족의 운명이 생사를 기약할수 없이 경각에 달렸던 때였다.

일제가 강점한 우리 조국은 하나의 감옥이었으며 지옥이었다. 이 나라의 강물은 물이 아니라 눈물이었고 하늘도 피빛으로 붉게 타고있었다.

실로 암담한 조선이었다.

인민은 구원자를 애타게 불렀다.

그러자 어디선가 눈속에서도 시들줄 모르는 푸

른 소나무의 설레임소리가 들려왔고 어두운 조선의 밤하늘에 《지원》의 글발이 불타고있었다.

인민의 지향과 갈망 속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계시였다.

그때부터 눈물마져 찾아버렸던 이 땅우에 조선의 목소리가 다시 울리였고 조선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싸우는 선진인사들은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창조하는 혁명사상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며 옳은 투쟁구호를 내세우며 인민대중을 고무하고 묶어세우며 혁명투쟁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킵니다.》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확대되는 조직을 더 넓히시려 전국 각처로 떠나보낼 조직원들앞에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자면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으며 그런 길에서는 굶어죽을수도, 맞아죽을수도, 얼어죽을수도 있다는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외세의존》과 《청원》의 방법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힘에 의해 나라를 찾으시려는 김형직선생님의 길, 이 길은 천갈래만갈래로 흩어졌던 인민의 그 모든 길을 처음으로 한곳으로 이끈 위대한 력사의 길이었다.

인민의 운명과 《지원》의 높은 뜻을 안으시고 시대의 앞장에서 험한 가시덤불을 헤쳐가시는 김형직선생님의 옷자락은 언제나 밤이슬에 젖어있었고 걸음마다 시련을 넘어서야 했고 죽음과 마주서야 했었다. 그러나 그 모든 피로움과 아픔도

인민이 겪는 고통과 불행을 생각하시며 곳곳이 이겨가시였다.

평양감옥에서 심한 상처를 입으시고 나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만경대고향집에 돌아오시였을 때에도 감옥에서 입으신 상처의 피로움보다 조국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시며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노래를 남기시고 혁명의 새벽길을 떠나시였던것이다. 국경지대에서 빛나는 활동을 벌리시다가 또다시 적들에게 체포되신 김형직선생님께

서는 과감히 탈출하시였다. 선생님께서 탈출하실 때 입으신 심한 동상도 아랑곳하지지 않으시고 혁명의 새벽을 이 땅에 마련하시려 다시 강을 건너실 때 어찌하여 압록강은 흐느끼고 또 흐느끼었던가!

만경대에서 봉화리, 봉화리에서 다시 만경대, 만경대에서 중강진, 중강진에서 립강, 무송 등에 이르는 수천수만리길, 이 길은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바른 궤도에 들어선 참된 길이었으며 조선의 옳은 길이었다.

사랑하는 아드님의 배움의 천리길도 이 길에서 뻗었고 이 길을 따라 조선이 걸어갔다.

순화학교와 명신학교의 종을 흔들며 잠든 조선을 깨우치시였고 《순천의원》 《무림의원》의 지붕밑에서는 고통속에 시달리는 인민의 아픔을 고쳐주셨고 광범한 반일대중을 묶어세우시고 혁명의 첫 총성을 이 땅우에 높이 울리시여 곡절많은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을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전환의 위대한 서곡을 마련하시여 높이 울리시였던것이다.

혁명의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김형직선생님께서 걸으신 조선혁명의 새벽길, 바로 그 길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항일의 혈전만리 불길만리 헤치시여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시요 이 땅우에 행복한 인민의 락원을 펼치시였으며 오늘 우리는 공산주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있는것이다.

우리의 길, 조선혁명의 길, 이 길은 인민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이다. 인민의 끝없는 기쁨이 넘쳐흐르는 저 희망찬 앞길을 볼 때면 우렁이 떠오른다.

흰옷자락을 눈보라에 날리시며 이 길의 첫 새벽길을 이어 오늘도 우리앞에 걸어가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거룩한 영상이 어리오나니, 끝없이 행복한 이 가슴에 흠모와 충성, 고마움의 뜨거운 눈물이 솟구친다...

봉화산의 나팔소리

현창성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사적앞에서 사람들은 뿔어넘치는 흠모와 충성의 열정을 안고 선생님의 투쟁업적을 생각하게 되며 거기에서 더없이 위력한 힘을 받아안게 된다.

내가 얼마전에 다시 찾았던 봉화혁명사적지의 아침운동터에서만도 나는 그러한 불멸의 힘을 강렬하게 느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반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안은 나의 가슴은 뜨거웠다.

참관로정을 따라 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을 걸음걸음 깊이 새겨가며 나는 사람들의 물결속에 섞이여 마침운동터에 이르렀다.

소나무며 살맹이나무들이 밝은 해빛아래 설레이는 속에 그리 넓지 않고 비교적 평탄한 잔디밭으로 된 아침운동터, 이 사적앞에서 강사동무의 해설도 끝났건만 사람들은 격동되는 심장을 안고

오래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아침이면 일찌기 이곳에 오르시여 몸소 부셨다는 나팔소리가 여느때와는 류달리도 다르게 가슴에 울려와 나 역시 그대로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1917년 조선국민회를 조직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후대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견결한 혁명가로 준비시키는 사업에 많은 힘을 돌리시었는데 그때 학생들의 하루일과를 아침체조로부터 시작하시면서 그것을 알리는 신호로서 나팔을 부셨던것이다.

60여년 긴긴 세월을 넘어 가슴에 울려오는 류량한 나팔소리...

간악한 일제의 무단통치가 절정에 달하였던 그 암담하던 시기 이곳 봉화리 땅에서 울려퍼진 그 나팔소리 어찌 학생들의 아침체조를 알려주는 신호소리로만 들렸겠는가. 그 나팔소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새 힘이, 애국에 불타는 조선의 기상이 김형직선생님께서 열어놓으신 력사의 새벽길우에 억세게 나래치는 소리였으며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희망과 투지와 용기를 부어주며 삼천리강산을 잠깨우던 나팔소리였다.

봉화산골안을 떨치며 저 멀리 파도치는 성천, 강동의 높낮은 산발들에 메아리쳐 온 나라에 울려퍼지던 그 나팔소리를 가슴에 들느라니 선생님

의 불같은 심정의 그 뿔어번짐, 그 음성이 다시금 세차게 나의 가슴을 치면서 이곳 봉화리땅에서 하시던 그 말씀을 전하여주는것이였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어딜 가나 산 좋고 물 맑은 제일강산이다. 그런데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지금은 일본강도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일본놈들은 조선에서 야수적만행을 감행하고있다.

우리는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기 위하여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강도 일제를 물리쳐야 한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비분에 떨기도 하고 눈물을 머금고 주먹을 부르짖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던 그때의 청장년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나는 선생님의 말씀의 진의를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포악무도한 일제놈들의 중세기적인 공포정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조국의 삼천리강토는 인민들의 붉은피로 물들었고 우리 인민은 극도의 정치적무권리속에 처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강토의 아픔과 인민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한몫에 통감하시며 반제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선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심으로써 당시 질식상태에 처하여있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바른 길에 세워주시고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이던 조선인민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선생님께서서는 얼마나 원수들을 증오하시고 얼마나 빼앗긴 나라를 찾으실 신념에 불탔으면 아름다운 향토의 자연풍경으로만 안겨올 강이나 산, 전야의 곡식도 평범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봉화산에 몸소 학생들을 데리고 오르시여 수수버들이 줄지어선 밭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겠는가.

《학생들! 저것을 보라.

마치 군대가 사열을 받기 위해서 줄지어 서있는것 같지 않는가.

여기서 보니 봉화산은 장군 같고 저것은 조선의 군대 같다.

조선에 군대가 저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조선에 군대가 저렇게 있다면 왜놈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을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무기를 가진 원수는 오직 무기를 가지고 때려눕혀야 한다.》

김형직선생님의 말씀의 자자구구를 새겨가느라

니 누를길 없는 걱정에 가슴은 한없이 뜨거워지고 선생님의 절절한 해방의 념원을 안고 역세계 자라나던 학생들의 씩씩한 발구름소리가 힘찬 나팔소리와 함께 들려오는듯하였다.

나는 생각하였다. 선생님의 불타는 그 념원을 담은 봉화산의 나팔소리는 백두의 밀림에 이어져 울리고 오늘은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사회주의 이 강산에 높이 울리는것이 아닌가라고.

그렇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고 하시며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코 일제놈들을 꺼꾸러뜨리고 나라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 봉화산의 나팔소리 울리시며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불굴의 투지와 신념을 안겨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다.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그의 원쑤들과는 어떻게 무자비해야 하는가를.

이것은 비단 우리 인민들에게만 아니라 대양만리 머나먼곳에서 찾아온 외국의 벗들이 가슴에도 울리는 소리이다.

벌써 몇해전 일이다.

나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한창 싸우고있는 나라의 한 벗과 함께 봉화혁명사적지에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것은 3월초였다.

우리는 승업한 감정에 휩싸인채 참관로정을 따라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생애와 고귀한 업적을 더듬어가고있었다.

그런데 시내에서 떠날 때에는 도저히 예상못했던 때아닌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는것이였다. 봉화산 아침운동터에 올라서니 바람은 더욱 세게 불었다.

나는 외국의 벗의 얼굴을 보면서 말하였다.

《바람이 세계 붓니다.》

물론 너무도 새삼스러운 소리였다.

외국의 벗은 통역원의 말을 듣더니 웃음을 지어보이면서

《마음은 오히려 뜨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강사동무의 해설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것이였다.

이윽고 그는 온몸이 그대로 불덩어리가 되어 말하는것이였다.

자기 조국의 적지 않은 부분은 지금 미국놈들을 비롯한 외래침략자들의 군화밑에 짓밟히고있다고, 자기 조국 인민들의 신음소리 이 순간에도 들려온다고, 자기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부시던 봉화산의 나팔소리를 안고 조국에 돌아가 힘을 길러 반드시 미국놈들을 비롯한 침략자들을 내쫓고 조국은 완전히 해방하겠다고, 그 승리의 날엔 봉화산에서의 이 인상깊은 날을 추억하겠

노라고.

그리고는 붙어치는 찬바람엔 전혀 아랑곳 않고 기계에 넘쳐 나의 손을 잡은채 봉화산바위터를 향해 오르는것이였다.

60여년 긴긴세월을 넘어 오늘도 울려오는 봉화산의 나팔소리.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꺾일줄 모르는 굳센 의지와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정열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지니시고 오르지 나라의 독립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영상을 우러르니 가슴에 끝없이 넘쳐오르는 조국애의 감정...

조국!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 나의 조국!

승업한 그 이름을 부르며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뜨거이 되새겨본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기 조국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나라없는 식민지노예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살수 없으며 행복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고 행복할수 없는것, 우리들의 생명이며 행복이며 미래이며 그 모든것인 한없이 신성한 조국.

김형직선생님께서 인민의 가슴속에 《지원》의 높은 뜻을 심어가시며 그렇게도, 그렇게도 아름답게 그려보시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찾으시던 조국.

아버님의 높이신 그 뜻을 이으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풍찬로숙하시며 피어린 눈보라만리길을 헤쳐오시여 찾아주신 조국.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보다 파사로운 어버이사랑 하늘땅에 넘치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만경대의 혁명일가를 천세만세 대를 이어 길이 받들어갈 인민의 영원한 충성의 노래 넘쳐흐르는 위대한 인민의 나라,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인류의 봄언덕으로 앞장서 달려가는 주체의 조국에 사는 크나큰 긍지와 행복감에 눈시울 적시며 나는 높이 웨쳤다.

봉화산의 나팔소리여,

세기와 세기를 넘어 세월이 무궁토록 힘차게 울려퍼지라,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발자취를 후대들의 가슴에 새겨주며,

한없이 귀중한 조국이 그 어떤 피바다, 불바다를 넘어 쌓아진것인가를 이야기하며.

뽕족봉마루에서

윤병규

두손을 옥죄이던
수갑을 풀어헤치시고
치달아 높이 오르셨던
선생님의 추상같은 의분이런가
뽕족봉마루에
눈보라 몰아친다

세월의 비바람은
그날의 자욱을 지워갔어도
내 경건한 마음으로 짚고선
이끼질은 하나의 돌바위에도
애국의 더운 피를 끓이시던
선생님의 숨결이 뜨겁게 스며있어라

망국의 캄캄한 그 세월
어둠을 사르는 해불이 되시여
강토를 주름잡아 달리신 선생님
품에 안아 키우신 투사
묶어세우신 겨레들 그 얼마이던가

휩기시는 자욱마다
역사철사로 조여드는 원썬들을
예서 한낱 가랑잎처럼 눌러 디디시고
떨치신 그 기개, 그 분노
상기 저 하늘에 비껴있는 산천이여

물결쳐 일어서는 산발들너머
만경대와 봉화리는 어디쯤인가

다시 헤쳐가실 준엄한 길 앞에 두시고
눈보라 우는 이 산상에 옷자락 날리시며
오래도록 바라보셨을 이 땅 저 하늘
아, 그 길이 조국산천과의 마지막길이 될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랴!

한생을 그리도 고스란히
조국과 동포에 대한 사랑으로 불태우시며
총칼의 숲과 눈서리를 헤쳐가신 선생님
그날에 입으신 깊은 동상자국
삼가 내 마음의 손길로 더듬으니
가슴속에 젖어드는 뜨거운 눈물이어

아, 력사반만년에
태동하는 공산주의운동의 첫 방향타를 잡으시고
이 나라의 새벽을 불러오시며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한몸으로 헤쳐가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천만년 세월은 흘러가도
이 땅에 남기신 그 위업 그 뜻은
변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리니
뽕족봉마루에 비껴간 저 하늘가에
선생님의 모습이 눈앞에 어리어
날리는 눈송이
두볼에 이슬로 끝없이 맺힌다!

명신학교의 뜨락에 들어서며

리금석

선생님을 모시였던
그날을 못잊어선가
진달래꽃 살구꽃
마당가에 만발하고
추녀밑의 종소리는
그날처럼 학생들을 부르며
마음속에 울려오네

뜨겁게 안겨오네
《백두산》 《금강산》…
흑판에 쓰시는 선생님 손길따라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들
희망과 기쁨에 넘쳐
마디마디 목메여 따라읽던
그 뜨거운 목소리들…

배우지 못하는 인민의 설음을
가슴깊이 안으시고 교단에 나서신
선생님의 그 영상이 안겨와
눈시울 뜨겁네

아, 이 나라의 앞길에
먹장같이 어둠이 덮였어도
지원의 크나큰 뜻을 안으시고
자라는 새세대들 모습에서
해방된 조선의 앞날을 그려보신
김형직선생님

그 얼마였던가
더벅머리, 몽당치마
혈벗고 굶주린 그 가슴에
민족의 슬기 민족의 기개
남산의 소나무처럼 자라나라고
밤밝혀 몸소
교과서도 쓰시던 그 손길

선생님의 발자취어린
정갈한 뜨락
삼가 자욱자욱 걸음 옮기노니
조약돌 하나도

나라 위한 그 뜻으로 빛나고
모래 한알도
겨레 위한 그 마음으로 뜨겁네

아아, 명신학교
수천년을 두고 피울음을 울며
불러보아도 두드려보아도
열릴길 없던 배움의 문
나라 없고 땅 없는 민족앞에
봄빛 안고 열린곳이어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도
별빛 하나 없던 이 강산
나라 잃고 땅 잃고
이름마저 잃은 이 민족앞에
지원의 원대한 뜻으로
참다운 조선의 래일을 내다보게 한
그 밝은 문이 열린곳이어

활짝 열린 그 문으로
얼마나 많은 혁명의 수리개들이
시련의 언덕을 넘어 내려쳐올랐던가
투쟁의 대하는
이 강산에 굶이쳐 흘러
민족주의운동이 저물어가던 하늘가에
공산주의운동의 새벽노을 비겼어라

아, 선생님의 그 높으신 뜻
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천만송이 향기로운 꽃으로 만발하여
온 나라 어린이들을 부르는
배움의 나라-주체의 락원이
이 강산에 꽃폈거니

눈시울 적신다 오늘은
사람마다 이 뜨락에 걸음 멈추고
한없는 행복과 희망에 넘쳐
온 나라가 들어서는 배움의 대문
그 어떤 세기의 어둠을 뚫고
우리앞에 열렸는가를 생각하며…

사랑의 길우에서

김석주

(1)

씨앗이 움트고
새싹이 돌아날 때
그런 날은 류달리 기쁜 날
화창한 봄 들판에
어버이수령님 모시고싶어라

들에 벼꽃이 피고
강냉이 이삭 펴 때
류달리 기쁜 날
설레이는 푸른 들판에
어버이수령님 모시고싶어라

산에들에
황금물결 설레이고
기쁜 날중에도 가장 기쁜 날
풍요한 가을에
어버이수령님 모시고싶어라

먼 랑림산기슭
외진 산촌마을-
알알이 황금이삭 여무는
좋은 철이 와서
이 가을엔
수령님 오시기를 기다리는가

산기슭 다락밭에서
이따금 일손을 멈추고
마을앞 동구길을 바라보는
처녀분조장

산너머 먼 공장지구엔
소문없이 들리셨다는 수령님
이번 결음엔
우리 마을에도
오실것만 같아

수령님 오시면
큰길로 오실테지
수령님 오실 동구길에
비단필을 깔아드리고
꽃수를 놓아드리고싶은
그 마음들

이른새벽에
늦은저녁에

고루고 쓸며
조약돌 하나 있을세라
깨끗이 닦아놓은
동구길 시오리-

꼭 오시리라 기다리면서도
설마 오시랴
이 외진 산촌에
설마 오시랴
그 바쁘신 길에...

가을 해는
다락밭우에 솟아오르고
저 멀리 큰길가에서
뜨락뜨락동음소리만
가을바람에 실려오는데

동구길을 지켜보는
분조장의 그 마음인듯
동구앞 미루나무우에서
까치 두마리 울고있어라

(2)

별방은 별방대로 만풍년
산촌은 산촌대로 만풍년
창자가 차고넘치게
풍년농사 지은 기쁨을 안고
온 나라 농민들이 모여앉던
금년도 정초

함박눈이 펄펄
풍년을 약속하며 끝없이 내리고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새해농사 가르치심을 받는
대회장도 풍년이야기로 꽃피던
그날-

연단우에 나선
먼 산간마을에서 온
처녀분조장의 가슴에도
꽃이 피는듯

어제날에는
정보당 한두톤이면 고작이던 밭에서
지난 가을엔
일곱톤을 냈다는

그의 이야기

나이는 어려도
돌우에 꽃을 피운
이악한 그 마음
그 모습 기록하시여
먼저 박수를 보내주시던 수령님

그를 가까이 부르시고
다정히 물으시여라
분조장이 산다는
그 고장 이름을

-그래
양지마을이란말이지...
그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듯
다시 외우시더니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시며
나이까지 물으시는 수령님

안경을 벗으시여
탁상우에 놓으시고
잠시 말씀이 없으신 수령님
흘러간 스무해
먼 산촌길에
생각을 없으시는것인가

...굽이굽이 산촌길을 달리는
차창가 저 멀리
전쟁이 남긴 흔적이런듯
마을앞 미루나무에
폭탄깎지를 종으로 매단
산기슭 작은 동네

현지지도의 길을 가시던 수령님
달리던 차를 갑자기 멈추시고
차에서 내리시였어라
길가의 발머리에서
등짐을 지는 너인들을 보시고

영문을 몰라
급히 달려온 일꾼들에게
나직이 하시는 그 말씀
-걸어서 갑시다

... ..
수령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
미처 알수 없어
일꾼들은 저녁해를 이고
당황해 서있는데

안색을 흐리시고

너인들을 바라보시는 수령님
-너인들이 등짐을 지고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차를 타고 지나가겠소

달구지바퀴에 패인
힘한 길로
묵묵히 자욱을 옮기시더니
최뚝을 넘으시여
너인들 앞으로 다가가신 수령님

발머리에 무저놓은
돌각담우에 허물없이 앉으시며
피약벌아래서
무거운 등짐을 지는
그 수고를 심려하실 때

가슴속 뜨거움을 감추지 못하며
한 너인이 말씀올리여라
-수령님, 일없습니다
전쟁을 이긴 인민인데
등짐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 해저무는
산촌의 길가에서 만나신
남편이 전사했다는 그 너인
진정이 넘친 그 말을
스무해 세월이 흐르도록
마음에 새기시고계시는 수령님

그 고장에서도 이제는
기계농사 풍년농사 짓고 산다니
마음이 놓이시는듯
다시 조용히 외우시여라
-양지마을이라...

산세 험하고
물이 바르던 그 고장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더니
-분조장동무
동무들이 금년에도 농사를 잘 지으면
내 한번 꼭 가겠소!

온 대회장에서
나어린 분조장과
수령님께서 약속하실 때
박수소리
박수소리

대회장에 떠나갈듯
터지는 박수소리도
감격의 환호성도

흐느끼며 서있는
분조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박수소리보다 더 높이
감격의 파도보다 더 높이
그의 가슴속에는
다정하신 그 음성만이 차있었다
-내 한번 꼭 가겠소!

(3)

온 나라
온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은 한분이시고
모시고싶은곳
모시고싶은 마음은
천만이고 몇천만이니

어떻게 오시라
만나실 사람 많으실텐데
어떻게 오시라
들리실 교장 많으실텐데...

그런데
누구들일가?
저 멀리
골짜기를 따라 뻗어내린
산등성이를 가로질러
양지마을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읍으로 갈 때면
질러다니는 오솔길
발에 채이는 돌부리
옷자락을 쥐여당기는 엉덩퀴며
풀씨들이 달라붙는 길

그 길로
등성이를 넘어
가파로운 비탈길을 내려
무성한 강냉이숲사이
오솔길에 들어서고있었네

바람결에 들려오는
우렁우렁한 말소리에
문득 걸음을 멈춘 분조장
너무도 뜻밖의 일에
가슴 울렁거리며
목메여지는 한순간

정말 꿈같이
바로 저만큼 앞에
수령님께서 서계시구나!
산기슭 발머리에

환히 웃으시며
옷자락을 날리시며

-수령님!
수령님께서서...
순간, 분조장은
눈물이 콧 쏟아져라
-어쩌면...
그 험한 오솔길로 오사다니
큰길을 두시고...

강냉이이삭을 만져보시며
만족하게 웃으시며
가까이
가까이 걸어오시는
아버이수령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품에 안길듯 달려가 인사드리는데
우리 분조장이 잘 있었는가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는
수령님의 옷섶에
후더운 눈물을 떨군다

-동무들이 가꾼 강냉이를 구경하자고
주인도 모르게 들어왔소
자애롭게 웃으시며
분조장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나란히 걸으시는 수령님

좋은 가을날이다
어깨에 옷섶에
어리광부리듯 스적이는 강냉이 잎
이삭 큰 자랑에
설테이며 속삭이는 강냉이바다
기쁜 가을날이다

아버이수령님 오시며
만족하게 웃으시며 보아주실
그런 이삭들을 가꾸자고
온 한해 바쳐온 정성이
만이삭 천만이삭
수령님의 기쁨이 되어 설테이는데

-농사를 잘 지었구만
동무들이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수령님께서 다정히 말씀하시고
분조장은 눈물을 머금고 웃고

행복한 가을날이다
바라던 소원이

꿈같이 이루어진
참으로 행복한 가을날이다

이런 사실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가
이름없는 산촌의
이름없는 분조장
나어린 한 처녀와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렇듯 먼길에 찾아오실줄을

풀씨들이 붙어있는
수령님의 옷자락에서
눈물어린 시선을
오래도록 못떼는 분조장

오실줄은 몰랐네
먼길에 수령님 오시면
좋은 길로 모시리라 하였던만
그 길로는 아니 오시고
오솔길로 오실줄은
정말 몰랐네

(4)

산촌의 해는 짧기도 해라
행복한 시간은 빠르기도 해라
이제 가실 길은
에서 몇백리
해는 기울건만
떠나실줄 모르시는 수령님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자애롭게 웃으시는 수령님
-분조장동무
저 다락밭에 올라가 봅시다

다락밭이 펼쳐진
멀리 마을뒤산
산촌의 마지막포전을
찾아가시는 수령님

아, 어찌 알았으랴
오솔길로 오신 수령님
이렇듯 더 험한
비탈길을 다시 오르실줄을

늘 오르내리던 길이건만
오늘은 더 험해보이고
오늘은 더 높아보여서
자꾸만 갈마드는

분조장의 뜨거운 생각이여

스무해전 그날
너인들이 등짐을 진다고
차에서 내리시여
산촌길을 걸으시었다는 수령님

그날
발머리에 포단을 깔고
잠든 아기를 보시며
오래도록 안색을 흐리시고
바쁘신 길 지체하셨다는 수령님

오늘은 기계농사 흥겨운
산촌에 오시여
아직도 스무해전
그 마음이신듯
어찌하여 이렇듯
힘한 길을 또 걸으시는것인가

양지마을
양지마을
산촌에 하도 햇빛이 밝아
이름도 양지마을인가

눈부신 햇빛을 뿌리시며
수령님께서 다락밭에 서계시여라
전번된 산촌을 바라보시니
더욱 감회 깊으신듯
-그날 이 마을 길가에서 만났던
그 너동무가
좋은 동무였습니다

아득한 그날
길가에서 잠시 만나신
너무도 폐사로운 그 사연을
오늘까지 잊지 않으시고계실줄을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었으랴

왈칵 눈물이 북받쳐
수령님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분조장은 목이 메여라
-수령님...

-그래 네가
그날 발머리에서 잠자던
그 아이였던말이지!
놀라시는듯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듯
저으기 흥분되신 수령님

못내 대견하시여

흐느끼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시며
내가 늘 말하던
그 아주머니의 딸이라고
좋은 어머니에
훌륭한 딸이라고
몇번이고 자랑하시여라

어머니가 서있던 그 땅을
대를 이어 가꿔가는 미더운 딸
그 땅우에
더 좋은 락원을 꽃피워주시려는
아버이 그 마음

다락발머리를 걸으신다
멀리 가까이
등성이들을 바라보시며
사색깊은 자욱을 옮기시던 수령님
조용히 걸음을 멈추시여라
-동무들, 저수지 물을
다락발에 끌어옵시다!

모두 놀란 눈길로 바라보는
하나의 저수지,
어떻게 그 물을 끌어오라
골짜기들을 넘어
등성이들을 넘어

한손을 비껴드신 수령님
밋밋한 등성이들을
하나하나 짚으시더니
저수지와 다락발을
쭉- 그으시는
그 손길!

-무쇠관으로
저 골짜기와 골짜기들을
하나로 연결합시다

예지로 번뜩이시는
그 손길
그 음성
썩-모두의 가슴을 치는데

-물론 이것은
대포로
참새를 잡는격이라 할수 있소
그렇지만 아낄것이 없습니다

산천이 일어 선다
기쁨에 설레이고
감격에 파도친다
가슴을 치며 가슴을 적시며

팔팔 흘러드는 사랑의 물줄기여

그래서 오시였구나!
그래서 오솔길도 걸어보시고
험한 비탈길도 오르시였구나!
그날의 그 약속이
크나큰 사랑의 약속이었구나!

행복에 겨워
산촌도 설레이고
산촌의 가을도 웃는데
행복에 겨워
사람들은 목메어 흐느끼여라

(5)

떠나시고
바래드리는
산촌마을 동구길
이제나마 수령님을
그 길에 모시게 되어
굽이굽이에 기쁨이 어렸는데

작은돌 하나 있을세라
깨끗이 길을 닦은
농장원들의 그 마음 헤아리시며
잠시 말씀이 없으시던 수령님

뜨거움에 젖으신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시여라
-나야 어쩌다 걷는 길인데
힘하면 무어랍니까

이 길은
이곳 농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있는 길이라고
자애롭게 말씀하시는 수령님
-동구길을 넓히시다
기계들이 마음대로 다닐수 있게
길을 더 넓혀줍시다

길이여, 길이여
인민의 마음은
수령님을 위해 닦고
아버이수령님께선
인민이 올리는 마음에
백배 천배를 더하여 넓혀주시니

사랑과 은정의 이야기
깨끗한 흙모의 정
한없이 어울려 흐르는 산촌길은
행복한 미래를 향해
끝없이 펼쳐지는데

승용차에 오르시며
 분조장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는 수령님
 -분조장동무
 풍년든 다락밭을 보러
 다시 또 오겠소

또다시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고
 길을 떠나시는
 어버이수령님!

오실 때에는
 오솔길로 오시고
 가실 때에는
 기계화의 큰길
 넓은 길을 열어주시는 수령님

아, 기나긴 한평생
 자신께서는
 오솔길 진창길 밤길...
 이 땅의 험한 길은 다 걸으시며

인민에게는
 넓은 길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쉽없이 헤쳐가시는
 사랑의 길이어

어버이수령님 모시여
 가장 행복한 인민이 울리는
 축원의 노래이런가
 깨끗한 마음이런가

어버이수령님 헤쳐가시는
 끝없는 그 길우에
 노을이 흐른다
 노을이 흐른다

다듬은 말

| | |
|------|--------------|
| 본래말 | 다듬은 말 |
| 노크 | 손기척 |
| 노트 | 공책, 학습장 |
| 농가 | 농사집 |
| 농번기 | 농사철, 바쁜 농사철 |
| 농악무 | 농악춤 |
| 눈금간격 | 눈금사이 |
| 니 토 | 진흙 |
| 내건성 | 마름건딜성, 가물건딜성 |
| 내한발성 | 가물건딜성 |
| 내한성 | 추위건딜성 |
| 내피 | 속껍질 |
| 내화물 | 불건딜감 |

| | |
|--------|------------------|
| 본래말 | 다듬은 말 |
| 내화벽돌 | 불벽돌 |
| 네트 | 그물 |
| 뇌막 | 머리끝막 |
| 다년간 | 여러해동안 여러해사이... |
| 다년생 | 여러해살이 |
| 다도해 | 섬바다 |
| 다 독 | 많이 읽기 |
| 다량채굴 | 많은량 캐기 |
| 다량입하하다 | 많이 들어오다 |
| 다방면 | 여러모, 여러면... |
| 다분히 | 많이, 적잖게 |
| 다소 | 좀, 조금, 얼마간, 많고적고 |

자애로운 품

서 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총련일군대표단으로 조국에 온지 벌써 20여일이 지났다.

하루하루가 흥분과 감격, 행복과 영광의 나날이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에서 귀국한 동포들은 지금 누구나 다 무료로 교육을 받고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있습니다.》

오늘은 5년전에 귀국하여 음악대학에 다니고있는 큰아들과 만나게 된다.

(그동안 그녀석이 얼마나 달라졌을가?)

아버지로서의 궁금한 생각에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부자지간이라도 서로 허물없이 속을 터놓기는 어렵다. 이것은 나도 해방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느낀 감정이였다. 그래서 나는 이전부터 자식들하고는 되도록이면 동무처럼 지내려고 마음먹었었다.

그러나 장남이란 모두 그런것인지 이 애도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데다가 무척 내성적이였다.

세살때의 동생이 응석을 부릴 사이도 없이 제가 먼저 곧잘 울어서 누가 형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원래 내 성미가 급한데다가 사내자식, 특히 딸 아들일수록 억세고 꾀꾀하게 키워왔겠다는 욕심으로 내앞에서 울면 엄포를 놓아 놀러버리기가 일쑤였다.

어지간한 신열이 있어도 학교엘 보냈다. 정 심할 때는 제 어미에게 업혀서라도 보냈다. 그래서 인지 고급학교까지 12년간을 꽤찮은 성적과 개근상을 받았다.

하지만 일이 바쁘다나니 부지중에 아들과의 사이가 멀어졌다. 그 애가 지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는 조선대학에 다니었으므로 또한 서로 만나기가 어려웠다.

언젠가는 차근히 이야기를 나누어 아버지로서의 요구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있으며 장차 어떻게 할 작정인지 알아보자고 하던차에 훌쩍 귀국을 해버렸다.

대학 3학년 진급을 앞두고 어느날 제 어머니를 통하여 소조에서 하던 음악을 전공하고싶으니 귀국을 하겠다고 일러왔다. 덧붙여 직접 아버지한테 말하면 반대를 할것이라고까지 하면서...

나는 좀 당황했다.

일본정부가 단지 우리 나라하고만 국교를 맺지 않고있는 조건에서 귀국이란 곧 부자간이 영혜어진다는것으로도 통하기때문이었다.

뿐만아니라 아직 일러두어야 할 이야기도 많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서로 일군으로, 동지로서 지내고싶었던 기대가 무너지는 아쉬운 생각때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아직 수양이 모자라는 녀석이 벽찬 조국에서 과연 얼마나 따라갈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조국으로 간다는것을 누가 막겠소. 하지만 대학이나 마치고 가라고 하오.》

겨우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 이렇게 전하도록 제어머니에게 일러두었다.

그런데 하루는 애가 집에 찾아왔다 하는 말인즉은 아무래도 조국으로 가야겠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것이였다. 여느때와는 달리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마에 땀방울까지 돌아서...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귀국할 때까지 며칠간을 집에 있었으나 내일이 바빠서 조용히 이야기 한번 나누지 못한채 훌쩍 떠나버렸다.

5년간 여기 조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올해 졸업을 하게 된다.

그 자식이 오늘 찾아온다.

아버지구실을 다하지 못한 사과라고 할가 따듯이 정을 주지 못한 미안한 감이라고 할가 복잡한 심정이다.

만나면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

조국에 와서 어쩐지 눈물이 헤쳐졌다.

나이 탓일까? 아니다. 보는것 듣는것이 모두가 감격과 감동뿐이니 자기도모르게 자꾸 뜨거운것이 쏟아진다.

그 애는 나를 어떻게 대할가?

조국이지만 일가친척 하나없이 혼자서 외롭게 다섯해를 지냈으니 아마 눈물을 흘리겠지... 안될 만이다. 다 큰 사내자식이 눈물을 흘려서야... 만나자바람으로 룡이라도 걸어서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드님이 왔습니다.》

조국동지의 목소리와 함께 낮익은 얼굴이 서글서글한 웃음을 띠우고 들어왔다. 사뭇 의젓하고 림름한것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

그 애의 모습에서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피부로 느낀 순간 어쩐지 눈물이 콧 치밀었다. 그것을 꼭 누르고 자리에 앉으라고 해놓고는 뺑고 안에서 사과를 가져온다 물을 나른다 다시 고뿌를 가져온다 하면서 힐끔힐끔 아들을 훑쳐보았다.

나보다도 키가 큰 스물일곱살 난 장폴이 제법 의젓하게 티를 차리고 앉아있다.

《아버지, 일없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제 더는 할 일이 없으니 마주앉을수밖에... 바쁘게 담배를 꺼내여 불을 붙인후 참 이너석도 담배를 피운댔지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 담배곽을 내밀었다.

손을 들어 거절을 한다.

(이 녀석이 좀 철은 들었나보다.)

내판으론 큰 아량을 보이자고

《이젠 다 컸으니 괜찮다. 같이 피우자.》 하고 권해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담배는 젊은 몸에 해롭다고 하시기에 학생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자기도 끊은지가 오래다고 한다.

(철이 들긴 했군.)

나는 마음속으로 못내 대견스러웠다.

《그래 허리병은 좀 어떻냐?》

내가 제일 묻고싶은 말이였다.

이 애가 고등학교때에 중앙체육축전이 있어 등산경기에 참가했다.

5명이 한조가 되어 지정된 중장비를 메고 밤에 산을 넘는 시간을 겨루는 평가이다.

자기네 학교에서는 창설 이래 처음으로 입상을 하였다고 크게 떠들썩하지만 그때 동무들의 무거운 짐을 저준것이 탈이 나서 허리를 다쳤다.

별의별 치료를 다 해보았지만 그때뿐이고 한해에도 몇번씩 도지군했다. 앞으로 치료를 계속하자면 막대한 돈이 들고 근처의 담보도 없었다. 귀국을 승인한 리유의 하나가 무상치료제인 조국

에 가면 병을 고칠수 있다는 신심이었다.

《예, 이젠 일없습니다.》

하는 아들녀석의 대답에 혹시 아버지에게 걱정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소리나 아닌가 하여 또 묻고 캐여물었다.

아, 위대한 수령님께서 두달동안 시중호에서 룡양을 하면서 전문치료를 받도록 해주신것이였다.

일본의 병원에서 난치의 병이라고 하던 아들의 병을 우리 수령님께서 고쳐주시였다.

나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아버지!》 하고 내미는 재털이에 깜짝 놀래여 담배를 비벼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또 뺑고앞으로 다가가 문을 연채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자꾸만 솟아나는 눈물을 건잡을수 없어 짐짓 큰 기침을 하면서 세면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변변한 악기 하나 쥐여주지 못한채 조국으로 보냈지만...

공부는 따라갈수 있으며 조직생활도 잘하느냐고 물었다.

금년 졸업생들중에서는 자기와 같은 악기를 전공한 사람은 혼자뿐이며 학급에서 학생들의 조직생활을 책임진 초급간부를 맡아하고있다는것이였다.

《그럼 일자리는 문제 없겠구나.》 나는 웃으면서 물었다.

《그래 어데 가고싶다는 희망은 말했느냐?》

아들은 별것을 다 묻는다는듯한 표정을 짓고 의젓하니 대답했다.

《아무데나 당에서 배치하는데 가서 일하겠습시다.》

아차, 가슴이 덜컥했다.

지금까지 말로써는 조직에 대한 관점이니 뭐니 하면서도 막상 자기 자식문제가 되니까 개인주의가 튀어나오는구나... 얼굴이 화끈거리는것을 눈치채일가봐 탄전을 벌렸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장가도 가야 할텐데 바든 처녀는 없느냐?》

얼굴을 붉힐뿐 말이 없었다.

《말해 봐, 좋은 처녀가 있으면 네 어머니가 방문단으로 올수도 있으니까.》

《아직 없습니다.》

사내자식이 그래 스물일곱살 나도록 마음에 둔 녀동무 하나 없다?!

부모와의 합의밑에 대상자를 고르지 못할수도 있겠다. 이때야말로 내 의견을 주어 아버지구실

을 해야겠다.

《대상자는 첫째로 사상이 튼튼해야 한다.》 하고는 잠시 망설이였다, 좀 쑥스러웠으나 내가 제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된 이야기를 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5년에 재일조선인운동을 바로잡아주시기 이전이였다.

래일을 모르는 비합법투쟁에 나섰으나 혁명을 한다는 열정만은 있었다.

하루에 빵 한덩이나 식은밥 한끼 얻어걸리면 상황이고 끼니를 넘기기가 폐사였다.

배가 고파서 더 그런지 일본의 한겨울추위는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내가 서른살이 되던 해였다. 삼동에 맨발로 헌신은 털력거리면서도 가슴펴고 다니던 처녀활동가가 제 어머니였다.

(저만하면 일평생 고생을 이겨내겠지.) 하는것이 배필로서의 담보였다.

지금도 다섯식구에 집안일을 좀 보아가면서 하라고 편잔을 주면 내 역정을 적당하게 무마하고는 밤낮 쫓아다니는데는 머리가 수그러진다.

《첫째로 사상이고 다음은 건강이다. 얼굴만 봐선 안돼.》

하고 열을 올리였다.

《아버지, 그만 하십시오. 저도 다 알고있습니다.》

아들녀석은 아버지의 말을 막는것이 미안한듯 고개를 들어 찌뽕찌뽕 입을 열었다.

《...전 당분간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

뜻밖이였다.

《저는 지금까지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만을 받아왔는데 이제부터 일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좀 일을 하다가 차차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아들녀석을 다시 쳐다보았다. 무안하기 짝이 없었다. 자식아이였지만 나는 부끄러움에 몸둘바를 몰랐다.

(무척 자랐구나!)

한편 이런 생각에 장하기도 했다.

...우리는 결혼을 해서도 새 이불 한채없이 서로 가지고있던 헌이불을 덮고 살았다.

아이가 생겨서는 그 이불을 뜯어서 아이옷을 만들어주었다.

동포들의 축하금을 미리 예견하여 두달전에 꾸어다가 생활비로 나누어 써버리었다.

좀 커서는 방이 좁아 이 애를 내가 배우에 안아 재웠다.

장난감 하나 못사준것이 가책으로 보다는 친구시간의 옛말거리로 삼아왔다.

지금까지 불쌍하고 측은하고 미안하게만 여겨왔던 아들이 아버지의 감상을 뛰어넘어 다 커버렸다.

애야, 부질없는 이 아버지의 헛걱정을 용서해다오. 나는 그동안 네가 그토록 성장했으리라고는 미처 다 생각을 못했구나.

위대한 수령님!

5년만에 만난 아들에게 이젠 더 할말이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단지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죽을때까지 자식걱정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식이 잘되기만을 바라는게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품에 안긴 제 아들이 이제는 저를 내려다보고있습니다.

제 예순나이의 인생관, 세계관을 불과 5년간의 시간으로 뛰어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

이 이상 또 부자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

어느새 날이 밝았다.

한잠 자라고 했더니 수업이 있어서 가야겠다고 한다.

《그럼 같이 나가자.》

일없다고 거절하는것을 눌러 데리고 나왔다.

조국의 청신한 아침공기가 폐부에 스며들었다.

하늘우에 반달이 남아있는데 아름답리버드나무들을 넘어 노을이 비쳤다.

연분홍색 노을빛이 아름답게 비낀 대동강의 잔잔한 물위에 물새들이 날아예고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다시 또 오겠습니다.》

《어서 가거라.》

등근해가 떠오른다. 크게 크게 떠오른다. 멀어저가는 아들의 림름한 뒤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또 다시 불같이 뜨거워지는 가슴을 어쩔수 없었다.

아! 위대한 수령님 고맙습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한이 없습니다.

어찌 이 보은을 다하오리까. 부디 만수무강하시옵기를 축원할뿐입니다.

세부묘사를 잘할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

김용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의 령봉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선행한 력사적시대와는 비할바없이 풍부하고도 다양한 생활내용으로 가득차있다.

인류력사는 아직 인간의 사상정신적품모가 그토록 높이 발양되고 인간의 창조적생활이 그토록 풍부하고 다양하게 펼쳐진 시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과정에 벌어지는 이처럼 보람찬 새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내야 한다. 이때만이 문예작품은 사상을 감명깊게 밝혀낼수 있으며 사람들은 작품에 그려진 의의있고 보람찬 생활을 통하여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할수 있고 참된 삶의 보람과 혁명의 진리를 체득할수 있다.

그러나 생활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린다고 하면서 생활 그자체를 제시만 한다면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산인간을 구체적으로 보여줄수 없고 생활자체도 생동하게 그려낼수 없으며 작가가 그 어떤 정치적인것, 크고 요란한것만 그리려고 하면서 거대한 사회력사적사건들을 통채로 라렬한다면 생활을 본색 그대로 그려낼수없을뿐만아니라 인간중심의 문학이 아니라 사건중심의 문학을 낳게 되고 아무런 교양적기능도, 형상적효과도 달성할수 없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모든 예술작품은 다 사람들의 생활을 그려야 합니다. 어떤 혁명가를 형상한다면 그가 어떻게 혁명가로 자라나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생활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진 생활만이 문예작품에서 생활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담보해준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인간과 그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는 비결은 바로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데 있으며 인간생활을 감명깊게 펼쳐보일수 있는 열쇠는 바로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 묘사하는데 바로 인간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으며 생활을 의의있게 보여주는 열쇠가 있으며 여기에 바로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강조하며 인간의 섬세한 심리세

계와 그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하여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비결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문예리론은 문예작품창작에서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릴데 대한 생활반영의 기본원리와 함께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 인상깊게 묘사할데 대한 세부형상창조의 원칙적요구를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인간과 그의 생활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펼쳐보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속에서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탐구선택하기 위한 전제와 그의 기본요구, 그리고 선택된 예술적세부를 진실하고 인상깊게 묘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형상방도가 명확히 천명됨으로써 문예작품창작에서 생활을 폭넓고 다양하게,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1. 인간관계와 심리세계를 파고들자

주체적문예리론은 생활의 구체성은 시대와 사회제도를 반영하는 인간관계를 깊이있게, 맺어주고 인간의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그리는데서만 생겨날수 있다고 가르치였다.

시대와 사회제도를 반영하여 설정된 인간관계의 깊은 탐구와 섬세하고 구체적인 인간심리세계에로의 침투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속에서 본질적인 생활세부를 정확히 골라낼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을 준다.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관계를 깊이있게 맺어주고 그를 심화시켜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면 생활은 얼마든지 찾을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간관계가 없이 생활을 찾으라고 하면 막막해질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있다.

작품창작에서 생활탐구의 원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데 있다는 주체적문예리론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창조적사색과 예술적환상의 나래를 한껏 펼칠수 있는 힘의 원천을 제공하여준다.

창작이란 쉽게 말하여 창작가가 산인간의 구체적생활을 탐구하고 탐구된 구체적생활을 예술적형상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창작가에 의하여 탐구된 생활의 구체적세부는 허공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다. 또한 생활

세부는 현실을 떠난 창작가의 주관에 의하여 억지로 만들어진 고안물도 아니다.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는 생활세부는 오직 시대와 사회의 구체적 반영인 인간관계를 깊이 파고들 때만이 정확히 찾아낼수 있다.

그것은 인간관계와 생활이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서로 뗄래야 뗄수 없이 밀착되어있기 때문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품에서 생활은 인간관계속에서만 깊이있게 그려지게 되고 인간관계는 생활속에서만 두드러지게 부각된다고 가르치고있다.

사람들의 생활은 사회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사람들의 사회관계는 그들의 생활의 반영이다.

작품에 그려지는 인간관계가 사회관계의 예술적반영이라면 사회관계를 떠난 사람들의 생활이 있을수 없듯이 인간관계를 떠나서 작품에 그려지는 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은 인간과 그들의 구체적생활을 그리는것을 자기의 본성적특성으로 한다.

사람들의 현실생활은 사회관계의 구체적표현이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윤리적 제관계속에서 사는 구체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사회적관계는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바 그것이 바로 정치생활, 경제생활, 군사생활, 가정생활이라는 생활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낳는다.

바로 이처럼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일반적이 아니라 언제나 구체적이며 실무적이 아니라 정치적이다. 따라서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생활세부는 언제나 구체적인 인간관계속에서만 탐구될수 있다.

문예작품창작에서는 심오한 사상도, 인상깊은 성격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보여주어야 하는바 다양하고 구체적인 생활은 언제나 사람들 호상간에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맺어지는 인간관계속에서만 탐구될수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옮긴 혁명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인간관계를 사회적성격과 시대의 본질에 맞게 진실하게 설정하였기때문에 작품이 제기한 심오한 종자를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명할수 있었으며 주인공 갑룡이가 막다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싸움의 길, 혁명의 길밖에 없다는 위대한 혁명의 진리를 깨닫기까지의 의식발전과정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이처럼 훌륭히 그려나갈수 있었다. 작품은 주인공인 갑룡이를 중심축으로 하여 아버지, 금순이와 인간관계를 치밀하게 설정하고 특히 같은 소작농의 자식들이며 오랜 친구들인 철삼이와 만식이와의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었기때문에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인

상깊은 생활세부는 무수히 창조될수 있었으며 작품의 종자는 진실하고 생동한 생활묘사속에서 심오하게 해명될수 있었다.

문예작품에 설정되는 인간관계와 그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생활은 서로 불가분리적으로 밀착되어있지만 생활세부의 탐구는 언제나 인간관계의 심화로부터 시작된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그것을 심화시켜 들어가면 좋은 세부들을 얼마든지 찾을수 있다.

의의있는 종자를 잡고 인간과 그들의 호상관계를 빈틈없이 맞물려놓은 다음부터 비로소 창작가의 환상은 나래를 펴기 시작하고 생활탐구의 전체는 성숙되어간다. 생활탐구의 공간으로 되는 인간관계의 설정에 의하여 벌써 문학적인 이야기는 시작되며 인간관계를 심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생활세부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인간생활은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화폭속에서 감명깊게 펼쳐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관계와 생활은 밀착되어있지만 생활세부탐구의 실머리는 언제나 인간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세계를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인간의 심리세계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윤리도덕적 관계속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적체험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시대적반영으로서의 인간관계속에서 존재하는 매개 인간은 자기의 계급적처지, 사상의식수준, 주위환경의 영향, 자체수양의 정도 등에 의하여 그가 느끼는 심리정서적체험과정에 각이하며 복잡한 심리적굴곡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간의 심리세계는 언제나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면 일반적인 심리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심리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결과에로 이르는 섬세한 심리적움직임의 과정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하며 언제나 구체적인 인간심리는 반드시 구체적인 생활속에서만 드러난다.

사유하는 인간의 언어와 행동은 그 모두가 다 심리적현상의 반영이다. 산인간은 행동하기전에 먼저 사색한다. 이런 심리적인 충동도 없이, 비록 순간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색이 없이 인간은 행동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영웅적인 위훈과 업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며 그 바탕에는 반드시 그를 위훈으로 이끈 영웅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깔려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설정된 생활정형의 단면속에서 무작정 생활세부부터 찾으려고 할것이 아

니라 등장인물의 심리세계부터 파고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심리세계를 다면적으로 섬세하게 파고드는것이 세부담구의 전제로 되다고 말하는것이다. 만약 그 어느 작가가 현실속에서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의 심리세계에 대한 파악이 없이 생활세부부터 찾는다고 하면 그러한 세부는 시대와 인간성격의 본질을 체현하지 못한 비본질적이고 사말적인 세부로서 작품의 전반적인 형상창조에서 아무런 의의도 못가지게 될것이며 종당에는 군더더기로서 작가자신이 자기 손으로 수술해버리지 않으면 안되게 될것이다. 왜냐하면 생활의 본질은 많은 경우 겉에 드러난 단순한 행동으로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낳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파악으로 비로서 규정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창작가들은 본질적인 생활세부를 탐구하기 위하여 인간성격의 본질을 규정하는 그의 심리세계를 깊이 파고들어야 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현상속에서도 심리일반이 아니라 언제나 생활의 본질, 인간성격의 주도적인 측면을 규정짓는 그러한 인간의 감정정서세계를 붙잡고 형상창조의 나래를 펼쳐나가야 한다. 바로 이처럼 주제적문예리론이 명백하게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인간의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파고드는것은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본공간으로 된다.

2.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내자

위대한 주제적문예사상에 기초한 주제적문예리론은 인간관계설정과 인간심리세계를 파고드는것이 생활세부담구의 기본공간으로 된다는 심오한 원리를 제시하고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선택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에 대하여 독창적인 해명을 주었다.

사람들의 사상감정이 표현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는 생활정형의 단면속에서 어떠한 원칙적요구에 의하여 생활세부를 골라내는가 하는것은 생활의 본질과 그 합법칙성을 정당하게 밝혀내면 특징있는 인간성격창조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생활세부가 담고있어야 할 내용적요소와 특징이 명백히 규정되어야 창작가들은 세부선택에서 조잡성과 일면성을 극복하고 인간성격의 본질, 생활의 본질을 풍부하고 생동한 예술적화폭속에서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다.

주제적문예리론은 생활세부선택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를 가장 정당하게 밝혀놓음으로써 문예작품창작에서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그려내고 작품의 생명인 형상성을 높일수 있는 기본방도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었다.

문예작품에서 선택되는 생활세부는 반드시 종

자와 주제해명에 맞는것이어야 한다.

주제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에 그려지는 모든 생활세부는 반드시 종자와 주제해명에 꼭 알맞는 세부여야 한다.

이것은 형상창조의 목적으로부터 출발되는 정당하고 필수적인 요구이다.

생활반영의 구체성과 개성적인 바반복성. 정서적감수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문예작품의 형상성은 작품이 제기한 심오한 사상주제적내용을 예술적으로 설득력있게 해명하는데 철저히 복종되고 이바지한다. 그 아무리 절박한 사회적문제성도, 그 아무리 심오한 사상적내용도 고상한 예술적형식의 동무이 없이는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흥분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예술적형상의 본질적요소를 이르는 생활세부도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해명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하며 작품의 종자를 아름답게 꽃피우고 그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두드러지게 살려내는 방향에서 탐구되고 선택되어야 한다.

문예작품에서의 예술적세부는 우선 종자해명에 알맞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주제적문예리론은 작품에서는 종자의 요구에 맞는 생활을 잘 골라서 자연스럽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혀주었다.

작가의 작품창작은 현실속에서 정책적인 요구가 반영된 형상적이고 특색있는 종자를 잡아쥐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작품의 종자는 생동하게 그려진 인간성격의 구체적형상을 통하여 밝혀지며 종자가 안고있는 심오한 사상도 구체적인 생활묘사를 통하여 해명된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세부 역시 종자실현의 풍요한 형상수단이라고 말하는것이다.

그러나 생활의 모든 현상이 다 본질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것처럼 모든 생활세부들에 다 생활의 본질을 담고있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창작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속에서 생활의 씨앗, 사상적핵을 안고있는 예술적세부들을 탐구선택하여야 한다. 이때만이 작가가 작품에 심어놓은 종자는 생활세부의 진실한 묘사속에서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실현될수 있으며 구체적생활속에서 흘러나온 심오한 사상은 독자대중들에게 뜨겁게 접수되고 강한 충격과 깊은 감동을 주게 된다.

창작가들은 작품의 종자를 체현하고있는 생활세부를 정확히 골라내기 위해서 작품에 심어진 종자에 대한 사상적 및 형상적 파악과정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종자에 대한 깊은 파악이 없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속에서 종자를 형상적으로 실현시켜주는 생활세부를 찾아볼수 없다. 훌륭한 종자를 잡아쥐고도 작품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반드시 종자에 대한 사상적파악과정을 심화시켜야 스쳐지날수 있는 작은 세부에도 심각한 사

회정치적의의를 부여할수 있게 되며 동시에 종자에 대한 형상적파악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작은 세부에서도 거대한 형상적표현력을 끄집어낼수 있다.

창작가들은 또한 종자를 잡아쥐고 그에 대한 파악이 생긴다음 종자가 환기시켜주는 생활을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종자를 키워내는 과정에도 줄곧 생활을 체험하고 사색하여야 한다.

창작가들은 진지한 생활체험과정에 종자를 잡아쥐지만 그의 예술적가공을 위하여서는 다시금 생활을 깊이 연구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종자는 예술적화폭속에서만 실현될수 있기때문이다. 결국 작품을 쓰는 과정은 작가가 체험한 생활을 다시 종자의 요구에 맞게 그려나가면서 생동한 형상을 강조해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창작가들은 종자를 체현하고있는 뜻깊은 세부를 선택하기 위하여 작품에 심어진 종자에 대한 깊은 파악과 함께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탐구하여야 한다.

생활세부는 또한 주제해명에 또 알맞게 선택되어야 한다.

작가는 종자를 잡아쥐었을 때 벌써 자기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를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기본문제를 확정하는것으로 창작이 끝나는것은 아니다. 작가는 종자에 의하여 규정된 기본문제를 정치적의의가 있게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란 곧 작품이 제기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해명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제해명은 작가의 일방적인 선언이나 호소적인 구호로 밝혀지지 않는다.

주제적문예리론은 생활을 통하여 의의있는 문제를 풀며 사상을 밝히는것은 예술의 고유한 본성이라고 가르치였다.

주제적문예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작품에서 주제는 작가의 말로 강조될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상고리들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가야 한다.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과정이란 곧 생활의 세부형상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작품의 기본문제를 보여주거나 암시하는 생활세부를 선택하고 그것을 형상창조의 전반과정에서 주제해명에 꼭 맞물려놓는것을 문예작품창작의 기본요구로 나선다.

문예작품에서 주제해명에 맞는 생활세부를 선택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품의 주제는 그에 맞는 생활세부의 인상깊은 묘사로서만이 독자들에게 생활적으로 납득된다. 만약 창작가들이 작품의 첫머리에 정치적인 대사몇마디로 작품의 주제를 선언하거나 생경한 설화로써 주제를 제기해놓는다면 독자들은 지루하고 싱거워져 작품을 볼 재미가 없게 된다. 이것은 형상이 아니라 억지이며 예술창조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의 논리적설교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자를 잡아쥐고 종자가 확정된 다음 기본문제 안고있는 생활세부를 깊이 탐구선택하는것은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생동하고 진실한 예술적화폭속에서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는 생명선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

문예작품에서 주제해명에 알맞게 생활세부를 선택하는것은 주제분렬을 극복하고 기본문제를 살리고 심화시켜나가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창작가들은 작품에서 모든 성격, 모든 생활을 중심문제, 기본문제를 푸는데 집중시켜나가야 한다. 기본주제에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을 확고히 살리면서 부차적인물들에게도 주제를 해명할수 있도록 일정한 극적과제를 주고 기본문제를 끌고나가는 기본사건선에 빈틈없이 맞물려놓는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세부를 옳게 선택하고 잘 맞물려놓는것도 중요하다. 생활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그린다고 하면서 주제해명에는 그닥 필요없으나 흥미있다고 하여 비본질적인 세부들을 망탕 끌어들이면 작가의 사상적의도는 모호해지고 기본문제는 종잡을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주제를 암시해주는 생활세부를 정확히 골라내는것은 작품에 설정된 기본문제를 명확히 밝혀낼수 있는 중요한 형상적고리의 하나로 된다.

주제적문예리론은 주제해명에 맞는 생활세부를 탐구선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명철하게 밝혀주고있다.

작품의 기본문제를 안고있는 생활세부는 주제해명에 맞게 설정된 인간관계속에서만 정확히 골라낼수 있다.

주제해명에 복종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설정은 비본질적인 생활세부를 낳게 되며 주제해명에 맞지 않는 비본질적인 세부들은 작품의 기본문제를 모호하게 만들며 기본사건선을 탈선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제해명에 맞는 생활세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본문제에 맞게 설정된 인간관계를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이처럼 주제해명에 복종되게 맺어진 인간관계속에서만 작품의 기본문제를 살리는 본질적이며 의의있는 세부들이 선택될수 있다.

작품의 기본문제를 안고있는 생활세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한 주인공의 생활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문예작품에서의 주인공은 작품의 종자를 해명하며 기본문제를 밝히고 작가의 사상적의도를 실현하는 형상체계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창작가는 작품에 심어놓은 종자와 기본문제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주인공의 구체적인 생활과정을 통하여 보여주며 그의 운명선을 통하여 해결한다. 이런 의미에서 주인공은 기본문제해결의 직접적인 담당자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이 사회적문제를 안고있고 주

제해명에 복종되는 본질적인 생활세부를 탐구선택하기 위하여서는 주인공의 생활과정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창작가들은 또한 기본이야기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작품의 기본문제를 안고있는 생활세부를 탐구선택하여야 한다.

작품의 기본주제는 주인공의 운명선을 보여주는 기본사건선을 통하여 해명된다. 물론 부차적인 사건도 주제해명에 이바지하기는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주제에 복종되면서 보충적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부차적인물들, 부차적사건속에서 생활세부를 탐구할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본이야기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생활을 파야 하며 그속에서 의의있는 세부, 종자해명에 이바지하는 세부를 탐구선택하여야 한다.

문예작품에서 선택되는 생활세부는 반드시 전형적인 세부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이 공장이나 농촌에 내려가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새형의 인간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잘 연구하는것입니다. 만일 우리 작가들이 한사람의 천리마기수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잘 그려낸다면 그것은 수천수만의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좋은 자료로 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전형적인 인간성격은 전형적인 생활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그릴 때만이 창조될수 있으며 이렇게 창조된 인간성격은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혀주며 생활세부의 전형화가 형상창조에서 노는 역할과의 의를 명확히 가르쳐준다.

전형화된 생활세부는 작품의 정치성을 높이는 기본담보로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창작가들은 생활의 세부를 그려도 그 사상적본질과 정치적의위를 깊이있게 밝혀내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하나의 작은 생활세부를 그려도 그의 사상적본질과 정치적의의를 깊이있게 밝혀내야 전형화의 요구를 관철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기본특징인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만약 그 어느 작가가 그것이 하나의 작은 생활세부라 하여 흘시하면서 작품에 비전형적인 생활세부를 끌어들인다면 생활의 전형화는 파괴되며 결국 인간성격은 비본질적인 생활현상속에 파묻히고 작품의 교양적가치는 떨어지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작품의 정치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현실속에서 시대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이 반영되어있는 전형적인 세부만을 선택하여야 하며 하나의 작은 세부에도 정치적의의를 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전형화된 생활세부는 예술적현실성을 보장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전형적인 생활세부를 정확히 골라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전형적으로 맺어놓아야 하며 전형적인 인간관계를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전형적인 생활세부는 전형적인 인간관계속에서만 탐구될수 있다.

전형적인 인간관계는 사람들의 호상간에 맺어지는 정치적인 관계로서 전형적인 인간관계에서만 전형적인 인간성격도, 전형적인 생활세부도 창조될수 있다. 따라서 창작가들은 작품의 사상성을 확고히 살리며 그의 진실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맺어진 전형적인 인간관계를 깊이 파고들어야 하며 그속에서 전형적인 생활세부를 골라내야 한다.

전형적인 생활세부는 혁명적인 생활속에서 찾아야 한다.

전형적인 생활이란 시대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하고있는 생활을 말한다. 오늘 우리 인민의 전형적인 생활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그들의 보람찬 투쟁속에 있다.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생활이야말로 력사발전의 기본흐름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생활이다.

전형적인 생활세부는 바로 이처럼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혁명적인 생활속에서 탐구선택하여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사건들과 세부들이 아무리 흥미있는것이라 하여도 전형적인것이 못되고 성격들을 살리는데 방해가 되는것이면 대담하게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창작가들은 뒤생활을 판다고 하면서 기본생활, 혁명적인 생활을 놓쳐서는 안되며 흥미와 웃음을 준다고 하면서 저속하고 기형적인것에서 웃음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뒤생활이란 본질을 떠난 사말적인 이야기가 아니며 흥미와 웃음은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동떨어진 기형적이고 저속한것이 아니다. 뒤생활이란 어디까지나 시대의 본질을 구현하고있는 구체적인 생활이며 흥미와 웃음은 언제나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그들의 락천적인 생활모습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예술적세부창조에서는 어디까지나 혁명적인 생활, 등장인물들의 투쟁을 기본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바로 이처럼 창작가들은 혁명적인 생활속에서 전형적인 생활세부를 골라내야 하며 그때만이 비록 하나의 작은 세부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며 예술적형

상의 진실성을 보장할수 있다.

문예작품에서 선택되는 생활세부는 성격적인 세부여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주인공의 성격이 평범하지 않게 되려면 그에게만 있을수 있는 그 어떤 특징적인것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었다.

문학예술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다 개성을 가진 산 인간들이다. 그것은 사회적존재로서의 현실적인 인간 그자체가 언제나 구체적이며 개성적이기때문이다. 현실속에 있는 산 인간은 그 성별과 연령, 생김새와 외모에서뿐아니라 사회생활의 경위와 교양성도, 지식수준, 사고방식과 언어행위, 기호와 성미, 행동과 습관들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현실속에 있는 산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리는 문예작품에서 개성을 가진 산 인간의 비 반복적인 성격창조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개성을 가진 산 인간의 성격은 작가의 인위적인 강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세부의 인상깊은 묘사를 통하여 창조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성격의 특징도 개성적인 표현을 통하여서만 인상깊게 보여줄수 있다고 가르치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성격의 특징은 언제나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은 같은 정황, 같은 생활속에서도 자기의 사상감정을 제나름으로 나타냄으로써 개성을 가진 산인간으로 되며 산 인간의 성격적특징을 표현하는 생활세부는 언제나 성격적이다. 그러므로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속에서 성격적인 세부를 잘 끌라내는것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으며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품에 성격적인 세부가 없이는 개성을 가진 산 인간성격이 아니라 판에 박은

인간, 한 형타의 프레스로 찍어낸듯한 같은 류형의 인간들이 등장하게 되며 이렇게 창조된 동형의 인간들은 본보기인간으로 될수 없으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느끼고 경탄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주인공의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의 본질,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한 전형적인 인간성격이라 하더라도 개성을 가진 산 인간으로 안겨오지 않으면 독자들은 그러한 성격에 아무런 매혹도 가지지 않는다. 이처럼 성격적인 세부는 인상깊은 인간성격창조의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속에서 성격적인 세부를 잘 끌라내려면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붙잡고 그를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에로 깊이 침투하여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을 문학예술작품이 사람들을 감

동시키고 그들의 혁명적각오를 높여주는데 이바지하려면 주인공들이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야 하며 특히 혁명가의 내면세계와 고결한 품모를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었다.

작품에 내세운 주인공의 내면세계와 혁명가로서의 그의 고결한 품모를 깊이 연구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성격적인 세부를 얼마든지 찾아낼수 있다.

만약 어느 작가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특성을 살린다고 하면서 성격의 기질적인 측면에만 매달려 거기에서 비본질적인 습관이나 취미를 그려놓는다면 이것은 주인공의 성격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공산주의인간학학으로서의 혁명적문학이 창조하는 인간은 비전형적인 인간, 럽기적이고 기형적인 속물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체현하고있는 시대의 영웅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의 훌륭한 귀감으로 되는 혁명투사들이다.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원히 따르려는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있는 가장 숭고한 정신세계의 소유자들이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시대의 영웅들이며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이다. 따라서 창작가들은 시대의 본질,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있는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깊이 파악하고 그가 펼쳐주는 전형적인 생활속에서 성격적인 세부를 탐구하여야 한다.

특히 문예작품의 사상교양적가치를 높이고 주인공의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성격의 본질을 드러내는 여러 특징들가운데서도 언제나 규정적이며 다른 모든 성격적특징을 규제하는 위치에 있는 성격의 핵, 혁명의 수령에 대한충실성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성격적인 세부를 찾아내야 한다.

특징있는 성격적세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기질적인 측면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많은 경우 그 인물만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특징은 인간성격의 기질적인 측면에서 나타난다. 성미, 기호, 습관, 취미, 언어 등으로 나타나는 인간행위의 기질적측면을 담은 세부들은 인간성격의 개성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물론 기질적측면이란 럽기적인 취미나 저속한 습관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대의 본질과 인간성격의 본질을 드러내는 성미와 기호이며 습관과 취미이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인간들의 기질적측면이 반영되어있는 성격적인 세부를 탐구선택하여 특징적인 성격창조에 참답게 이바지해야 한다.

인간성격은 그의 외모에서도 많이 드러난다.

산인간의 표정과 외모는 심리발현의 중요한 분야이다.

흔히 창작가들이 얼굴생김새를 그려내어 그의 성격을 초보적으로 규정짓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살아숨쉬고 느끼는 산 인간으로 생동하게 형상화되었으며 독자들은 생활그대로의 진실한 화폭으로 받아들인다. 혁명소설에서는 매개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그의 본질적성격을 일관하게 규정지어줄뿐만아니라 그의 외형적특징까지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산인간 그대로의 형상을 훌륭하게 창조하였다.

경위중대장 리복철은 《밝은 귀》로 특징적이며 련대강 강세호는 먼도질이 언제나 잘된 푸릿한 아래턱으로, 리경준은 구레나룻수염으로, 기관총수 장기령은 목피줄이 툭 불거져나온것으로. 윤칠너는 성긴 머리로, 권학식은 담배를 언제나 파이프에 말아피우는 《대통령감》으로 인상깊게 특징지어진다. 참으로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어느 인물도 자기의 고유한 외형적특징을 가지고있지 않는 사람이란 없다. 그들모두가 가지고있는 숭고한 정신세계와 개성적특징이 훌륭히 결합된것으로 하여 이 소설의 모든 인물들은 예술적형상창조의 극치를 이루고있으며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명작으로 되었다.

성격적인 세부의 위력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그의 교양적가치는 이처럼 비할바 없이 높다.

문학작품에서 선택되는 생활세부는 언제나 심리정서적인 세부여야 한다.

심리정서적인 세부의 탐구선택은 사람들에게 깊은 예술적감명을 주어야 할 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예술의 위력은 높은 사상이 교상한 정서로 안받침되는데서 생겨나는것이라고 가르치였다.

강한 정서성은 문학예술작품의 고유한 특성이다. 문학예술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명백하고 열렬한 정서적형상으로 그려낸다. 작가가 작품에 심어놓은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도, 심각한 사회적문제성도, 등장인물의 성격도 다같이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진 형상의 정서적힘에 의하여 감명깊게 해명되고 독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수 있다. 작가의 일반적인 설화나 격조높은 주정토로만으로는 인상깊은 성격을 창조할수 없으며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없다. 오직 인간의 사상감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심리정서적인 세부으로써만 숨쉬고 느끼는 산 인간의 성격을 창조할수 있으며 생활을 감명끝게 그려낼수 있다. 소

설이나 영화를 보고나서도 하나의 깊은 세부들이 오래동안 잊혀지지 않는 리유는 바로 이때문이다. 작가의 재능은 바로 이처럼 작은 하나의 세부에도 절절한 느낌과 섬세한 정서를 부여할줄 아는데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은 심리정서적인 세부창조의 빛나는 본보기로 되고있다. 혁명소설에는 작품에 심어진 종자를 형상의 꽃으로 만발하게 피워주는 심리정서적인 생활세부들로 가득차있다. 장군님의 군복바지에 대한 세부, 빨간땀기에 대한 세부, 술방울에 대한 세부, 이 모든 심리정서적인 예술적세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혁명전사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강렬하게 내뽐고있으며 독자들을 한없이 숭고한 정서세계로 이끌어간다. 심리정서적인 세부의 예술적견인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심리정서적인 세부는 극적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속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극적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작품에서 감정선, 인정선을 낳게 하는 기본전제로 되며 이야기줄거리를 발전시키는 기본수단으로 된다.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맺어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인 이야기가 생겨날수 있으며 감동과 흥미를 주는 생활적인 이야기가 나올수 있다. 또 극적인 인간관계로 설정되고 전개되는 감정선, 인정선 속에서만 강한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정서적인 세부가 창조된다. 실무적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속에서는 실무적인 인간성격만이 나타나며 그의 생활은 무미건조하고 따분하다. 오직 극적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속에서만 느끼고 흥분하며 사랑하고 증오할줄 아는 인간성격이 나타나며 그의 생활은 정서적인 세부로 그려질수 있다.

창작가들은 또한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심리세계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 결과를 심리정서적인 세부로 진실하게 그려내야 한다.

인간들의 내면세계는 생활과정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똑같은 정황, 똑같은 계기속에서도 사람마다 드러내는 심리적반응은 각이하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등장인물들을 언제나 극적정황속에 세워놓고 순간마다 각이하게 나타나는 그들의 심리정서적인 내적변화를 예리한 관찰력으로 포착하고 거기에 정치적의의를 부여한다음 구체적인 생활세부로 그려내야 한다.

이렇게 그려진 심리정서적인 예술적세부는 작품에 감명깊은 인간세계를 펼쳐놓을수 있으며 그의 교양적감화력은 비할바없이 커진다.

문예작품에서 선택되는 생활세부는 표현성이 강한 세부여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생활에서는 눈에 띄는것보다 훨씬 더 많은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가르치었다.

하나의 세부를 가지고도 열스물을 련상시킬수 있는 생활세부의 강한 표현성은 풍부한 예술적형상창조의 필수적요구이다.

문학예술작품은 형상의 풍만성으로 생활의 다양성을 주며 정치성과 인간성이 결합된 풍부한 인간성격을 그려낸다. 풍만한 예술적형상이 없이는 심오한 사상적내용도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낼수 없다. 작은 형식의 작품에서 흔히 우리가 대하는 생경한 논리에 의한 사상의 직선적인 선언, 개념적이며 일반적인 설화에 의한 인간문제의 해명, 메마른 인간성격은 다 표현성이 강한 생활세부의 부족으로 오는탓이다. 작품에 표현력이 강한 세부가 차고넘쳐야 심오한 풍만한 예술적형상속에서 뜻깊게 해명될수 있으며 인간성격도 다양하고 깊이있게 그려낼수 있다.

표현력이 강한 생활세부는 또한 예술적전형창조의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예술적형상의 가치는 결코 백이라는 수자에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깊이에 있으며 백에서 핵을 보여주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백을 보여주는데 있다고 하면서 작가는 백에서 하나를 곱할줄 알아야 하며 백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의 형상을 집중적으로 그릴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문학예술의 힘은 백에서 백을 보여주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백을 보여주는데 있다. 전형성의 중요한 요구인 예술적일반화의 거대한 힘은 바로 표현력이 강한 세부에 의하여 담보된다. 재능있는 창작가는 하나의 작은 세부로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성격을 모나게 규정짓는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에는 부정인물인 림도식의 위선적이며 요령주의적인 성격을 하나의 표현성이 강한 세부로 특징지어주고있다. 현장에 나온 림도식은 로동계급의 창발성에 찬물을 끼얹다가 주인공의 강력한 항변에 부닥치게 된다. 벽돌보다 더 단단한 교수머리청년의 주먹이 금시 자기의 면상으로 날아올것 같은 환각을 느낀 그는 뒤돌아서 충단쪽으로 걸어가면서 평소에는 한번도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는 용접봉꼬투리를 보고 쓸만한 아까운 자재를 망탕 버렸다고 나무람하듯이 집어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코 자기는 한쪽 눈섭에 허물이 있는 계대군인 조장의 눈길이나 주먹에 신경을 쓰고있지 않는다는것을 미약하게나마 시위하려 한다.

이 하나의 작은 세부로 독자들은 작가의 긴 설명과 그가 걸어가는 구체적인 생활을 여러모로 보여주지 않아도 가면과 위선으로 빚어진 림도식이란 인간을 완전히 리해할수 있게 된다.

표현성이 강한 세부는 구성의 간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으로도 된다.

작품에 심어진 종자를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형상의 모든 요소들과 함께 생활세부도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려내야 한다. 그러나 작품의 종자는 결코 형상요소들의 수자로서 해명되지 않는다. 비본질적이고 특징이 없으며 우연적이고 표현성이 약한 생활세부들은 아무리 많이 끌어들여도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심오하게 밝혀낼수 없으며 오히려 군더더기만 만들어 산유기체로서의 조화롭고 정연한 구성미를 파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작가에 의하여 엄격히 선택된 표현성이 강한 세부만이 구성의 조화미를 돈구어주며 그의 간결성과 립체성을 보장할수 있게 된다.

문예작품창작에서 표현성이 강한 세부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창작가들은 생활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 의의를 예민하게 포착하여야 하며 스쳐지나는 하나의 작은 세부에도 깊은 뜻을 부여해주어야 한다.

표면에 드러나는 현상은 언제나 평범하고 범상하지만 현미경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재일수 없는 생활의 크기와 깊은 뜻을 알고있는 그런 세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문예작품에서 선택되는 모든 생활세부들은 종자와 주체해명에 맞는 전형적인 세부여야 하며 성격적이고 심리정서적이며 표현성이 강한 세부여야 한다.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내어 인상깊게 묘사한데 대한 주체적창작리론은 문예작품창작에서 생활반영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확실히 보장할수 있는 과학적방도를 창작가들에게 명백히 제시하여줌으로써 예술적형상의 길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고있다.

따라서 작가, 예술인들은 높은 당적안목과 정치적식견을 가지고 세부의 련속과정을 이루고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속에서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예술적세부를 정확히 골라내고 창작적기량을 부단히 높여 그를 인상깊게 묘사함으로써 혁명적문학예술의 형상적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은혜로운 품이어

최진용

언제나 맑은 그대의 하늘에는
나를 안아키운 어머니의 다정한 눈빛이 어렸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또하나 생명의 탄생을 그렇듯 기뻐해준
이웃들의 상냥한 그 말소리
탁아소의 요람에 나를 눕히고
자장노래 불러준 부드러운 그 음성이
그대의 바람결에서도 들린다

그대는 내가 첫걸음을 옮긴 땅
해빛밝은 유치원뜨락우에서
동무들과 뛰놀던 그 발자취가
그대의 땅우에 찍혀져있다
이른봄의 그 시내물소리
푸른 나무가지우를 날아들던 새
울바자에 곱게 핀 그 나팔꽃 향기가
그대의 땅우에 언제나 떠돈다

그대는 나에게 배움의 문 열어주고
아름다운 말로 첫노래 배워준 땅
나의 손목을 책상앞에 이끌어주고
조국의 역사를 배워주던 선생님의 목소리
여름날의 야영지
바다가 숲속에 타오른 그 우등불
겨울날의 눈보라가
내 몸에는 배여있다

숨이 차게 오르고오른 그대의 산마루우에서
황홀하게 바라본 강산이어
즐거운 등산길에서
땀젖은 얼굴을 비치어보며
꿀같이 달게 마신 그대의 샘물이어
가파로운 벼랑을 씻어내리며
뛰놀며 감도는 그대의 맑은 강이어

조국이며, 그대는 나를
대학의 강의실에 앉히고
혁명의 진리를 배워주었다
어린시절 그때처럼

붓을 쥔 나의 손 부추겨추며
마디마디 소중한 말 새겨주었다
굳세고 슬기로운 마음 키워주었다

조국이며, 그대는 오늘도 나에게 준다
별마다 오곡 설레이는 가을의 그 기쁨과
철길이 휘도록
차판마다 가득 실려오는 재부의 무게를
그대 위해 바치는 나의 로력 너무도 적건만
그것을 그대는 대견해하며
이마의 더운 땀 바람결로 씻어준다
아침이 출근길도 함께 걷고
저녁의 퇴근길도 웃음으로 반겨준다

그대의 해빛밝은 창문, 록음에 우거진 거리
가도가도 즐거운 려행길 반겨주며
차창에 안겨오는 들끓는 공장파 전야
함께 가자 부르며 따라서며 설레는 바다
숲속을 거니는 휴양지의 한낮에도
유서깊은 전적지에 잠못드는 밤에도
언제나 다정히 속삭이며
그대가 가슴깊이 안겨주는 생각은 하나

아, 어버이수령님 이끄시는 내 나라
한없이 은혜로운 그대의 그 품
이 세상 그 어디에
그대처럼 따사롭고
그대처럼 고마운
살기 좋은 나라가 또 있으랴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을 지너
그대의 품은
나를 자래워준
어머니의 그 품처럼 다정하고
그대의 손길
언제나 생의 걸음걸음 보살펴준다
그대를 지켜 그대를 위해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 길이 꽃피워가리라!

불을 켜주오 외 1 편

강립석

저기 산기슭 나의 집 창문엔
어찌하여 벌써 불이 꺼졌는가
은하수 기울어 지붕우에 비졌다고
안해며 아이들 깊은 잠 들었는가

집으로 가는 길이 그 언제
이렇게 먼적 있었던가
여느때 고이 잠자기를 바랐건만
오늘은, 아 오늘은...

안해여 그대 만약 잠들었거든
일어나주오, 일어나 불을 켜주오
아버이수령님을
나는 만나뵈왔소!

밥을 가지고 찾아오던 당신이
자주 서군하던 바로 그 기대앞에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나의 기름물은 이 손을 잡아주셨소

글쎄, 기념사진 찍을 땐
선반공 그 동무 어디 있느냐
친히 나를 찾으시여
몸 가까이 세워주셨소

집은 멀지 않느냐 알아도 보시고
당신에 대해서도 물어주셨소

아이들에 대해서도 축복해주셨소
나이랑 취미랑 물으시면서...

아이들도 깨워주오
초저녁잠 많아서
곤하게 잔다 해도 일어나게 해주오
그 별같은 눈으로 함께 기다리게 해주오

그렇게도 간절하던 우리의 소원이
이 한몸에 꿈처럼 이룩된 밤
영원히 영원히 심장에 안고 살
가장 소중한것을 받아안은 이 밤

아직은 철이 없는 그 어린 가슴들에도
어른들처럼 해주고싶은 말이 있소!
당신과도 이제껏 나누어본적 없는
그러한 뜨거운것이 가슴에 넘쳐나오!

길가의 나무잎도 손잡아이크는듯
흐르는 시내물도 기쁨안고 따라시는듯
꿈속을 가듯 걸어가오
속삭이며 부르며 내가 돌아가오

오, 불을 켜고 기다려주오
이 가슴에 안고가는 그 귀중한것을!
영원한 마음의 등불을 켜고 맞아주오
아버이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행복한 도시

아니요, 밤은 깊었어도

그이는 주무시지 않으시오

그 어느 공장, 그 어느 농장들

아직도 보살피시고계시오

안해여 나에게는 들리는것 같소

구내길 찾으시는 그이의 차소리가

로동자합숙의 복도를 거니시는

그 정다운 발걸음소리가

나에게는 들리는것 같소

그 어느 단발머리 분조장과 나누시는 그 말쑤이

마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쑤처럼

그 어느 할머니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처럼...

밤은 깊었어도 그이는 주무시지 않으시오

멀어서 자주 오지도 못하는데

이 한밤을 백밤으로 여기자시며

저무는 언덕길을 넘으시던 수령님

돌아갈 땐 언제나 마음에 걸린다시며

우리 고장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나실듯

찾고 찾으시며 사랑을 주시는

우리의 수령님이시오

오. 창을 열고 저기를 내다보오

해쏜는 동녘처럼 환한 저 하늘

당신네 동생이 일하는 공장 그 하늘갈소

수령님 모시고 설레는것 같소

설레는 저 하늘이, 남산우의 저 별들이

왜 저렇게 정다웁소

날마다 거니는 독로강의 저 다리목이

왜 저렇게 아름답소

안해여, 이 땅우엔 아름다운 도시도 많고

행복한 밤도 많으리

허나

수령님을 모신 이 밤

우리엔 우리가 사는 북변의 이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갈구려!

대패질소리

김수범

여기에 오면 고요한 밤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늘그막에 조용한 시골에서 집집승이나 기르며 편안히 여생을 보낼것을 바랐던 사람들도 여기에 오면 스스로 자기가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게 된다. 현대적인 공업도시나 곡창을 자랑하는 농촌과 대수산기지들, 탄광과 광산지구만이 아닌 바로 이런 깊은 산골의 림산로동자구에서도 들끓는 도시들과 똑같이 수고로운 분초를 다투는것이어서 새삼스럽게나마 우리 조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림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앞뒤산면을 따라 빼곡이 들어앉은 다층문화주택은 불밝은 창문들로 불야성을 이루어 고층건물들이 늘어선 도시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출발을 알리는 전기기관차의 경적소리, 열차원의 호각소리, 와당탕하고 승강대의 덮개를 닫는 소리는 그대로 수도를 떠나던 급행열차를 연상시켰다.

어쩌면 이 《줄비한 도시》를 담아내고 흐르는 운촌강마저 대동강의 밤풍경으로만 느껴지는것일까. 가두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서정적인 녀성중음독창도 틀림없이 어느날의 퇴근길에서 들은것이었다.

별빛도 정다운 수도의 한밤, 만수대언덕우에 노을이 된다는 그 노래를 여기 조국땅의 북변에서 다시금 듣노라니 별로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전주와 첫절의 노래가 끝나고 간주에 반쳐진 녀성방창이 한창 고조될무렵 여기가 어대라는것을 일깨워주다싶이 사태 무너지듯 와그르 소리를 내며 통나무가 토장에 굴러내리고 널을 켜는 제재기소리가 요란히 들려왔다.

민성우는 한쪽손에 러행용가방을 들고 불이 밝은 영예게시판앞에서 떠날줄을 몰랐다. 전시된 수많은 혁신자들의 사진속에서 민성우자신이 것처럼 잘 아는 사람을 발견한것이다.

《이 령감을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민성우는 반가웠다. 오래간만에 그의 얼굴을 보는것도 기뻐지만 아직껏 이 영예게시판에서 자기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이 고마웠다.

민성우는 줄곧 웃으며 들여다보고있었으나 게시판의 머리하얀 령감만은 웃을줄을 몰랐다. 무엇이 불만한듯, 성이 난듯 이쪽을 뚫어지게 내다보는 령감의 사진밑에는 《목재일용품직장 목공양성을아바이, 3월 20일현재 년간계획완수!》라고

큼직이 써놓았다. 60이 넘는 령감이 석달동안에 열두달분의 계획을 해제했으면 실로 대단한것이다. 한달에 녀달분, 매일 나홀분의 계획을 한다는것이 말로써는 쉽지만 결코 간단한것이 아니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겨났을가. 이제는 기운도 쇠진할 때인데,

하지만 령감의 표정은 민성우의 생각과 전혀 다른것을 이야기하고있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일을 좀 했다고 대접을 하는거겠지...)

《인상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수다레... 영예를 지냈으면 옷을줄도 알아야지요.》

민성우는 세월이 흘렀다는것을 깨우쳐주는 양성울의 흰머리와 훌쩍한 두볼때문에 더 두드러져 보이는 광대뼈, 유독 살아서 날이 선 눈자위에 깊숙이 패인 주름살들을 유심히 살펴보노라니 표표한 그 얼굴에서 대패질소리가 막 들려오는것 같았다.

《저, 혹시 사업소에 지도내려오는...》

민성우는 분명 이런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었다. 그는 자기결으로 사람이 언제 다가왔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했던것이다. 그는 자기결으로 사람이 언제 다가왔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했던것이다.

《가만 누구신가요?》

민성우의 의아한 되물음에 상대방은 림산사업소의 경리과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아, 그렇습니까. 혁신자들의 사진을 좀 구경하됐습니다.》

《지배인동지랑 모두 얘기가 있어서 정거장으로 마중나갔더했는데 그만 길이 어긋났습니다. 사업소책임일군들은 모두 초급당확대집행위원회에 들어가서 만나기 어려울겁니다. 오늘은 러관에 가서 꼭 쉬시고 래일...》

경리과장이 한사코 빼앗는바람에 가방까지 맡겨버린 민성우는 별수 없이 러관으로 갔다.

경리과장이 러관책임자를 찾아 자물쇠를 잠가놓은 1호실문을 열고 온돌방을 짚어볼 때 민성우는 백포가 처진 침대며 꽃수를 놓은 원탁보, 인삼을 큼직이 그려놓은 보온병에 눈길을 던지였다.

《러관을 잘 꾸렸습니다.》

민성우는 웃웃을 벗어 걸었다.

《앉으시지요. 앉아서 얘거나 좀 하다가 가십시오.》

먼저 민성우가 안락의자에 잔등을 기대자 경리과장도 자리를 잡았다. 그러더니 사실은 아까부터 면목이 좀 있어서 민성우를 지꾸 쳐다본다고 했다.

《그래요?! 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사실이였다.

경리과장은 무슨 외람된 말이라도 입밖에 내는 것처럼 조심히 뒤를 다다.

《저, 목재일용품직장에서 양성을아바이의 견습공으로 일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민성우의 얼굴은 붉어졌다. 왜 붉어지는지는 그 자신도 알수 없었다.

《군대에서 제대되어 수습대패공으로 일한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쪽에서는 도에 소환되더군요.》 하고 경리과장이 덧붙였다.

《그랬던가요.》

《일하면서 대학통신헌부를 다닌 보람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경리과장은 민성우를 한결 무릅없이 대할수 있었다. 그만큼 민성우도 두사람사이에 존재하던 미묘한 감정을 헤치고 직급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십여년전의 그 시절처럼 마음을 가까이 할수 있었다. 도리어 그 편이 훨씬 좋았다.

《그러고보니 같은 목공으로 일했던 동창생이우다레...》

민성우는 경리과장에게 담배를 권하며 찢찢 웃었다. 그 웃음은 화끈 달아올랐던 민성우의 얼굴에서 붉은색을 지워버렸다.

《전 지금도 견습공들과 젊은 친구들이 달려들어 양성을아바이를 시험치우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때 과장동무도 있었던가요?》

《있었지요. 나는 남의 장단에 춤을 추는격으로 수습대패기옆에서 여러가지 나무의 각재들을 섬겼더랬습니다.》

즐거운 추억의 교차점에서 우연히 서로 만난 두사람은 유쾌하게 웃었다.

...열네살부터 40여년간이나 목수일을 해온 양성을아바이는 늘쌍 견습공들앞에서 목수가 되자면 나무를 잘 알아야 한다고 훈시를 했었다.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섬유발이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가를 알아야 일하기 쉽고 제품을 알뜰히 만들수 있다는것이다. 나무를 모르면 진짜 목수가 못되는것처럼 늘 다루는 나무도 모르면 자기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잘 모른다고 했다.

민성우에게는 양성을의 그 말이 지나친 자기파신으로 느껴졌다.

《아니, 눈을 뜨고도 무슨 나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등신이 세상천하에 있으리란말예요?》

나무의 섬유야 대패를 당겨보면 뻗한게고... 글썽 소경이라면 또 모르겠시다.》

양성을은 발을 구르며 주먹질을 했다.

《야, 이놈아! 목수라면 두눈을 잃은 소경이라도 무슨 나문지를 가려내야 해.》

《그래 아바인 가려내요?》

민성우는 양성을을 흘끔 쳐다보았다.

《아니, 이너석 보지, 그럼 내가 그래...》

양성을이 이렇게 나오자 민성우들은 환성을 올렸다.

《잘됐수다. 마침... 그렇다면야 속 시원히 시험을 치시다레.》

민성우와 견습공들은 응석삼아 양성을의 허리를 그러안고 돌아갔다.

《웁지, 웁지 이것들 좀 보지. 펄펄한 사람을 아주...》

일부러 두눈을 때꾼하게 뜬 양성을은 젊은것들이 떠미는대로 못본체하며 불이 한한 목공실에 뒤걸음질로 들어갔다.

《아바이, 불을 끄니다.》

달아버린 문밖에서 민성우가 한마디 했다.

《끄졌으면 끄구 말대로 할게지 무슨 말이 그리 많으나.》

양성을도 제법 기분을 맞춰주는셈이였다.

《그런데 정작 불을 끄자니까 좀 별나군요. 손이 막 떨리는데요.》

민성우가 스위치에 손을 가져가며 동무들을 향해 익살스러운 눈짓을 하자 안에서 다시 양성을의 《호령》소리가 들리였다.

《네 이놈, 수단이 좋은 민성우렸다. 잔말 말구 얼른 불을 끄지 못할가.》

엄할 때에는 엄하다가도 살뜰할 때에는 두던히도 살뜰하여 그 멧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로동자들의 결결한 성미가 양성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고있었다.

눈을 깜빡하면서 목을 움츠리던 민성우가 불을 껐다. 양성을은 으름장을 놓으며 어서 대패질할 나무를 들여보내라고 했다.

《나무는 얼마든지 있으니 락제를 하지 말구 시험이나 잘 치우다.》

민성우는 자신만만하게 두다리를 퍼더버리고 앉아 어디 이래두냐는 표정으로 넌지시 각재 한대를 들이밀었다.

귀맛종게 부드러운 대패질소리가 들리더니 각재는 인차 도로 튕겨져나왔다.

놀랍기도 하고 어리둥절해지기도 한 민성우는 튕겨져나온 각재와 동무들을 번갈아보는데 안에서 양성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붓나무라는것이 다.

《붓나무라구요?!...》

란성에 가까운 반문이다. 그러나 역시 《귀신》은 《귀신》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다음 각재를 들이밀었다.

《가문비다!》

《이건요?》

《쇠스레...》

민성우는 머리를 썩썩 긁었다.

《자, 또 들어가니 받으십시오.》

이번에는 황철나무를 슬며시 들이밀었다. 삼십초도 못되어 그것이 황철나무라는것이 드러났다.

《이건 어디서 이따위 황철이 들어왔느냐.》

《제길, 그럼 이건요?》

《피나무지...》

《피나무라고요. 생관 틀렸수다.》

《이놈아, 귀신은 속여두 나는 못속여.》

《히, 참 조환데... 그럼 이게 개박달나무가 올은지 좀 봐주우다.》

《이 엉큼한놈같으니라구. 네가 그러면 헛갈릴 줄 아느냐? ...가르쳐준대로 개박달나무가 분명하다.》

어느새 민성우의 얼굴은 시뻘개졌다.

말하자면 후끈 단셈이다. 장작처럼 쌓아놓은 각재더미에서 와락와락 무슨 나무인가를 한참 찾더니 이깔나무 한대와 또 다른 각재 하나 집어들었다. 곁에 섰던 젊은 친구들도 신통히 골랐다는 듯 말없이 민성우를 부추기였다. 수종은 분비라 하더라도 심중팔구는 이깔나무와 혼돈할수 있는 것이었다. 년륜이 붓나무나 쇠스레처럼 뻣뻣한데다가 잔뜩 송진에 절어서 색이 불그레하고 목직했다.

민성우는 그 각재를 손으로 무게를 가늠하듯 하더니 이번에는 하는식으로 두대의 각재를 동시에 들이밀었다.

《이제는 밑천이 다 떨어져가는 모양이로구나... 자, 이건 이깔이니 도루 받아라.》

여유있고 신심에 넘친 양성울의 목소리였다. 민성우도 그쯤 되리라고는 짐작했다.

주목되는것은 다음번이었다.

아니나다를가 다른 때 같으면 벌써 각재가 텅 겨나왔을 목공실에서 아직껏 대패질소리만 들려왔다.

민성우와 그 주위에 모여섰던 견습공들의 얼굴에는 소리없이도 아주 고약한 웃음이 어리었다. 터져나오는 큰웃음을 가까스로 참노라 어깨를 들썩들썩했다.

안에서는 그냥 대패질을 하고 밖에서는 모두 손으로 입을 막은채 아무 기척도 내지 않았다. 참을성이 적은 민성우가 먼저 시치미를 따며 헛기침을 했다.

《아바이, 왜 이렇게 소식이 없소다. 저녁식사후

의 작업시간도 거의 되는데...》

안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참씩 대패질을 하다가는 일손을 멈추고 멈췄다가는 다시 하곤했다. 무엇인가 유심히 가늠하는 모양이다.

《괜히 그러다간 소재로 재단한 각재를 다 깎겠수다. 모르겠으면 아예 불을 켜시다레.》

민성우는 필답답안을 채 쓰지 못한 학생앞에서 시간이 다 되었다고 재촉하는 시험관같았으나 목공실에서는 양성울이 혀를 끝끝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그 요지경같은 각재가 답안을 못 쓴 시험문제처럼 도로 밀려나온다.

마침내 민성우들은 승리의 쾌감을 못이겨 껄껄 웃었다. 서로 팔을 붙잡고 마주 쳐다보며 웃어대노라 안에서 불을 켜라는 양성울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불을 켜게, 불을 켜라구 엉?... 사람도 다 같이 앉으 것처럼 똑같은 분비나무라고 해도 저렇게 더러 말쑥 늬이 있지... 다른 나무들처럼 숲속에서 함께 그쁘히 자란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양지쪽의 바위벼랑에 혼자 서서 가는 바람, 오는 바람을 다 쏘이며 잔뜩 짜들어먹은데다가 별쪼임까지 기껏 했으니 말하게 없지... 그러기에 사람도 나무처럼 결만 봐서는 다 모르네. 어떤 생활환경에서 자랐는가를 아는것이 중요하거든...》

불이 켜진 목공실에서 양성울이 나올 때 껄껄 소리내며 웃던 젊은 친구들도 억이 막혀 말을 못하였다. 평범한 생활에서 준엄한 진실을 깨달은 때문일것이다...

생각하면 지금도 그 일이 어제같은데 세월은 화살처럼 십년을 누비었다. 추억에 잠겼던 두사람중에서 경리과장이 먼저 자리를 뜨자 러관접대원처녀가 들어와 저녁식사를 하라고 했다.

식사가 끝나자 민성우는 다시 벗었던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 오래간만에 림산로동자구의 밤풍경을 바라보며 소풍하고싶었다.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 이렇만한 한가로운 시간도 오늘밤뿐이었다. 래일부터는 상반년기간에 이 림산사업소의 연간계획을 끝내기 위한 긴장하고도 치열한 전투를 기술실무적으로 조직지도해야 하고 행정지도일군들은 있는 힘껏 도와야 했다. 한개 기업소의 연간계획을 이제 남은 석달동안에 지표별로 완수하도록 하자면 민성우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밤잠을 자지 말아야 할것이다.

민성우는 끊임없이 지나가고 지나오는 무한해도, 바퀴식 트랙트르들과 자동차들을 무심히 보지 않으면서 비교적 조용한 강변의 림철선로쪽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거기도 조용하지는 않았다. 술한 청장년들이 매달려서 왁작 떠들어대며 디젤기관차 한대를 인

입선으로 올리밀고있었다.

시운전을 하는것 같았다.

《자, 그만하고 내려가보세!》

저만큼 올라갔던 그들이 이번에는 도로 기관차를 밀고 내려왔다. 점점 빨리 돌아가는 기관차의 쟁소리, 다급해지는 차륜소리... 민성우앞으로 마주달려내려오던 그 거뭇거뭇한 동체가 몇번 흠칫흠칫하다니 마침내 배기관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먹었구나!》

《여, 미리 만세를 부르는게 안야? 괜히 지난번 17호처럼 시운전까지 해서 내어보낸 차가 십리도 못가고 발탈이 나도록 들어오면 야단이 아닌가.》

민성우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공무동력직장의 기관차수리공들이 일본새가 거칠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옛 고향집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목재일용품직장으로 발길을 옮기였다, 양성올아바이를 만나보고싶어 사였다.

캄캄한 어둠속으로 림철침목을 한참이나 밟았다.

목조건물이 아니었다. 세멘트블로크로 다시 지은 공장안에는 미세한 톱밥먼지가 무슨 정미소처럼 뽀얗게 시러있지 않았다.

사방에 배관들을 설치하여 계속 먼지를 빨아내고있다. 강산이 변했다. 여러가지 목선반들과 볼반들, 수압대패와 크랑크식대패, 자동대패며 크고 작은 등글톱... 민성우는 불현듯 서평양목재일용품공장에 갔던 생각이 났다.

(여기서 내가 로동을 시작했더랬는데.)

민성우는 너무도 감회가 새로와 양성올아바이를 시험치던 목공실을 찾았으나 간벽없이 탁 트인 직장안은 눈이 모자랐다.

《가만, 양성올아바이가 나왔소!》

민성우는 약간 비대한 몸을 구부리고 불반공처리에게 다정히 물었다. 처녀는 우에서 내려온 손님이라는것을 눈치채면서도 흐름식공정에 맞물려진 소재가공이 바쁘지 결눈을 팔지 못하며 짙막한 대답을 던지였다. 초급당회의에 갔다는것이다.

민성우는 그제서야 아차하는 생각을 했다. 령감이 아직까지도 초급당위원인 모양이 였다.

민성우는 귀에 익은 요란한 소음속에서 공상의 전공정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기대공들을 만나 실정을 대충 료해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초급당회의에 갔던 양성올이 몇분전에 돌아와 기술혁신조에서 지금 일하고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불이 환한 건조실옆간에서 허리가 구부정한 양성올은 두팔을 걷어붙이고 한참 푹푹거렸다. 오

래전부터 생각해오던 벨트식대패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방수조끼가 든든한 천에다 모래와 금강석가루를 붙인 다음 그것을 기계에 메워 피대 모양으로 뱀다돌리면서 그처럼 힘들던 손대패질 대신에 각재와 널의 완성연마를 해결하자는것이 였다. 그렇게 되면 손대패질놀음이 아주 없어지는셈이다.

그것을 알리 없는 민성우는 손목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수직으로 곧추선 다음에야 목재일용품직장을 나섰다.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온다. 방금 림철기관차에 실려온 통나무들과 톱밥에서 풍기는 송진냄새로 하여 공기까지 신선했다.

살뜰한 손길처럼 피부를 어루만져주는 그 바람결에 어떤 취기를 느낀 사람처럼 실눈을 지으며 발길을 옮길 때 벌이 빛나는 엄엄한 하늘과 거기에 조용히 입맞추듯 높이 솟은 산발들은 모처럼 찾아온 산관의 아들을 두고 소곤소곤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듯했다.

려관에서는 림산사업소 지배인과 기사장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들과 만나 이야기한것은 벌써 새날에 속하는것이여서 민성우가 도착한 이틀날사업은 새벽 1시경부터 시작된셈이였다. 저녁차에서 내린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몇시간사이에 민성우자신이 체험한 그 모든것은 여느때의 며칠맛잡이였다.

그리고보면 사람은 짧은 시간으로도 얼마든지 길게 살수 있었다.

무슨 명절과도 같이 두세시간 얼핏 지나마나하고 아침을 맞이한 민성우는 부석부석해진 얼굴로 림산사업소에 나가려고 했다.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구두를 넣은 신발장을 열려는 순간 길다란 복도의 널판장을 구르며 다가오던 발자국소리가 방문앞에 와서 멎는것을 의식했다.

손기척에 뒤이어 방문을 연 관리원이 누가 찾아왔다고 알리였다.

(허, 내가 늦었나보군...)

늦은것이 아니였다. 지배인이 아니면 기사장, 그렇지 않으면 경리과장이 찾아왔으리라고 생각한 민성우의 예측을 뒤집어엎으면서 문가에 나타난것은 천만뜻밖에도 한쪽 어깨에다 목수도구통을 멘 양성올아바이였다.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바이!》

무슨 꿈을 꾸는것 같아 어리둥절했던 민성우는 문가로 마주 달려 나가며 양성올의 두손을 잡았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냥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양성올은 끝내 목수도구통을 복도에다

놓고 들어왔다.

《그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양성울은 고개를 끄덕이는것으로 대답하였다.

《어서 앉으십시오.》

민성우는 양성울이 앉기도전에 담배곽부터 내놓고 재떨이를 끄당겨왔다.

양성울은 그동안에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어디 좀 보자는듯이 애정어린 축축한 눈으로 민성우의 얼굴을 훑어보거나 살피었다. 림름해진 그 모습을 자랑스레 생각하며 양성울은 또 머리를 끄덕였다.

민성우의 가슴은 자기도모르게 후터워졌다. 오래간만에 서로 만난 반가움으로부터 생긴 흥분일 것이다. 그는 이 순간 자기가 확실히 그리웠던 고장, 그리웠던 사람들결으로 가까이 왔음을 깨달을수 있었다.

《그래 가더니 왜 그렇게 소식을 없었나?》

양성울은 혀를 찼다. 단순한 노여움에서가 아니었다. 가슴속에 사무치는 애정에 겨워서였다. 바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성우이기때문에 그도 순진한 어린애같이 머리를 숙이였다. 혁명을 위해 별로 큰일도 못하면서 소식한번 전하지 못한 자기가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되었겠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내내 다른 도를 담당했다가 금년부터... 이제 는 자주 오게 될겁니다.》

민성우의 말에 양성울은 곧 고개를 끄덕여 긍정하며 자리에 앉았다. 아이들은 몇인가, 큰녀석은 몇살이고 처는 무슨 직장에 다니느냐고 물었다. 고마운 그 물음에 민성우는 일일이 대답을 했다.

더군다나 마음에 드는것은 이 상봉이 반가와도 입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반가와하며 얼핏 보기에는 어제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것처럼 대해주는 그것이었다.

《그래두 어떻게 알았습니까?》

민성우는 선망의 눈길로 양성울을 쳐다보았다.

《초급당회의에 갔다가 자네소리를 들었는데 직장에 나가니 또 찾아왔더라고 하더군.》

양성울은 구태여 고맙다는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다. 물론 현장에서 데리고 일하던 사람들중에는 사업소에까지 와서 며칠씩 묵으면서도 간부들이나 만나고 그냥 가버리는 레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천의 하나이고 또 마음이 나빠서 라기보다는 사업이 바쁜때문일것이라고 리해했다.

그것은 노여움이 많으면 빨리 늙기때문에 늙기가 싫어서도 양성울은 그렇게 생각해버릇하지 않았다.

《그럼 초급당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직장에 나가 일했만말입니까?》

양성울은 또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것은 마치 회의에다 등을 대고 교대에서 빠질수야 없지 하고 말하는것 같았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것 같은 그의 눈길을 피하며 민성우는 서둘러 화제를 바꾸었다.

《모든것이 몰라보게 달라졌더군요. 마을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러관도 판 러관이 되었습시다.》

민성우는 긍지를 가지고 감회깊이 말하였다. 그러고보면 누구나 자기 살던 고장에 오면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흥분에 겨워 자연히 가슴이 설레이고 자기 집의 온돌방에 앉은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것이 상례인것 같았다.

《그래?!... 하긴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 모두들 밤새워 일하는거니까... 그렇지만 아직 우리 로동자합숙은 이 수준이 못되네.》

양성울은 머리를 끄덕여 웃으며 뜻있게 민성우를 쳐다보았다.

《모두 이 수준이라면야 우에서 지도하러 내려올 필요가 없지. 내려와도 할일이 없겠으니까.》

이 고장에 오래 산 사람다운 일종의 자책과 부끄러움 비슷한 양성울의 그 말은 민성우에게 전혀 다른 충격을 야기시켰다.

민성우의 얼굴은 천천히 붉어졌다. 양성울의 마음이 지금도 때문지 않았다는것을 느낄수록 더 붉어졌다.

《그러고보니가 내가 좀 잘못된것 같구만요. 러관보다도 우리 로동자동무들이 있는 합숙에 들걸...》

그러자 양성울은 마음이 흠족했을 때처럼 한참이나 민성우를 쳐다보았다.

《그랬으면야 더 좋지...》

말하자면 자기를 잊지 않고 오자마자 공장에까지 찾아와준 민성우에 대한 양성울의 고마움은 바로 이렇게 표현되었다. 식사도 다른데서 하고 잠도 다른데서 자고 생산을 지도할 때만 로동자들을 찾아온다면 좀 우습다는것이다. 옳았다. 민성우는 어쩌면 양성울의 그말이 때문고 거칠은 각재의 결면을 와락와락 대패로 밀어내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 고개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조용조용한 그의 말에서는 분명 결패스러운 대패질 소리가 들리였다.

《요즘 와서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보네. 해야 할 일에 비해서 과연 내가 해놓은것이 뭔가. 그런데 나이는 잔뜩 먹었거던. 그래서 자리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담배질을 하고 그러다가는 아무 일감이나 잡군하네. 이제부터라도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에 내 힘을 더 부지런히 보태보자는게지.》

그 말을 듣는 민성우의 가슴속에서는 쇠덩어리

처럼 무거운것이 툭 떨어져내렸다. 생활의 가장 밑바닥에 앙금처럼 가라앉은 진실이랄까. 꾸밈도 가식도 없이 깨끗한 그 량심앞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비쳐보게 되었다. 확실히 공장에서 로동을 하던 그때처럼 일해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가슴을 쳤다. 이런 사람앞에서야 어찌 자기 마음을 속일수 있으랴싶었다. 잃었던 무엇인가를 다시 찾은것 같기도 하고 울창한 숲속에 들어선 때처럼 숨쉬기가 수월했다.

별로 하는 일 없이 물에 뜬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며 분주하던 자신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생활에 차분히 가라앉는것 같았다. 자기 살던 공장이란 이래서 좋은것일가. 그러고보면 어제밤 공장에 나갔다가 양성을아바이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들어온것 역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었다. 그 생활, 그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지 않았더라면 기어이 그 공장안에 있는 양성을을 찾아 만나 볼수 있었을것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가까운 생활속에서도 참된 혁신자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양성을과 민성우는 잠시 말이 없어졌다. 침묵이 무거우면 항용 그러하듯 두사람은 서로 담배를 피웠다.

푸릿한 담배연기만이 존경과 믿음에 찬 두사람의 마음처럼 천천히 떠돌며 한데 어울리고있었다.

《그런데 왜 무슨 얘기라도 좀 하지 않나. 평양 소식이라던가...》

《아바이두, 전 그전부터도 얘기를 하기보다 듣기를 더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민성우는 소리 없이 웃었다.

《정말 그랬었지.》

양성을은 민성우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었으나 대범하게 머리만을 끄덕여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도 양성을은 다 성장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같은 질문을 하곤했다.

《사회로동에랑 빠짐없이 참가하고 인민반생활에랑 성실하겠지?》

《그렇게 하느라고 하기는 합니단만...》

민성우는 약간 가슴이 섬찝해지는것을 느끼며 혼자 소리없이 웃고있었으나 양성을은 양성을대로 잠자코 앉아 민성우의 두손만 내려다보고있었다.

《한가지 물어봐두 일없겠나?》

《그렇게 하세요.》

《자네 사회로동이라랑 인민반생활이라랑 누구를 위해서 하는거라고 생각하나?》

《예?!...》

묻는 의도를 몰라서 민성우는 갑자기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망설이었다.

《왜 생각이 나지 않나?... 내 생각에는 자기가 나빠질가봐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것이 우리의 사회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걸 그렇게 생각할줄 모르면 암만 일을 한다 해두 절대 손에 못이 박히지 않네.》

양성을은 방금전 민성우의 손을 잡을 때 벌써 그것을 느꼈었다. 체취에서 송진냄새가 다 빠진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처녀의 손처럼 보들보들해진 그것으로 사나이가 무슨 일을 해낼텐가싶었다.

지금은 사무원으로 굴이나 쓴다 하더라도 조국이 부르면 달려나가 큰 일을 해제껴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양성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보온병의 물을 따라 마셨다.

《내기 공장에서 데리고 일하던 사람들중에 파오를 범한 사람이 한두명 있네.》

일을 잘해서 한창 발전할 때 채심하도록 일깨워주지 못한것이 지금에야 후회되지 않겠나.》

양성을은 가슴이 아픈듯 긴숨을 후-내쉬었다. 아니 자기를 돌이켜보며 자신의 량심에 아픈 마음을 내리는것 같았다.

민성우는 어쩐지 가슴이 몽클해져서 양성을의 얼굴을 쳐다볼수가 없었다. 땅속 깊은곳에서 울려나오는것 같은 그의 진정어린 목소리가 민성우의 가슴을 쳤던것이다.

《내 말을 옥해 듣지는 말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자네가 뭐 요즘 나오는 소설의 부정인물같아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런 부정인물이 되지 말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거네. 자네의 입당을 보증한 사람으로서 말이네.》

《아바이, 고맙습니다.》

민성우는 고개를 숙인채 입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하였다.

그러자 양성을은 보기에도 대견한 민성우의 무릎우에 40여년의 노동년한과 서른네해의 당생활년한만이 아니라 술한 사람들을 키워낸 큰 손을 올려놓았다. 아니 뜨겁게 짊어주었다.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의논을 하던 때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혹시 자기의 입당보증인에게 몇해가 지나도록 편지 한장 안한 당원이 있다면 아마 거짓말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네. 편지가 문제로 되는게 아니라 당원으로서 그가 우리 수령님과 당을 위해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하는것이 문제일세.》

《아바이!》

이렇게 불러놓고서도 민성우는 뒤말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 흥분이 경감한데도 옹아진듯 양성을은 짐시 침묵을 지키다가 또 물을 찾았다.

《무슨 물을 그렇게 마십니까?》

민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양성울이 켜 고뿌에다 물을 따랐다.

《하나만 더 붓게.》

《예?! 아니 정말 아직 식사전이 아닙니까? 여기서라로 식사부터 하셔야겠습니다.》

민성우는 여적 이야기바람에 양성울이 밤교대를 마치고 직장에서 그냥 들어오는길이었음을 까맣게 잊었었다.

《원, 별소리 다... 이제 가서 먹으면 될것 아닌가.》

양성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작업소들은 다 연간계획을 상반기기간에 끝낼수 있겠는데 두개 작업소가 힘들겠다고 하니 아예 그리로 내려가게.》

한쪽 어깨에 목수도구통을 멘 양성울과 민성우는 려관앞에서 헤어졌다. 그런데 저만큼 걸어가던 양성울이 다시금 민성우를 부르며 다가오더니

《지도사업이 끝나 올라갈 때에는 내 집에서 하루밤 묵어가게.》

하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민성우는 어쩐지 선뜻 발길을 돌릴수 없었다. 양성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져간다. 그 모습을 몇번 살펴보며 걸어가던 민성우는 자기도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어제저녁에 보던 바로 그 영예게시판앞이었다.

《양성울아바이의 사진을 보시지요?》

어쩌면 생활이 어제부터 다시 시작되게라도 하는것처럼 온 얼굴에 웃음을 가득 실은 경리과장이 걸으로 다가왔다.

려관으로 찾아나가던길이였다는것이다.

《그런데 사진이 왜 저렇게 희미합니까?》

민성우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래두 저렇게 붙어있는것이 다행입니다.》

경리과장은 며칠전, 양성울아바이가 사업소 직맹위원장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했다.

...양성울의 얼굴은 여간만 심각하지 않았다.

《직맹위원장동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소. 난 지금까지 내내 계획을 한줄만 알았는데 요즘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 글썽 한번도 계획을 못했더라말이요.》

양성울은 통사정을 하다싶이 직맹위원장의 두 손을 마주잡았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애깁니까?》

구레나루가 검스레한 직맹위원장도 깜짝 놀라 와했다.

그러나 양성울은 입술을 감쌀며

《글썽 온 작업반과 온 직장이 다 연간계획을 못하고 개인이 혼자 한건 사실상 자랑스럽지 못하단말이요. 그래도 그런줄은 모르고 여적 나는 사람들앞에 버젓이 나가서 꽃다발을 받거나 주석단에 올라왔단말이요. 가만 생각을 하면 얼굴이 뜨끈뜨끈한데 가는 사람, 오는 사람들이 다 보는 만장판에다 사진까지 내붙였으니... 제발 그 사진만은...》

양성울은 당신이야말로 나를 잘 알지 않소 하는 진지히고도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으나 직맹위원장은 도리어 껄껄 웃으며 한술 더 떴다.

《히, 이 령감이 이제는 직맹에서 하는 일을 시비하자고 들투다레.》

직맹위원장은 그날로 당장 영예게시판에다 자물쇠를 잠가놓았다.

민성우의 표정은 근엄해졌다. 무어라 입밖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먼저 생각이 깊어지는 이야기였다. 십년전 견습공들을 앞에 놓고 일장훈시를 하던 양성울의 목소리가 그 사진에서 다시 들리는것 같았다.

《목수가 되자면 나무를 잘 알아야 하네. 목수가 나무를 모르면 같이 일하는 자기 주위의 사람도 잘 모르네.》

그러나 오늘은 양성울이 거기에다 이런 말을 덧붙이는것 같았다.

《진짜배기목수가 되자면 다른 사람도 잘 알고 자기도 잘 알아야 하네. 자기를 모르고 늘 자기 만족에 빠져있으면 정신이 먼저 늙네.》

게시판앞을 떠나 사업소에 들어가 거기서 작전이 짜지자 생산이 제일 걸린 두개의 작업소를 찾아 달리는 림철기관차에 몸을 실을 때까지 민성우는 줄곧 이 생각만을 했다.

《지도사업이 끝나 올라갈 때에는 내 집에서 하루밤 묵어가게.》

양성울의 그 말도 생각하며 실눈을 지은 민성우의 앞으로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신선한 3월의 설경이 화면처럼 마주 흘러왔다.

별빛도 정다운 수도의 한밤
만수대언덕우엔 노을이 피네

차창밖에 머리를 내여민 림철기관차가 회파람을 불었다.

그러나 지금 민성우의귀에 들려오는것은 기관차의 원동기소리도 차륜소리도 회파람소리도 아닌 양성울의 숨씨있는 대패질소리뿐이었다.

피로써 지킨다

량호신

저녁어스름은 싸움이 멎기를 기다렸던듯싶게 밀려들어 고지우에 검회색연막을 펼쳤다. 그 어둠을 배경으로 전호가에는 두사람이 서로 다른 자세로 앉아있었다. 봉구는 담배를 피우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고 선영은 《조국보위의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며 모표를 열심스레 닦았다.

《선영이, 그만하지. 쇠가 닳겠네.》

봉구가 넉넉히 선영이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러지 말고 아바이도 닦으라요.》

《내건 안닦아도 늘 반짝여.》

《그래두 더 반짝거리게 닦으라오.》

선영이의 말투에는 어딘가 어리광기까지 스며있었다. 늘 이런것은 아니다. 비록 전사이지만 한 다 하는 싸움군으로 자신을 믿고있는 선영은 중대대렬에서는 제일 의젓하게 점잔을 빼는 팔팔한 젊은이다. 이 돌출부에 와서 봉구와 이말 저말 나누다가 봉구의 나이가 자기 아버지보다 한살 우이고 더구나 단둘이 남게 되자 그의 입에서는 《상등병동지!》보다 《아바이!》소리가 자주 나왔다.

봉구 역시 선영이를 대등한 전사라기보다 아들 또래로 넘겨볼때가 많다.

군관인 만이는 제껴놓고 죽은 둘째아들 석호만 해도 선영이보다 한살 아래였던것이다.

봉구는 시무룩이 웃으며 기특스럽게 선영이를 보았다.

(조금도 지치지 않았군. 누가 이 선영이를 보고 이틀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17차례의 힘겨운 전투를 치른 전사라 하겠는가.)

봉구는 한뼉 농사일로 뼈마디를 굳힌 자기로도 견뎌내긴 바쁜 환경에서 어린 전사인 선영이가 곳곳이 난관을 이겨내며 태평스레 모표까지 닦는 것이 볼수록 대견했다.

봉구가 속한 분대가 이 말안장 룡선을 차지한 것은 이틀전이었다. 련대가 새 공격을 준비하면서 력량을 축적하는 때라 돌출부인 이 《말안장》은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지만 많은 력량을 줄수는 없었다. 그런데다가 지형상 한개 분대면 충분한곳이었다.

그런데 적들로 놓고보면 이 돌출부를 차지하는

것이 아군의 공격을 미리 견제하는데 매우 유리하였다. 그리하여 놈들은 농장을 산더미같이 쌓으면서도 검질기게 달라붙었다.

봉구네도 손실이 적지 않았다.

담벽같은 분대장이 기여드는 적땅크를 석대나 까고 장렬하게 희생되었고 부분대장과 5명의 대원들은 중상을 입고 후송되었다. 그래서 남은 두명가운데 상등병인 봉구는 스스로 돌출부를 사수하는 지휘관이 되었고 선영이는 대원이었다. 그들 둘이서 적의 반돌격을 물리치는 과정에 얼마 남지 않았던 탄알마저 거의다 써버렸다.

남은것이란 몇개의 수류탄과 한정량도 채 못할 보충탄뿐이었다. 3일동안에 고지를 사수하게 된 그들이 아직 하루를 더 싸우자면 이 탄약으로는 어렵었다. 그렇다 해서 중대에 연락을 띄우자니 시간이 모자랐다. 이런 형편에서 래일 하루동안 더 견지한다는것은 단순히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런데다가 래일은 9월 9일 공화국창건 기념일이였다. 이로 하여 봉구의 마음은 무거웠으나 어린 전사인 선영이에게 이 불안감을 터놓을수는 없었다.

봉구는 담배를 홀 던져버리고 배낭을 뒤졌다. 암만 들춰야 수류탄이나 탄알은 더는 없다. 꺼내놓은것이 명주보자기였다.

《아바이, 래일은 명절이야요.》

선영이가 불쑥 입을 열었다.

《그래서-?》

봉구는 선영의 말뜻을 모르는바 아니였으나 우정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선영은 새무죽이 웃는다.

《그 보자기안에서 고기통줄임이래도 나왔으면 좋겠다는거예요.》

《목이 긴것까지 나오면 더 좋구-》

《여부 있나요. 나한테 필요없지만 아바이야 아무래도-》

《예끼, 그런 생각하는게 아니야. 래일 명절준비는-》

《싸움 준비라는거지요.》

선영은 모자를 쓰며 벌떡 일어섰다.

《왜 그러나.》

《명절준비를 해야지요. 모표는 닦았겠다... 이

제 이삭주이를 할테니 아바이가 엄호하랴요.》

선영은 보총을 추슬러메며 어두워오는 전장을 날카롭게 살피곤다.

(히, 눈치 빠르기론... 배낭을 뒤지는걸 보구 어느새 탄약생각을 했군.)

이제껏 회파람만 부는것으로 마음이 편한가부다했는데 속에 령감이 들었다고 봉구는 속으로는 선영을 칭찬하고싶었으나 말은 전혀 다르게 나왔다.

《았으라구. 누가 여기서 상급이야. 그건 내가 할테니 선영인 감시나 하라구.》

《차, 아바이... 한뼉 머슴을 사느라 이삭주이나 해봤어요. 그래두 지주집 밭에 동리에들과 함께 이삭주이 습격대장이 뻔던 내가 낫지요.》

어느새 선영은 전호터를 훌쩍 뛰어올랐다.

《선영이!》

《아바이, 막내가 생각을 해야지요.》

선영은 또 한번 히죽 웃고는 다람쥐처럼 재빨리 내려간다.

《주의하라구.》

《예.》

대답에 이어 죽어너부러진 미군놈의 바지를 벗겨친 선영은 고지밀으로 달려내려갔다.

정말 그는 금시 한 말대로 밭에서 이삭주이하듯 냉큼냉큼 뛰며 탄알과 수류탄주이에만 여념이 없다. 그러다 죽은척하고 너부러져서 날이 어둡기만 기다리는 적병놈과 맞다들면 어찌겠는가.

보다못해 경각성을 높이라고 한마디 했는데 선영의 대답은 더욱 한심하게 들려왔다.

《넌려 말아요. 이까짓놈들 도루 다 살아난대두 겁낼건 꼬물두 없어요.》

봉구쪽을 향해 손을 저어보인 선영은 칙줄로 가랭이를 질끈 동인 미군놈의 바지에다 탄알과 수류탄을 부지런히 집어넣었다.

《음, 그래두 경각성을 높여야 해!》

동구는 입담배를 부스러뜨려 보풀이 인 종이에 말아서 혀끝으로 침을 발라 입에 물었다.

담배쌈지에서 부시들을 꺼내어 부시를 치려던 그는 황급히 총을 잡았다. 넘려되던 일이 끝내들이닥쳤던것이다.

선영이앞에서 죽은듯 자빠져있던놈이 벌떡 일어나며 달려들었다. 그 순간 선영의 뒤에서도 한놈이 일어섰다.

땅! 아무진 총성이 울리고 선영의 뒤에 섰던놈이 쑈대 부러지듯했다.

그새 앞의 놈을 처리한 선영은 반넛이 나간듯

멍청히 섰다.

(적이 쏜 총알에 부상당했나 해서 그러는군. 내가 쏘어. 뒤의놈을! 그것두 모르지!)

봉구는 두눈을 뻥 문땀다. 하두 내려다 봐서 조준렌습할 때처럼 눈이 사물거렸다. 더 구물거릴수가 없었다. 지휘관다운 용단이 필요했다.

《당장 올라오라구!》

그제야 제정신이 든듯 선영은 손을 흔들며 활기있게 대답했다.

《예, 올라가요.》

싱긋 웃어보이는것이 어둠속에서도 알린다.

《딱 석호갈다니...》

봉구는 얼없이 중얼거리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선영이를 볼 때마다 둘째아들 석호가 눈에 선히 밟혀온다. 래년이면 석호나이도 지금의 선영이와 같아지련만...

《아바이, 안됐어요. 고마와요.》

선영이가 구울듯이 전호로 뛰어들어왔다. 봉구는 거뒀은 《이삭집》을 보고 기뻐했으나 선영이가 너무 조심없이 내려간데 대해 삭여넘길수 없었다.

《선영이, 이젠 개별행동은 다시 못할줄 알아.》

《왜요?》

《왜요라니, 정신 있어. 그래 그 탄약은 뿔때문에 필요한거야. 응?》

《싸우기 위해서지요.》

《그래 우리가 무엇때문에 싸우나.》

《차, 아바이한테 징치상학을 하랴요. 조국을 위해서지요.》

《말은 잘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해야지요.》

《알긴 아는군. 응, 그러자면 목숨을 아껴야 돼.》

소리를 치느라니 가슴이 찌르르해진다.

봉구는 부시를 쳐서 담배에 물을 붙여물었다. 자기의 속심을 보일가봐서였다.

《이거면 한차례 싸울수 있을가요?》

선영은 바지가랭이를 거꾸로 쥐고 탄약과 수류탄을 와그르르 쏟아놓았다.

《글쎄, 죽을놈들이 몇놈이나 기여들는지!》

갑자기 머리우에게 산소빠지는 소리가 울렸다.

《포사격!》

선영이가 소리쳤다.

《엎드렷!》

봉구는 벽력같이 소리지르며 엎드렸다가 필쩍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명주보자기를 찾아 가슴

에 품고서야 다시 었드렸다. 었드려서도 보자기를 가슴에 쓸어넣느라고 끙끙 잡잘랐다.

《아바이!》

선영의 근심어린 웨침소리가 끝나기전에 귀청을 쩡는듯한 양칼진 소리가 일고 흙더미를 잔등에 덮치운다.

금시 저녁노을이 비긴 하늘을 본것 같은데 캄캄했다.

(제길할, 이것들은 저녁밥두 안쳐먹고 이 지랄이야!)

봉구가 흙더미를 털며 일어서는데 또 한무지 안겨준다.

매캐한 화약내와 시크무레한 흙내가 겹쳐드는가 싶는데 숨이 답답해왔다. 우물거리단 아예 묻히고말것 같았다. 안간힘을 내어 흙속에서 빠져나온 봉구는 옆에서 꿈지럭거리는 선영의 헛띠를 잡아끌었다. 헛띠가 끊어졌는지 봉구의 손에 끌리워 쑥 올라오더니 바위에 걸린듯 꼬떡 없다. 선영이가 일어났다. 알고보니 선영이가 메고있는 물통끈이었다.

《푸-개새끼들, 지랄을 쓰네.》

선영은 투덜거리며 흙먼지를 털었다.

《그건 뭇하러 메고있나?》

이삭주이할 때 로획한 물통이었다.

《아바이두, 이게 수류탄 몇개에 갓다대겠습니까. 갈증이 나다 못해 입술이 터갈리는판에...》

선영은 물통을 벗겨서 봉구앞에 쑥 내밀었다.

《먼저 드십시오.》

《싫네. 그놈들건 노린내가 나.》

《아바인 별난 말을 다하네. 자요-》

봉구의 미간이 쪼프러졌다.

《그게 뭇줄 알고 그러나. 못먹는거네.》

(체, 물이라는데두.)

선영은 물통마개를 쑥 뽑았다.

갑자기 역한 내가 코를 콧 찌른다.

눈물이 찔끔 솟았다.

《이게 뭐야?》

《핫하하, 그것 보라구. 그걸 먹겠다구. 겁쟁이 미군놈들이 처먹는 랄콜이란거야!》

《랄콜요? 아바이두, 알콜이지 랄콜은 뭐예요. 그런걸 난 또 물인가 하구. 상등병아바인 보지않구두 어떻게 잘 알아요?》

《달래 상등병일가!》

(체, 상등병이 뭐 박사인가?)

선영은 물통을 고지밀으로 내던졌다.

출력출력 알콜을 쏟으며 날아가는 물통을 보던

봉구는 자기의 물통을 집어들었다.

《전방을 잘 살펴보게. 어두워도 기여들지 모르니-》

《어데 가려구요.》

《샘터자리에 가보겠네.》

《산산이 하늘로 날아올랐는데두요.》

고지 뒤편에 있던 삼치샘이 오늘아침 포사격에 흔적도 없이 부서져버렸던것이다.

하지만 봉구는 물통을 들고 그쪽으로 갔다. 여하튼 물은 우로 솟구쳐오를것이니까.

봉구는 발목까지 폭폭 빠져드는 흙밭에서 오락가락하다가 한군데 흙이 축축히 젖어있는것을 발견하였다. 허리를 구부정하고 그 주변을 찾던 그는 끝내 소발자국자리만한데 물이 고인것을 찾았다. 봉구는 사방을 더듬다가 뿌리채 넘어진 신갈나무에 다가가 큼직한 잎사귀를 따서 바가지처럼 오그렸다. 그것으로 조심조심 물을 댔다. 서너번 푸고나니 물은 말짱 없어진다.

《허참.》

봉구는 마른 입술을 짹짹 다시다가 나무잎사귀를 입술에 척 붙였다. 한결 시원한것이 한고뿌한듯한 기분이다.

봉구는 찰라닥거리는 물통의 물소리를 선영의 웃음어린 얼굴과 바꾸며 부리나케 걸음을 옮겼다.

선영은 봉구가 오는것도 모르고 퍼더버리고 앉아있었다.

《선영이. 자 물일세.》

《아바이!》

선영은 미안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일어서다가 아바이의 가슴팍이 별나게 두드려져나온것을 보고 웃었다.

《아바이. 가슴이 왜 쌍둥엄마 가슴처럼 똤어요?》

《쌍둥이 엄마 가슴이라니?》

봉구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쌍둥이 엄마들의 가슴은 별로 크대요...》

《오, 이거.》

봉구는 부풀어난 가슴팍을 쓸며 싱그레 웃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공화국기발일세.》

《기발이예요? 중대에서 준거예요?...》

선영은 환성을 울리며 봉구에게 다가들어 물통이 아니라 가슴에 손을 댔었다. 봉구가 어쩔새없이 보자기를 꺼낸 선영은 어린에처럼 기뻐하며 《봐도 일없지요...》 하고는 재빨리 보자기를 풀었

다.

봉구는 아무 말도 않고 추연한 눈길로 선영이를 보기만 했다.

《공단으로 집에서 만든거군요.》

《그건 어떻게 알아.》

《우리 집에서 만든 기발두 공단이에요.》

《허허.》

《야, 이거 낮에 보면 멋지겠는데... 우리 공화국기발은 곱거든요.》

봉구는 선영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훑어지게 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조심조심 기발을 쓰다듬었다. 악매디진 거칠거칠한 손에 천쪽은 부드럽건만 마음은 몹시 아프다.

(석호도 저런 말을 한적이 있었지.)

1948년 9월 9일 공화국창건선포의 날에 소비조합상점에 가서 물색 좋은 비단을 사다가 정성담아 만든 기발을 지붕에 띄웠을 때 15살짜리 석호는 기쁨에 넘쳐 깨꿈질을 하고 손벽까지 쳤다.

《아이, 기발이 곱기도 하네. 알록달록-》

석호가 흥에 떠 종알거릴 때 봉구는 엄한 표정으로 말을 막았다.

《이녀석아, 기발에 대해선 그렇게 말해선 안된다.

저건 아버지 김일성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우리나라구...

그리구... 우리 집에서 분여받은 3,200평도 저기에 있단다.》

그때 봉구의 눈썹엔 뜨거운 눈물이 맺혀 번쩍였다.

석호는 우는 아버지를 이상스럽게 보았었지.

봉구는 그때처럼 눈썹에 뜨거운것이 피어오르는것을 느꼈다. 그것을 참으려 입술을 강물었으나 쓸데 없었다.

(그 녀석의 그때 눈빛이 별로 빛났었지.

아, 그 원썬놈들을-)

1년전.

그날도 예나 다름없이 마누라는 기발을 정성스레 다리미질했고 아들 석호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봉구가 올려보내는 기발을 받아 룡설미에 매달았다.

아침해발을 받으며 기발은 아름답게 나뭇기였다.

여느때면 환희에 찬 노래도 있을것이고 하다못해 봉구의 눈물 많은 머슴살이에 대한 회고담이 펼쳐졌겠으나 이날 아침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락동강전투가 긴장하다는 새벽보도를 들은 뒤 끝이어서인지...

아침식사를 끝내고 봉구는 발으로, 석호는 학교로 가려고 서두르는데 불시에 적의 비행기들이 하늘을 까맣게 덮으며 날아들었다.

고요하던 농촌마을은 삽시에 수라장이 되었다. 봉구네는 귀중품들을 지고 안고 방공호로 뛰어 들었다. 벽시계를 안고 마지막으로 뛰어들었던 석호가 지붕우에서 필력이는 기발을 보고 소스라치듯 놀라며 도로 뛰어나갔다. 바로 이때 방공호 앞 멀지 않은데서 줄폭탄이 터졌다.

《석호야!》

봉구는 냇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질렀다. 그런데 폭연속으로 날새마냥 내달리는 그림자가 있었다. 석호였다. 그는 쩍짜게 지붕에 올라가 공화국기를 풀었다. 바로 그 순간, 따르륵- 하는 기총탄의 아츠러운 발사음이 울리고 석호는 잠에 취한 것처럼 기발을 품에 안으며 지붕우에 쓰러졌다.

《석호야!-》

이날 군사동원부에는 42살의 입대탄원자가 나타났다. 봉구였다. 군사동원부장은 토지개혁시 농촌핵심이었던 봉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있었다. 특별한 관례로 입대가 승낙되었다.

봉구는 후렁후렁한 군복을 입고 가슴에는 석호가 죽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기발을 소중히 품고 마을과 집과 작별하고 전선으로 떠나왔었다.

(그래 그 녀석이 기발이 무언지 알고 그랬을가.)

봉구는 떨리는 손길로 기발천을 짹 움켜잡았다.

《아바이, 이자 뭐라고 그랬어요.》

선영이가 놀라서 묻는다.

《무슨 말을?-》

봉구는 자기가 무의식중에 뭐라 증얼거렸음을 알고 강인히 웃어보이며 되물었다. 선영이는 의아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듯 포랑포랑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바이, 래일아침 이 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싸워보자요.》

(휘날린다?!)

봉구는 선영의 말에 흥심이 돌았다.

《명절날이 안예요. 한번 휘날리며 멋지게 싸워보자요.》

《웁지. 그래, 멋진 생각이다.》

《체, 내가 궁리한것처럼 그러네. 아바이가 이결

꺼낸건 래일 휘날려보자는거였지요.》 선영은 기쁨에 젖어 기발을 퍼 흔들어보았다.

《이제 목달개만 갈아달면 완전히 <명절준비끝!>인데...》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던 선영은 기발이 주글주글한것이 흠족치 않아 이마살을 찡그렸다.

《아바이, 물이 있다고 했지요?》

《그래, 어서 마시라구.》

봉구는 물통을 선영이 코앞에 내밀며 입가에 빙그레 미소를 띠었다. 선영이가 마시면 그것이 곧 자기가 마시는것과 같을것이다.

(내가 이렇게 갈증이 심한데 젊은것이야 오죽할가.)

봉구가 내민 물통을 선뜻 받아든 선영은 마개를 열더니 기발에 대고 뿌리기 시작했다.

《아니, 선영이 정신있나.》

《왜요, 근데 도제 물이 요만큼밖에 안돼요.》

《요만큼이 뭐야. 그게 다야.》

봉구는 소리를 높여 힐책하듯 말했다.

《그래요?》

선영은 맥없이 대답하고는 봉구를 찬찬히 살핀다. 그러다가 놀란 소리를 쳤다.

《아바이, 물을 마시지 못했군요.》

《내사 뤼라니.》

선영은 미안스런 기색으로 주물거리다가 간절한 어조로 속삭였다.

《기발의 주름을 퍼자구 그랬어요.》

봉구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선영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마주보다가 으흠으흠헛기침을 했다.

9월의 훈훈한 바람이 소리없이 불어와 그의 볼을 다정히 어루만져준다.

(허. 목이 타는 판에. 그것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판에서)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감격이 가슴속에 차분히 안겨든다.

(석호도 이랬겠다.)

명절날이면 새벽닭이 울기도전에 온 집안이 깨어난다. 마누라는 부엌에서 어느때보다 몇갑절 많은 음식을 마련하느라 분주를 피우고 석호는 기발을 꺼낸다. 그리고는 인두를 찾아들고 부엌으로 내달린다.

제 옷은 언제 한번 다릴줄을 모르던 녀석이 기발만은 숨씨있게 다린다...

(그래 석호나 이 선영이가 기발이 뭔지를 글에서 배운 그런 말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분명 알고 있단말인가.)

봉구는 깊은 감동속에 잠겨있었다.

선영은 봉구의 마음속은 어찌하였던 장한 기분으로 기발을 팽팽히 퍼당기고는 수류탄 상자우에 탄약종이를 퍼놓고 기발을 펼친 다음 그우에 명주천을 덮고는 공명삽자루로 다듬이질을 시작했다.

다드락거리는 그 소리는 봉구에게 평화시기 명절전날의 그 흥성이는 마을의 풍경을 눈앞에 펼친다.

《아바이, 래일아침 해뜨기전에 이 기발을 고지우에 높이 띄우자요.》

《암, 그렇지. 그러구... 우리말이야.》

봉구는 가슴이 후터워오르는 세찬 충격을 느끼며 계속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 충성의 맹세를 올리자구.》

《아바이, 훌륭한 생각이예요. 그러구 우리의 기발은 그 맹세를 알리는 표기로도 될거예요.》

선영은 봉구의 손을 잡고 열정적으로 흔들었다.

그들은 뜬눈으로 밤을 밝혔다. 오고간 이야기는 그지없이 많았다. 명절날들에 대한 아릿다운 회상들이었다.

새날의 아침은 신비스러울 정도로 맑고 찬란하였다. 동녘하늘에서 퍼져흐르는 진분홍빛이 온 산을 휘황하게 불태웠다.

봉구와 선영은 중등이 부러져나간 떡갈나무(이 돌출부릉선의 유일한 큰 나무였다.)에 기발을 정성스레 매달았다.

그리고는 기발앞에 엄숙한 자세로 섰다.

봉구가 몇번 헛기침을 했다. 금방 단 목달개가 부자연스러운지 자꾸 목을 움죽거렸다. 선영이가그의 옆구리를 툭 다쳤다. 이 무슨 신호나 된듯 봉구가 입을 열었다.

《어제날 머슴군인 김봉구는...》

목구멍에 무엇이 걸린듯 말이 콕 막혀버렸다.

봉구의 얼굴엔 두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바이!》

선영이가 놀란 음성으로 속삭였다.

봉구는 어깨를 우르르 떨고는 팍지같은 손으로 선영이의 손을 억세게 잡았다.

《선영이, 우리 죽어두... 응... 죽어두 여길 지켜야 되네.》

여길 뻗히면 조국을 다 뻗히네. 어떤 조국인가.》

《아바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행복을 지켜 주는 모든것을 다 바치겠어요.》

선영이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는 눈물어린 봉구의 얼굴을 보는것이 힘겨운듯 고개를 돌리다가 환성을 올렸다.

《아바이, 저기를 보라요. 공화국기발이에요. 아 니 저쪽 쌍두봉에도-》

그러고보니 린접 고지의 봉우리들마다 공화국 기발이 나뭇졌다.

《어데나 우리 땅이니까.》

봉구는 큰 발견이나 한것 같았다.

《정말 명절이군요.》

선영은 어린애처럼 기뻐 어쩔줄을 모른다. 봉구도 기쁨을 못이겨 빙글빙글 웃으며 기발들이 날리는 고지들을 경탄하듯 보았다.

봉구는 가슴속에 환희의 선풍이 터져나는 격동을 이기지 못하며 선영이를 돌아보았다.

《선영이, 저 기발이 뭔지 아나?》

선영은 다감한 정서와 환희 속에 빙글거리는 봉구의 얼굴을 취한듯 보다가 대답했다.

《기발은 조국의 상징입니다. 우리 조국의 자유이며 행복이며 광명한 미래이지요.》

《그래, 훌륭한 대답이야. 행복이지, 더 좋은 래일이구. 그러나 그뿐만 아닐세.

저기엔 나라없던 때 우리의 눈물이 스며있구 또 이 나라를 찾아주기 위해 피 흘린 선렬들의 피가 스며있네.

아, 그뿐인가. 저기엔 분대장이 그리고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바친 피가 스며있지. 난 저 붉은 색바탕을 그저 보게 되지 않네.》

봉구는 이렇게 말하며 입술을 떨었다.

이때 금속성의 앙칼진 소음과 함께 썩썩기 편대가 고지를 활듯이 날아들었다.

놈들은 기관총사격을 미칠듯 해대고 눈먼 폭탄을 마구 떨구고 달아났다.

봉구는 몸을 털고 일어나며 아까와는 달리 우선우선한 태도로 우스개소리를 했다.

《자, 이젠 <공급부대>를 대기하세.》

《공급부대》란 미군놈들을 두고 하는 소리였다.

봉구는 점호마다 수류탄을 두개씩 놓았다.

《왜 될가요?》

선영은 수류탄과 탄알이 모자랄가봐 머리를 기웃거렸다.

봉구는 웃으며 통담으로 받았다.

《걱정할게 있나, 선영이가 있는데-》

《어떤 땐 막내가 막내가하더니-요.》

선영은 생긋 웃으며 빈정거렸다. 하지만 봉구는 이 말에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고지아래에 꺼먼것들이 쭉 깔렸다. 해빛에 철갑모가 번쩍거렸다.

《전투준비!》

《혈잡아 백놈은 잘되겠습니다.》

《그만하면 푼푼한 사냥감이지.》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아야지요.》

봉구는 대답을 않고 두눈을 부릅뜨고 놈들만 쏘 본다. 어떤놈들은 물통을 입에 가져갔다.

《아바이, 저것 보십시오. 알콜을 처먹어요.》

《죽기전에 제술을 다 먹고 죽자는게지. 죽자바람에 까마귀가 눈깔을 파먹는데... 이젠 한바탕 해볼가! 자넨 저 알콜 처먹는놈부터 쏘게. 난 이 앞에 장교놈을 쏘갈길테니.》

이어 봉구의 헛! 소리가 나자바람에 지적한 목표물이 나뒹굴었다.

급기야 요란한 총성이 하늘을 메울듯 울려 퍼졌다. 봉구는 전호에서 전호로 왔다갔다 하며 수류탄을 연거퍼 던졌다.

《잘두 돼진다. 거름은 잘되겠는걸!》

수류탄벼락에 혼비백산한 적들은 울썩이때처럼 뚫으며 수류탄던짐거리에서 물러났다. 이때를 기다렸던듯 선영의 경기가 불을 뿜었다. 봉구도 로획한 경기를 가지고 적의 무리에 대고 한바탕 죽음을 날려보냈다. 물문은 바지자락 깨알볼듯 자그마한 돌출부에 올려붙었던 놈들은 술한 시체를 남기고 그 계선에 엎드리고말았다.

바로 이때 이제껏 봉구가 불안스런게 우려하고 있던, 그러면서도 자기로써 잊으려 하던 위험이 닥쳐왔다.

쌍두봉과 경계를 이루는 왼쪽 흠타기로 적들이 기여들었다. 한개 중대가량의 적들은 그 흠타기로 기여들어서 이 《말안장》을 측면으로 우회돌파하려는것이였다.

어저께도 적들이 불의에 그쪽으로 달려드는바람에 곤경을 겪었다. 그런데 저 우회공격을 막자면 맞받아나가야 하는데 이 자리를 뜰수 없잖은가. 선영이 하나를 뒤두고 떠난다는것은 미타한 일이다. 그를 못미더워서가 아니다. 총포탄이 광란하는 이 가렬처절한 속에서 믿음직스럽게 담보할수 있는것이 무엇이라. 하지만 저 아래 흠타기로 기여드는 적을 그대로 둔다면 쌍두봉도 위험할뿐만아니라 이 《말안장》이 포위속에 들어 결국 먹히우고마는것이다.

봉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숨만 가빠

몰아쉬었다.

홉타기로 기어드는 적들은 거칠것 없는 별판으로 달리듯 빠른 속도로 몰려왔다. 조금만 있으면 고지측면에 붙을것이다. 그때면 막아낼 길이 없다. 봉구는 결심했다. 선영이들 믿자. 그리고 저 위험을 내가 막아야 한다. 의지할만한 지형지물이 없는 저기엔 내가 가야 한다.

《선영이.》

《결심채택을 했지요? 제가 갑니다.》 이제껏 봉구를 쳐다보고있던 선영은 바지주머니에 수류탄들을 집어넣고 총을 든채로 자기가 홉타기로 내려가려는것이였다.

그를 쳐다보는 봉구의 눈엔 물기가 어렸다. 기특하다. 18살! 많지 않다.

그 나이에 자긴 머슴을 살았지만 선영이는 조국을 지켜 서있다. 50고개를 넘겨다보는 자기와 같은 걸음을 걷고있다. 아껴야 했다. 창창한 희망과 포부가 큰 그다. 승리한 조국땅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조국을 떠메고 미래으로 달려갈 꽃피는 시절이다.

봉구는 짐짓 엄하게 말했다.

《안돼. 이걸 <이삭주이>하고는 달라.》

《한다니까요...》

어느새 선영의 한다리는 전호턱에 올라섰다.

《당장 내려와!》

봉구는 그를 와락 그러당겼다. 선영은 전호에 수박굴러들듯 떨어졌다.

선영은 억이 막혀 봉구를 본다. 봉구는 성난듯한 눈매로 선영이를 보다가 문득 같았은 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부락하네.》

...홉타기로 내려온 봉구는 바위들에 의지하여 적들에게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따금 고지우를 쳐다보았다. 전호 어디에 선영이가 었는지 보이지 않았으나 떡갈나무에 매여만 기발만은 찬연히 빛나 나뭇기고있었다.

기발을 보며 봉구는 마음 든든한감을 느꼈다.

선영의 자동총소리를 들을 때면 입가에 병긋 미소까지 띠었다.

기발은 고지가 무사함을, 선영의 총소리는 기발의 안녕을 담보하는 신호런듯 가슴에 안겨들었다. 그럴 때마다 봉구는 갑절이나 기운이 넘쳐 수류탄을 던지고

《이놈들! 똥쳐라.》고 호통도 뽑았다.

적들은 봉구의 맹렬한 경기사격에 전열이 무너지자 까투리 숨듯 웅덩이들에 틀어박히고 어떤 놈

들은 독전대의 총구도 아랑곳 않고 들고뛰었다.

(그럼 그렇겠지. 내 이제 네놈들을 여기다 고스란히 물어줄테다.)

봉구는 철갑모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며 짧은 점말로 썩눅했다. 적당한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면 그의 눈길은 고지우로 달렸다. 그쪽에서 총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봉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문다.

(선영이, 조금만 더 견지하라구. 내 제격 이놈들을 청술하구 갈터이니.)

바로 이때 캉! 하는 아츠러운 폭발음과 함께 허리가 섰었다. 뒤미처 땅이 들들 떨리며 무한케도소리가 울렸다.

봉구는 인차 홉타기비탈로 기어오는 소형땅크를 발견하였다. 그놈을 노려보던 봉구는 갑자기 몸을 떨었다. 고지우쪽에서도 땅크발동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돌린 봉구는 선영이가 있는곳으로 딱정벌레가 기여가듯하는 땅크를 발견하였다.

《에익! 빌어먹을!》

얼굴이 거렇게 질려 부르짖는 봉구의 온몸에는 순간에 식은땀이 돋았다. 자기앞의 땅크도 땅크러니와 선영이 쪽이 불안스러웠다.

그는 땅크가 더 오기전에 마주나가 까부시고 선영이쪽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아래도리가 나무토막같이 뻗뻗한것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허리를 만져보니 끈적끈적한것이 알렸다.

(제길, 요런 대목에 다칠건 뉘람.)

봉구는 이마살을 잔뜩 찡그리고 《응》소리까지 내며 몸을 일으켜 땅크쪽으로 기여갔다.

그는 땅크의 무한케도밀에 어떻게 수류탄을 던지고 텅굴었든지, 땅크의 뒤를 따르는 놈들을 어떻게 련발사격으로 쓸어눅혔는지 자기로서도 알 수 없었다.

눈앞에 더는 움직저리는것이 없음을 알고 고지우를 돌아보던 그는 《앗!》하고 비명을 쳤다.

고지정점아래 40미터지점에는 땅크가 불길에 휩싸여있는데 고지정점에 반드시 있어야 할 기발이 보이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가?)

봉구는 심장이 싸늘히 식어드는것 같았다. 최악의 불행이 닥쳐든것 같았다.

(아니다. 고지를 빼앗길수 없다.)

봉구는 허리를 다친적이 언제 있었느냐싶게 고지로 올려달리기 시작했다. 하나 세걸음도 못가서 걸음을 멈추었다.

봉구한테 저지당했던 놈들이 마구 총질을 하며

덤벼들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놈들을 두고 고지꼭대기로 올라갈 것인가.)

어쩔바를 모르는중에도 손은 자연히 움직였다. 덤벼드는 놈들을 쓸어놓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적들은 고지꼭대기에 기발이 보이지 않는것을 저희패들이 고지를 타고왔은것으로 알고 기를 쓰며 달려들었다.

봉구는 너무나 안타깝고 분하여 피눈물이 쏟아지는것만 같았다. 이를 악물고 쏘고 또 쏘았다.

적들이 주춤거리다가 되돌아서 쫓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그 틈에 고개를 돌린 봉구는 처음엔 자기 눈을 의심했다.

푸른 연기가 그물그물 피어오르는 고지꼭대기에서는 공화국기발이 날리고있었다.

《기발!》

감격에 찬 웨침이 아픔에 짓눌린 가슴을 탁 터치며 뛰어나왔다.

봉구는 흠타기에 더는 놈들이 덤벼들지 않는것을 확인하고 고지를 향해 눈물에 목메여 소리쳤다.

《선영이! 장하다.》

그리고 재빨리 고지로 달려올라갔다. 이따금 허리의 상처가 발끝까지 저리게 아파들었으나 기발을 지켜보며 환희에 넘쳐 내닫는 그의 걸음을 멈춰세울수는 없었다.

마사진 총, 썩버린 탄피가 너저분히 널린 점호마다엔 화약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런데 점호앞에 죽어너부러진 적의 시체가 보였다. 불길스런 예감이 봉구의 뇌리를 스쳤다.

(어데 갔어, 선영이!)

봉구의 주름잡힌 눈가에 이슬방울이 맺혔다. 선영이가 어데선가 《아바이!》 하고 숨박꼭질할때처럼 나타날듯싶었으나 보이지 않았다. 눈물로 이러한 눈으로 봉구는 기발을 보았다.

이때야 봉구는 기발이 떡갈나무에 매여있지 않는것을 그리고 떡갈나무가 있던 자리는 움푹이 패였고 기발은 좌측 점호에서 펄럭이고있으며 그것도 보병총 총신에 매여있음을 알아보았다.

봉구는 정신없이 달려갔다.

흙무지에 뒤덮인 선영은 기발이 달린 보병총을

껴안고 한손으로는 자동총을 틀어쥔채 의식을 잃고 뚫어앉아있었다.

봉구는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땅크포사격에 떡갈나무가 부러져나가자 선영이가 치명상을 입은 몸을 끌고 기발에 다가간것을, 그 기발을 세워잡고 마지막 적병까지 씹누히며 피어린 싸움을 벌린것을.

봉구는 선영이를 와락 그러안았다.

《이 사람, 선영이 정신을 차리게.》

뜨거운 눈물이 먼지에 얼룩진 선영의 얼굴을 적셨다.

이윽고 선영이가 잠에서 깨어난듯 눈을 떴다. 상처의 아픔이 심한때문인지 얼굴을 잔뜩 찡그린채 봉구를 바라보았다.

봉구는 그를 껴안고 마구 흔들며 웨쳤다.

《선영이, 저길 보라구. 자네는 기발을, 조국을 지켜냈어.》

흐릿한 눈길로 봉구를 보던 선영이의 눈길기발에 가닿자 해빛을 받은 구슬알처럼 반짝이였다.

선영은 꿈에 취한 사람처럼 나직이 외쳤다.

《아바이, 난 명절시위행렬에서... 저 기발을... 들었었어요. 저 기발을 들고... 주석단앞을 지날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웃음가득 저를 봐주셨어요... 저 기발을 들고... 이제... 승리의 광장에서... 행진해야지요... 여길... 기발을... 꼭 지켜야돼요.》

하얗게 낮이 질려 간신히 말하는 선영이를 지켜보던 봉구는 가슴에 불뭉치같은것이 솟구침을 느끼며 소리쳤다.

《그렇다, 선영인... 넌... 이제라두 일당백으로 싸울게다. 너와 같은... 사람들을-》

봉구는 이 순간 기발을 지켜 지붕우에 오르다 쓰러진 석호를 그려보며 열이 나 주먹을 들었다.

《우리를 이길 힘은 세상에 없다. 피로써 찾아준 조국은 피로써 지킨다. 아이도, 어른도, 아니 우리 온 조선이!》

고지뒤켠으로 아군소대전투대형이 나타났다. 배비변경을 오는 구분대였다.

봉구의 눈에는 그 제일 앞 전사의 어깨우에 공화국기발이 펄럭이는것만 같이 보였다.

광부의 딸

로종익

이른새벽이었다.

동그런 안전모자를 쓰고 다림발이 선 곤색작업복을 단정히 자리입은 신광녀는 굴어구에 길게 늘어져있는 전차옆에 서있었다.

휘영청 밝은 달은 눈덮인 광산마을에 시원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사위는 온통 은빛이었다.

나이는 열여덟, 방금 처녀티를 내기 시작한 전차운전공 신광녀는 하늘에 초롱초롱 열린 별들을 세기라도 하듯 오래도록 바라보고있었다. 만타산우에 떠있는 유난히 밝은 새별이며 밤나그네의 길을 안내한다는 북두칠성이며 언제나 의종게 떠있는 삼태성이며... 별세계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은하수 흘러간 저쪽에 쪼크리고 앉은듯 간신히 빛을 내는 작은 빛을 본 신광녀는 갑자기 안타까와졌다. 신입공인 자기가 아직 일터에서 빛을 내지 못하는것처럼 저 별도 갓 돌아난 모양이다.

(아마 어려서 빈짝일 힘이 없는 모양이야.)

그 빛없는 별이 자기같았다. 그러다가 인차 머리를 저었다.

(뭐 어리다고 빈짝이지 못할가.)

광녀는 부지러하기만 하면 힘이 장사같은 박민섭오빠며 경험 많은 차장복언니를 따라잡을수 있을거라고 믿었다. 그는 걸레를 쥐고 인차안을 정성스레 닦았다. 어깨우에 걸어놓은 간데라불이 구호판을 비칠 때 광녀는 일손을 멈추고 읽어보았다. 어데 가나 볼수 있는 구호이지만 읽을 때 마나 가슴이 부푸는것이였다.

《모두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로!》

불시에 광녀의 얼굴은 붉어졌다. 한것은 어제 아침에 박민섭오빠가 빈정대던 말이 귀뿌리를 달구어서였다.

《우린 3대혁명붉은기를 휘날릴 차비가 됐지만 너같은 <단발머리>는 언제 따라오겠니?》

광녀는 손땀이 나른해졌다. 자기에게는 모범본단회장이 하나 있을뿐이였다.

(차장복언니의 말대로 나이를 먹이야 생각도 어른스럽고 일손이 여물가?)

광녀는 그런 생활의 법칙을 부정하고싶었다. 어른들과 어깨나란히 걸어가는 어엿한 전차운전공이 되고싶었다. 그것은 3년이나 5년후가 아니라 지금도 할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직종을 잘못 선택했다고 귀뜸하듯 말하던 차장복언니의 목소리가 귀전에

부딪쳤다.

《광산에선 막장이 1선이란다. 전차운전공은 아무리 열성을 부려도 빛이 안나.》

옳은것 같았다. 속보판이나 굴길옆에 나붙은 벽보들엔 굴진이 선행이다! 채광은 좋다! 하는 웨침뿐이지 전차운전공 특히는 출퇴근차를 모는 인차운전공에 대한 글은 보기 드물었다.

그러나 광녀는 머리를 저었다.

(정복언니의 생각은 옳지 않아. 광부들을 태워다주는 우리도 착암을 하는것과 같지뵈.)

광녀는 전차운전공이 마음에 들었다. 그 직종을 광녀가 스스로 택한것은 아니였다. 아버지의 권고를 눈물겨웁게 받아안았던것이였다.

광녀의 아버지는 아들들만 한구들 앉은 모습을 볼 때마다 딸이 없는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였던지 막동으로 고명딸이 태어났다. 한점 구슬같은 귀동딸은 온 가족의 사랑속에 떠받들리어 곱게 자랐다.

딸이 첫 교문에 들어서던 날이였다.

책가방을 등에 메고 훌쩍훌쩍 뛰어갔던 딸은 울먹울먹해서 돌아왔다. 다짜고짜로 자기의 이름이 나쁘다고 투정질이였다. 출석을 부를 때 아이들이 웃어댔다고 야단이였다. 옥너라든가 순희라든가 이렇게 고쳐야겠다고 우겨댔다. 만약 고쳐주지 않으면 학교엘 안가겠다고 발버둥질쳤다. 참으로 걱정거리였다. 아버지는 얼리기 시작했다.

《애야 너는 아버지가 좋지?》

딸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아버지가 광부인것도 좋지?》

《좋아.》

《광부의 딸이 되는건 나쁠가?》

《그것도 좋아.》

《허허... 그럼 됐다. 너의 이름은 아버지원수님께서 제일 아껴주시는 광부의 딸이라는 뜻이니가 제일 좋은 이름이지.》

광녀의 눈은 반짝거렸다.

그날부터 광녀는 자기의 이름은 제일 좋다고 뽐내기까지 하였다.

광녀는 어느덧 중학교문턱을 넘어섰다.

어느날, 광녀는 머리속에서 풀리지 않던 생각을 아버지에게 물었다.

《애들은 내가 광녀이기때문에 광부가 돼야 한대, 정말 그래야 하나요?》

그때 광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옛말을 들려주었

다.

…오래고 오랜 옛날, 사람들은 개미들이 굴을 파고 들어가 사는것을 보고 사람도 굴을 파고 들어가고 죽지 않는다는것을 발견하였다. 로두를 까내여 녹이던 사람들은 산우에 드러난 로두가 없게 되자 굴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쇠돌을 파내여 연덩이를 뽑았다. 그것을 팔아서 쌀도 사오고 옷가지도 구해들었다. 차츰 오두막이 늘어났다.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던 난쟁이 왜놈들이 칼부림을 하며 쳐들어와 이 보물산을 빼앗았다. 할아버지는 《돈벌이》를 왔다가 《죽는 벌이》를 하고말았다. 그때 아버지는 아직 어리었으나 쇠돌을 쳐내와야 했다. 난쟁이 왜놈들은 밀차를 타고 다니며 광부들의 등에 채찍질을 하였다. 하루는 아버지도 굶뱅이처럼 걷는다고 그 채찍에 맞았다.

아버지는 굴옆에 어루리지면서 밀차밑에 깔렸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뼈를 상한 다리때문에 절어야 하는 고통을 안게 되었다....

이야기를 듣는 광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맺혔다. 아버지가 다리를 절며 다니는것이 안타까웠던 광녀는 그제야 그 사연을 알게 되었다.

《광녀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되게 말을 듣는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나? 나는 네가 광부들을 태워다주는 전차운전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네가 모는 전차를 타고싶구...》

아버지의 너부죽한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났다.

그때부터 광녀는 일할 나이를 손꼽아기다렸다.

드디어 올가을에 그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또 자기가 무척 하고싶은 전차운전공이 되었다...

광녀는 자기가 끌고다니는 인차를 남달리 아꼈다. 차안마다 어머니가 배워준 솜씨를 보여 꽃장식도 하고 윤기나게 닦달질도 하였다. 그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인차를 다 닦아놓고 출근하는 광부들을 맞이 했다.

광녀는 걸레를 들고 박민섭오빠가 늘 앉는 《고정석》에 이르자 주머니에서 종이마리를 꺼내여 벽에 붙여놓았다.

《...어제 하루계획을 두배반이나 넘쳐 한 박민섭오빠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려요. 오늘도 충성의 선물을 안고 나오기 바라요.》

이렇게 쓴 글은 박민섭오빠의 눈과 마주칠것이였다.

광녀는 어제아침처럼 그밑에다 《넘려 말어!》하고 써놓을것만 같았다. 그는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추동하는 이런 일이 재미있었다. 그래서 이즈음에는 계획을 못하는 광부에게는 추동하는 편지를 써서 의자우에 놓기도 하고 잡지며 신문들을놓기도 했다. 그러느라고 저녁이면 지령실에

들러서 생산실적도 알아보고 그 밤으로 여러장의 글을 쓰느라고 잠자는 시간을 많이 때내야 했다. 그래도 좋았다.

광녀가 전차 떠날 차비를 다 해놓았을 때 푸름 푸름 밝아진 골목길마다에서 별같은 간데라불이 하나둘 나타나 갱구내로 모여들었다. 자취를 감추는 하늘의 별들을 대신하는듯한 수많은 《별》들이 흘러오고있음을 보는 광녀의 까만 눈에는 정채가 돌았다. 약간 도톰한 얼굴에는 미소가 어리었다.

《밤새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광녀의 아침인사가 시작되었다.

《대범령감이 고명딸 하나는 잘 두었지.》

《얼굴도 곱구 마음도 착하구.》

저마다 한마디씩 칭찬을 하며 인차안으로 들어갈 때였다.

《광녀!》

멀리서 부르는 박민섭오빠의 목소리임을 광녀는 알았다.

《오늘은 좀 빨랑빨랑 물란말이야. 어제아침에는 정복이보다 10분이나 늦어 갔어.》

《알겠어요.》

광녀는 분명 대답을 했으나 입밖으로 흘러나오는 못했다. 그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안타까웠다.

(한사람이 10분씩이면 150명치구두 30시간, 아니? 그럼 내가 매일 5명의 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것이 아닌가.)

속으로 이렇게 계산해본 광녀는 당황해났다. 오늘은 꼭 시정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운전칸에 앉았다. 그는 떠난다는 신호로 흐르래기를 길게 불었다.

와르릉-

굴속을 뒤흔들며 출근차가 달렸다. 19지점의 돌림길에 이르러 광녀는 속도를 늦추었다. 광부들의 몸을 들추어놓기 일쑤인 차길이었다. 빨리 달리지 못했다.

박민섭오빠는 처진 볼을 풀떡이며 다가왔다.

《넌 차라리 자재차나 모는게 나을게다.》

하고는 아까 그의 의자옆벽에 붙여놓았던 광부의 부탁이 씌여진 종이를 운전칸에다 던져버리고는 성난 걸음으로 갔다. 너때문에 1프로는 밀렸다는 투다.

광역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안타까움을 풀길없어 울상이 되었는데 출근차에서 내린 아버지가 운전칸옆에 와 서서 엄하게 말했다.

《인젠 나이 열여덟이 어리냐? 너는 사람들을 태운 차를 문단말이다. 차를 모는지 혼들어대는 지 들볶이워서 정신이 다 땡하단말이야.》

빨리 물지 않는다는 박민섭오빠의 충고보다 흔들거리게 물리게 들볶이었다는 아버지의 말이 광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그는 이것도 저것도 할줄 모르는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정복언니의 운전법을 눈여겨보자. 내라고 어찌 정복언니처럼 못할겠는가.)

광녀는 저쪽에서 전차를 빼라는 호르래기 신호가 울렸을 때에야 지긋게 달라붙던 생각을 쫓고 차를 뒤걸음쳐 밀었다.

그날 교대를 마친 광녀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전야근교대 광부들의 출근차를 모는 정복언니의 일숨씨를 배우려고 그의 인차에 탔다. 거리와 속도, 돌림길과 높고낮은 경사구간을 생각하며 정복언니의 손동작을 짐작하였다. 자기라면 19호지점의 돌림길에서는 속도를 늦추었겠는데 정복언니는 그냥 전속으로 달리는 것이었다. 인차가 세팔개 량옆으로 흔들거리는데 바람에 광부들은 차벽에 머리를 짓궂기도 하고 서로 맞부딪치기도 하였다. 내리막길에서는 불시에 멎었다가 채는 바람에 앞뒤를 들추어놓았다. 속이 막 메슥메슥해서 견디기 힘들었다.

《제길, 오늘은 누가 몰아?》

《누군 누구겠소. <아카시아꽃>이겠지.》

《여 전차공. 기술을 높이랴구.》

마지막 말은 누군가 광녀를 보고 하는 말이였다.

광녀는 고개를 들수가 없었다. 그는 실망하였다. 빨리 물지 않는다는 비평은 들을지언정 정복언니처럼 몰아달 생각은 없었다. 막장에 이르러 광부들은 다 내리고 빈차가 대기실굴에 가뒀을 때까지 광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정복언니가 인차옆을 지날 때에야 정신을 차린 광녀는 차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언니.》

정복언니는 돌아섰다. 처녀들은 꼴모자를 쓰고 싶어하는데 차정복언니만은 채양달린 고깔모양의 안전모자를 쓰고다녔다. 오늘따라 그런 모습이 펍 날카로와보였다.

《너는 왜 이 차를 탔니?》

《언니의 숨씨를 배우려구요.》

광녀는 전차운전공 년한이 제일 오랜 로숙하고 남다른 아름다움을 얼굴에 새긴 차정복언니를 친언니처럼 믿었다. 하여서인지 광녀는 그의 앞에서 어리광기가 있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가자.》

광녀는 차에서 내렸다.

《저 언니 차를 흔들거리지 않게 모는 방법 없을까요?》

《들추어댄다고 하던?》

《네.》

정복언니의 가름한 얼굴에서 가장 이채를 띠는 것은 긴 살눈섭속에서 은근한 빛을 내는 표정이 풍부한 눈이었다. 그 눈빛이 오늘은 어쩐지 차갑게 느껴와서 광녀는 겨우 외마디대답을 하고는 발부리로 돌을 굴리었다.

《광부들은 쇠돌을 떨구지 않고는 발편잠을 자지 못한다. 빨리 가서 일손을 잡기 바라는데 우리가 그들에게서 시간을 뺏아서야 되겠니? 참 요즘 너때문에 말을 좀 듣는데... 그러니 전속을 놓아라. 그렇게 하기가 무서운 모양이지? 이제 자꾸 나다니고 나이를 한두살 더 먹으면 돼.》

정복언니는 어른스럽게 타일렸다. 그러면서 빙그레 웃어보였다. 광녀는 정복언니가 웃을 때는 더 고운데 드물게 웃는것이 안타까울 지경이었다. 늘 성난듯 입술을 도도록이 다무는것이 마음에 안들었다. 워낙 정복언니는 몸매단정하고 맵시있고

예쁜 처녀지만 광부들은 그닥 좋아하질 않았다. 제대군인총각들이 룡말을 건네면 룡으로 받지 않고 가지처럼 툭 쏘아붙이며 다시는 범접을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총각들은 그에게 《아카시아꽃》이라고 별명을 붙였다. 그래도 처녀인 정복언니는 그들에게서 인정을 사려거나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았다. 그러는 태도가 광녀에게는 리해가 되지 않았다.

《네가 나를 비판은 했지만 봐라 별수가 있니?》

정복언니는 너그러운 말투로 말했으나 광녀는 몸에 가시가 막히는듯 아팠다.

광녀는 며칠전에 사로청생활총화때 정복언니를 비판한 일이 있었다.

그날 광녀는 빨개진 얼굴을 겨우 들고 말하였다. 묻는 말에나 겨우 대답하던 유순한 광녀가 다름아닌 정녀언니를 비판할 때 사로청원들은 놀랐다. 광녀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겨우겨우 엮어졌으나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광녀는 그때 정복언니는 자기에게만 뜨겁고 남에게는 차갑다고 하면서 여사여사한 실례를 들었었다. 특히는 어린 사람을 얕보는데 그건 꼭 시정해야겠다고 말했다.

사로청원들은 광녀가 원칙성이 강하다느니 발전이 빠르겠다느니 하며 떠받들어주었다. 그러나 정복언니만은 그 비판을 접수하기 어려워했고 어딘가 모르게 싸늘해졌다. 지금도 자존심이 상하던 그날 회의가 생각나서인지 슬며시 해명하자고 하는 것이었다.

광녀는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는 헤덤비지 말라는 암시를 슬쩍 던진 정복언니의 말을 곱씹어보며 굴길을 걸었다.

전기불이 휘황한 막장전투지휘부, 휴계실들, 누군가 목청을 빼며 노래런습을 하는 궁룡식갱선전

실, 칼도마소리가 가락맞게 울리는 식당... 광녀는 아무데도 마음이 끌리지 않아 내쳐 걸었다. 한참 가니 외등빛도 더 비쳐오지 않고 어둠만이 앞을 막았다. 광녀는 간데라에 불을 달았다. 언제부터 자기들이 오가는 철길을 한번 밝아볼 생각을 했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일을 오늘 하려고 마음먹은 광녀였다. 그는 간데라를 어깨에 걸어놓고 왼손에는 수첩을, 오른손에는 원주필을 들었다.

번다한 전차굴길에 나서니 굴굴에서 울려오는 오만가지 소음이 금시 굴을 무너뜨릴듯 귀전을 흔들었다.

그는 간데라불에 비쳐지는 굴길을 유심히 살피며 수첩에 불량개소를 하나하나 적어갔다. 침목이 기울어진곳, 레루이음짜이 높낮은곳, 돌림길의 경사각이 맞지 않는곳, 지어는 못이 빠진곳도 놓치지 않고 죄다 발견해냈다.

광녀가 난장에 나왔을 때는 밤이 퍼그나 깊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가려는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 길로 철길소대에 들렀다. 마침 철길소대장이 있었다. 광녀는 소대장에게 수첩을 내밀었다.

《아저씨. 이걸 수리해주세요.》

철길소대장은 수첩을 번져보면서 헤벌쭙 웃었다.

《허, <단발머리>한테 한대 맞는군.》

하면서 너무도 세밀한것까지 수리해달라는 요구성앞에 감복했다며 53호막장 철길공사가 래일 이면 끝나니 뒤이어 보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녀는 기뻐다. 인젠 인차를 빨리 몰아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확신을 가졌던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지나도 철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광녀는 두번째로 철길소대장을 만났다.

《아저씨, 왜 철길을 수리해주지 않나요?》

《허, 오늘은 기세가 창끝같다?》

철길소대장은 더 급한 일이 제기되어 미루었다며 이들이내로 사람을 붙이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광녀는 인내성있게 사흘을 기다렸다. 그래도 철길우에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다. 그는 세번째로 철길소대장앞에 가섰다.

《아저씨는 전차운전공들의 심정을 너무도 몰라쥬요.》

광녀는 철길소대장이 자기를 어리다고 깎보면서 또 슬쩍 넘길것 같아서 마디마디 힘주어 말했다. 그래도 가책의 빛이 보이지 않자 광녀는 그만 실망했다.

(사람을 아끼는 일을 어떻게 미룰수 있을까?)

그게 리해되지 않았다. 그리고도 어쩔 저렇게

태연할가?

(아니야 일손이 팔려서 그럴거야.)

광녀는 이렇게 철길소대장의 딱한 사정을 리해 해주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속상각과는 달랐다. 그는 일부러 더는 맞서지 않겠다는듯 히하니 돌아서 나와버렸다.

광녀가 나간 문을 멍하니 보던 철길소대장은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어린 전차운전공이라고, 그가 수리해달라는 불량개소란 너무도 사소한것이라고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린 가책이 들었다.

철길소대장은 이튿날 아침에 작업대를 무었다.

작업대를 인솔한 철길소대장은 굴어구에서부터 광녀가 넘겨준 수첩에 적힌 불량개소를 찾았다. 맨처음에 광녀가 지적해놓은 침목밑에는 이미 돌이 다져져있었다. 두번째. 세번째 표시한 불량개소도 이미 수리되어있었다. 그 누군가의 알뜰한 일숨씨를 느끼며 그들은 자꾸 걸었다. 어데선가 굴안을 쨍쨍 울리는 곡괭이소리가 들려왔다. 철길소대장의 걸음은 빨라졌다.

웬 처녀가 혼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굴벽에 걸어놓은 간데라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키가 작은 처녀는 곡괭이를 쳐들기는 했으나 내리칠 때는 명중을 못하여 몸의 균형마저 잃고 비칠거렸다.

그는 광녀였다. 광녀임을 알게 된 순간 철길소대장은 머리가 빠근했다. 일한걸 보면 지난밤 자기있는데 왔다가 그길로 굴속에 와서 일했을 광녀였다. 결코 《단발머리》 애어린 처녀로 볼수 없었다. 불량개소를 적은걸 보면 착실한 마음씨가 느껴졌고 밤에 무서운줄도 모르고 굴속에 들어갈 결심을 내린 광녀를 보면 스스로 머리가 숙어졌다.

곡괭이질을 하는 저 기상은 또 얼마나 다기차고 림름한가!

《광녀!》

철길소대장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부르며 달려가 광녀가 처든 곡괭이를 멈추어잡았다.

광녀는 별을 심어놓은듯한 눈으로 철길소대장을 쳐다보았다.

《고마와요.》

《그건 내가 할 소리요.》

광녀는 아직 상대방했게서 《하오》투로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로 불려도 무방할 철길소대장에게서 처음으로 《그건 내가 할 소리요.》 할 때 그만 얼굴을 활짝 붉혔다. 어른이 되기를 바랐으나 이런때는 소녀가 되는것이 더 좋을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철길소대장은 자기를 《동무》로 여겨주는것이였다.

《광녀동무, 미안하오. 인젠 우리가 할테니 안심

하오.》

광녀는 자기를 불러주는 《광녀동무》라는 말을 가슴에 꼭 품었다. 마음은 즐거웠지만 그제 너무 과분한 치하처럼 들렸다. 더 나이를 먹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줄 아는 독자적인 능력이 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치하일 것이다. 자기에게는 그런 치하를 받을 날이 먼 앞날에만 있을 것 같았다. 철길소대장은 그만하고 인젠 집으로 가라고 했다. 그러나 광녀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 오늘의 대휴일을 이들과 함께 보내고 싶었다.

이때 이마불을 내쏘며 전차가 막장에서 나오고 있었다. 호르래기 소리가 호릉-호르릉- 길을 비키라고 조급히 울리었다. 사람들은 굴벽에 붙어섰다.

전차는 지나가다 말고 멈추어섰다. 철길소대장이 세웠던 것이다. 인차에는 밤일을 한 광부들이 탔다.

앞쪽에서 정복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왜 세우는 거예요.》

《허 성내지 마오. 광녀동무를 태우고 가야겠소.》 정복언니는 언짢게 물었다.

《넌 뭘 하러 여기까지 왔니?》

하였으나 광녀의 흠문은 작업복이며 손에 전 철길못을 보자 짐작이 갔는지 긴 살눈섭으로 빛나는 눈을 덮어버렸다.

철길소대장은 광녀를 억지로 인차에 태웠다.

광녀는 자기 때문에 퇴근하는 광부들의 걸음을 지쳐시킨 것이 미안했다.

전차는 탕탕탕... 성난 정복언니의 마음인양 련 걸고리를 마구 채며 떠났다. 경사가 아주 급하여 그냥 세워두어도 쏠살같이 미끄러져 내릴 구간인데도 정복언니는 전차의 전동기에 만부하를 걸어 냅다 물었다.

《광녀두 이렇게 몰란말이다.》

그제야 광녀는 안쪽 벽가에 박민섭오빠가 앉아 있는 걸 보았다. 정복언니가 냅다 모는 것에 신바람이 난 박민섭오빠의 실눈에 비하면 너무도 큰 입은 해-벌어진 채 다물줄을 물랐다. 그의 육중한 몸체는 인차가 마구 흔들려 있었으나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몸을 들추어서 피곤하지 않아요?》

《그게 뭐 대수냐? 몸은 내 것이지만 쇠돌은 나라의 것이거든! 그러니 나를 아끼겠어? 나라를 위하겠어?》

광녀는 그 담대한 성미가 뜨겁게도 안겨오고 안타깝게도 여겨졌다.

《오빠는 그럼 사람보다 쇠돌이 더 귀중하단 말이에요.》

《이것봐라. 시험관 같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박민섭오빠는 눈이 둥그래서 쳐다보는 것이었다. 광부들은 광녀가 박민섭이를 뒀다곤 했다고 웃어댔다.

이때 속도를 갑자기 늦춘 전차가 탕하고 뒤로 밀치는 바람에 광부들은 인차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허, <아카시아꽃>이 또 한대 갈기는군.》

광녀는 가슴이 아팠다. 정복언니는 왜 차를 탕탕 몰가?

전차는 난장에 나왔다.

정복언니는 운전칸에서 내렸다. 그는 새침한 얼굴표정이었다. 광녀는 불안을 느꼈다.

《남의 일을 돕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있으면 전차운전법이나 익히려마. 자꾸 신소들 받지 말구...》

정복언니의 말은 가시에 찢린 듯 아팠다. 광녀는 반발심이 생겼다. 자기는 다 잘하는 것처럼 여기며 자기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정복언니가 알미워 보였다. 광녀는 지금까지 반발심을 가져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반발심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나이를 먹고 선배라고 해도 결함과는 타협하거나 순종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겼다. 나이를 먹고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무턱대고 순종할 필요가 없었다. 나이를 먹고 오랜 경험을 가진 어른들만이 일을 잘하고 훈장도 탈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광녀의 생각은 무너졌다. 사상도 하나이고 충성도 하나이다. 사상이나 충성에는 선배나 후배라는 한계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진리만이 있을 것이다. 광녀는 이렇게 생각을 아귀치고 보니 가슴이 넓어지는 것 같았다.

눈으로 바람이 회오리치며 눈가루를 말아올렸다. 짜늘한 칼바람이 얼굴을 종종 찢어놓고는 달아났다.

광녀는 발바닥과 땅사이에 살얼음이 건너간 것을 부셔버리며 걸음을 내디었다.

《광녀!》

등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분명 박민섭오빠의 목소리였다.

광녀는 고개를 돌리려는데 어느새 어깨우에 커다란 손바닥이 얹혀졌다.

《이거 봐요. <코흘리개> <단발머리>와 상대가 돼요?》

광녀는 새침해졌다.

《우리 광녀가 성났냐?》

《난 오빠가 미워요.》

《이것 봐라. 인젠 충고까지 한다?》

광녀는 여전히 돌아다보지 않고 투정질하듯 불

만을 털어놓았다.

《자기 일단 꼭 제일이라고 우쭐대면서 남의 일은 시비질만 하고… 도와주려는 생각은 안하고… 옳지 않아요!》

광녀는 박민섭의 막내동생인 춘옥이와 동갑이었다. 그래서 그를 오빠라 불렀다.

《앞으로는 꺾보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해요.》

광녀는 셀쭉 웃으며 박민섭오빠를 쳐다보았다. 《약속하지. 내 오늘 광녀한테 손을 들었다. 허허…》

《호호호…》

광녀는 명랑하게 웃으며 날개 돋친듯 구락부쪽으로 달려갔다.

그 이튿날이었다.

광녀는 미술실실에서 보일유로 뺑끼를 풀었다. 빨간 뺑끼통과 까만 뺑끼통의 손잡이를 쥐고 밖으로 나왔다. 굴벽에 지정표, 알림표, 거리들을 표시하자는 것이었다. 그걸 보며 전차를 몰면 이러저러한 사고도 막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속도의 균형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어깨에 걸어놓은 간데라에 불을 달고 막장안으로 들어섰다.

이때였다.

귀청을 쩌듯한 고향소리가 났다.

《전차 바람났다-》

그것은 전차가 저절로 미끄러져나온다는 소리였다. 심장이 딱 멎는 듯한 충격을 받은 광녀는 되돌아섰다. 지령장이 손을 허우적거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너무도 급하여 어찌할바를 몰라 얼굴이 꺼졌다. 그는 자재차가 들어가다가 련결고리가 끊어져서 지금 마구 난장으로 미끄러져 가속으로 나온다고 야단쳤다.

《더군다나 그 차에는 회의에 참가했다가 늦게야 들어가 광부들도 땀만달이요. 이걸 어쩌면 좋소?》

광녀의 몸은 바르르 열리었다. 바람난 차가 쓴살같이 나오면서 난장에 세워둔 광차들을 밀어제끼며 뒤죽박죽을 만들어놓으리라는 무서운 생각이 몸서리를 일으켰다.

지령장은 굴어구에 서지 말라, 저쪽 광차를 빨리 밀어라. 사람들이 뛰어내릴 수 있게 옆에 거칠 것 없이 치워라 하고 고향을 질렀다.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지령장의 구령에 따라 난장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 같다.

벌써 굴속을 진감하며 나오는 차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광녀의 가슴은 세차게 오르내렸다.

(사고를 막아야 한다.)

비장한 각오를 다진 광녀는 종주먹을 쥐고 달

렸다. 그는 세워놓은 광차에서 련결고리를 뽑자 운전칸에 올라탔다. 그 누구도 광녀의 행동에 큰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그저 길게 늘어선 광차를 대피시키려니만 여겼다. 막상 광녀가 전차를 몰고 굴속으로 들어갈 때에야 지령장이 고향을 지르며 따라왔고 사람들이 정신나갔다고 야단법석을 놓았다.

광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땅의 지하자원을 통채로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광부들의 얼굴만이 눈앞에 밟혀왔다. 아버지 수님께서 것처럼 아끼시는 광부들이 손가락 하나 다쳐서도 안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광녀는 전차를 전속으로 몰았다. 바람난 차가 내려오는 양갈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었다. 전차의 이마불이 내려오는 차에 비치는 순간 광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이마에 일시에 식은땀이 돌아났다.

광녀는 전차를 세웠다. 큰숨을 모두어쉬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왔다. 그는 전차를 천천히 후진시켰다. 밀려오는 차와 전차의 속도를 균등하게 맞추면서 받아물자는 것이었다. 바람난 차의 맨앞에는 인차칸이었다.

전차와 인차사이의 약 10미터…

《광녀, 빨리 나가라. 안된다. 안돼.》

분명 비명처럼 울리는 이 목소리는 박민섭오빠의 것이었다. 그는 차창으로 머리를 쭉 내밀고 손을 허우적거렸다. 차창마다에서 광부들의 얼굴이 내밀리었다. 그들은 광녀더러 빨리 전속으로 나가라고 고향을 질렀다. 인차의 속도가 높기때문에 전차를 뺏아뜰질 것이었다. 이 엄혹한 마당에서 조차 자기보다 남을 먼저 떠받들어주는 광부들의 그 사랑이 광녀의 심장을 뜨겁게 더웠었다.

전차와 인차사이의 2미터…

달려드는 인차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광녀는 주원통을 꼭 잡았으나 손이 떨리었다. 도저히 전차의 속력을 인차의 속도에 맞추 수가 없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될 판이었다. 광녀는 최전속으로 뒤걸음치며 속도를 조절했다. 인젠 초를 다루는 판가리 순간이었다.

전차와 인차사이의 불과 1미터였다.

광녀의 결심을 돌려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광부들은 힘있는 목소리로 용기를 부어주었다.

광녀는 힘이 솟아났다.

(나는 저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 나는 광부들의 귀염을 받으며 자란 딸이다. 나는 지금 응석받이 딸이 아니라 나라의 쇠돌전선을 맡아나선 로동계급이다. 나는 결코 어린애여서는 안된다. 어른들처럼 큰마음 먹어야 한다.)

거리와 속도, 중량과 균형, 마찰계수와 추진력… 지난날 책가방을 들고 다니며 배우던 교과

서와 칠판, 선생님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리고 보이는듯싶었다.

인차와 전차사이엔 10센치미터...

광녀는 온 정신을 련결부위에 쏟았다.

와르릉- 굴안을 진감하는 전차의 부르짖음...

목청을 돋구는 고탐소리...

그속에서의 판가리격전.

광녀의 몸에서는 일시에 땀이 돋았다. 수그린 얼굴에서 땀한 땀방울은 맛불을듯말듯 좁혀지는 련결고리에 똑똑 떨어졌다.

충격이 일었다. 광녀는 눈앞이 아찔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은채 어떻게 됐을까? 하고 가슴을 죄이었다. 전차가 고무공 튀듯 밀리웠는가 했는데 다행히도 인차를 떠받들고있었다. 련결점은 맛불었다! 성공이다!

《광녀-》

《광녀동무-》

그러나 속도를 늦추려 역동제동기손잡이를 꼭 잡고 온몸으로 밀고있는 광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몸, 온 신경은 역동제동기손잡이를 밀어제끼는데 쏠렸다. 그는 전차가 속도를 늦추며 흘러가는줄도 안전하게 난장에 나와 멎은줄도 몰랐다. 그저 정신이 혼미해졌다. 아직도 전차가 달리고있다고 여기는지 역동제동기에 불사신같은 몸을 덮고있었다. 그의 안전모자는 운전칸에 떨어져있었다.

《광녀동무!》

박민섭은 역동제동기를 틀어쥐고 쓰러진듯 어꾸러져있는 광녀의 땀에 젖은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힌참후에야 광녀는 눈을 스스로 떴다.

《광녀동무!》

《정신차리오. 광녀동무.》

광녀는 너부죽한 얼굴에 감동이 흐르는 박민섭오빠를 꿈속에서처럼 쳐다보았다.

《광녀동무, 수고했소. 정말 용감하오!》

(《동무》라니?! 박민섭오빠가 나를 《동무》라고 부르다니.)

이렇게 생각하며 광녀는 친오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박민섭이를 오래동안 쳐다보았다.

(그럼 아버지원수님을 받들어나가는 광부들의 대렬속에는 로동계급이 된 나도 끼여있단말인가.)

광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내에 모여서 자기를 보는 광부들의 눈은 반짝이고있었다. 그들의 치하를 듣자니 어쩐지 쑥스러워 고개를 들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어라.》

뜻밖에도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전차앞에 서있었다.

(아버지도 이 차를 탔겠구나. 그런데 어째 아까는 아무 말씀도 안했을까? 아마 자체의 힘으로 난관을 뚫고나가게 하자고 그랬을거야. 아버지는 늘 억센 로동계급이 되라고 했었으니까.)

광녀는 고개를 들었다. 입술을 어떻게나 힘주어 깨물었던지 피가 흐르고있었던만 광녀는 그것도 모르고있었다. 그의 입술에는 기쁨이 어린 미소가 한뼉기의 꽃처럼 피어있었다.

아버지는 운전칸안에서 언제 벗어졌는지조차 모르는 안전모자를 집어들어 광녀의 머리위에 얹어주었다.

《인젠 너도 다 자랐구나.》

이럴 즈음에 자재차를 떨구어버린 전차가 난장으로 나왔다. 차정복은 전차를 세우기 바쁘게 운전칸에서 내렸으나 걸음은 옮기지 못했다.

광녀는 그를 발견하자 다정한 미소를 보냈다. 안심하라는 그 미소를 차정복이는 몇백마디의 충고를 대신하는 말로 여겼다. 19호지점에서 전차를 문득 세웠다가 급기야 잡아채는바람에 련결고리를 부러뜨렸던 차정복이었다. 그는 이 사고가 우연히 온것이 아니라 자기의 운전법에 자만자족한데서 온것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광녀를 쳐다볼 면목이 없었다. 어린것의 충고라고 헛내기가 까분다고 귀등으로 흘려버린 그였다. 기능도 자기가 높고 혁신의 앞장에도 로숙하게 자란 자기기 신다고 여겼다. 광녀같은 헛내기는 그런 높이에 도달할수 없다고 깔보았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생각인가를 깨달았다. 기능수준도 경험도 영웅성도 나이에 있는것이 아니라 충성심에 있다는것을 가슴쓰겁게 받아안았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

아침이었다.

광녀는 출근차를 몰고 굴속으로 들어갔다. 전차의 이마에서 내쏘는 전조등불빛은 오늘따라 굴안을 더 환하게 비쳤다. 환한 외등이 걸린 굴벽에 무엇을 그려놓던 차정복은 화구통에서 붓을 뽑아든채 광녀에게 손을 흔들며보였다. 굴벽에는 차정복이가 쓰다만 알림표식이 새겨져있었다.

《언니! 수고해요.》

광녀는 광부들이 굴벽에 갓 걸어놓은 구호를 읽게 하려고 전차를 천천히 몰았다.

가슴을 뛰게 하는 글발이 눈앞에 안겨왔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너는 하늘에 살아도

김병두

단발머리 조작공처녀여
흰구름 스쳐지나는 뇨소탑우에서
뜨는 해 지는 달을 남먼저 맞고보내며
너는 하늘에서 산다

학교문을 갓 나와
네 첫걸음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계기앞에 까만 눈동자 빛내며
저 넓은 하늘에
너는 꿈많은 날개를 펼쳤다

너는 하늘에서 산다
빨간 머리수건을 날리며
무수한 은빛탑들이 손짓하는 화학지구너머
조국의 한끝 대지까지도
가슴후련히 바라보며...

수령님께서 어느 산간마을 포전을 돌보실 때
수령님께서 어느 이슬내린 논뚝길을 걸으실 때
푸른 창 푸른 하늘 넘어
네 마음도 그 자욱따라 달려가고있었다
풍년비료 더 보내주자고
네 심장은 온 조국의 들을 안고 고동치고 있었다

공장구내에 봄빛이 푸르르면
별마다 비료를 기다리는듯싶어
동해에 솟는 달빛이 고우면

밤벌에 이삭패는 소리 듣는듯싶어
층계와 층계를 오르내리며
조절기를 돌려가는 내 마음

네 마음이 그대로
비료가 되어
다락발 강냉이포기를 감싸주고
훈풍이 되어
논벌의 벼이삭을 어루만져주며
이삭마다 풍년기쁨 땃히게 하거니

조작공처녀여
눈오는 날
비오는 날
너는 사시절 하늘에 살아도
주체농법 꽃피우는 비료를 만들며
온 나라의 풍년나락을 가꾸고있기에
땅우의 그 모든 황금물결을
땃땃이 안아보는 기쁨이 있어라

아, 영예로운 초소는 많고많아도
이 땅에 풍년기쁨 보태어가려고
하늘에 일자리를 정한 네 마음이 소중한
다시금 쳐다보는

뇨소탑우의 너의 창문엔
세상 가장 행복한 해살이 비껴있구나

축복하노라!

오필천

이날이 오기를
손꼽아
청산벌이 기다리고
봉상강이 설레었더니

왔구나
한명도 아니고
한 학급도 아니고
졸업생 너희들모두가
푸르른 농장벌로

고향을 지켜
청산벌을 꽃피워
한생을 빛내이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 기뻐하고
그 소행 미더우시여
수령님께서도 기뻐해주셨으니

청산리 추녀낮은 초가집
방문을 여시고 들어서시던 그때가
어제만 같은데
그때 그 애들이 이렇게 자랐을나고
감회도 짙으시여
너희들을 축복해주셨으니

아, 솟아오르는 아침해발처럼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온 누리에 내려쳐가던
그 력사의 새벽과 함께
이 땅에 첫 생을 받아안고 자란 너희들

저 끝없이 열린 푸른 하늘은
행복의 요람가에 밝게 빛나던
그 눈빛이 어려 저리도 밝은것 아니냐
저기 대지에 울려가는 기계소리는
어릴적부터 자장으로 들으며 자란
너희들의 가슴속에 넘치는 노래가 아니냐

풍요한 청산리 들길우에 새겨진
수령님의 그 자욱을 따라 걸으며
너희들은 티없이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을 키웠고
수령님 다너가신 영광의 포전에서
너희들은 주체의 새 농법을 익혔거니

너희들은
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이 안아키운
청산리의 아들딸
청산리의 빛발속에 자란
대지의 새 주인들

축복하노라!
너희들의 그 마음이 가닿을
푸른 하늘가에
너희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가없이 넓은 벌에
풍만한 열매들을 익히며
좋은 날 좋은 계절이 찾아오리라

전변된 땅우에서
너희들모두가 기계를 몰아가며
과학의 봄
만풍년의 봄을 가꿀 그 기쁨을 안고
농장대학의 밝은 창가에서 부르는
너희들의 노래를 안고
청산리의 새 모습은 일어서려니

온 나라의 앞장에서 달려갈
너희들의 머리우에 비껴울
찬란한 레일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랴

아, 끝없는 축복의 노래인양
너희들의 앞길에
아침해발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려라!

탄부의 걸음

황승명

하루에 십리도 아닌
스물다섯 걸음
막장을 밀어나간
탄부의 걸음...

땅우에는 기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날며
단숨에 천리를 가는데
어찌하여 그 몇걸음이
놀라운 기록이 되어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흔드는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땐
안해가 바래주고
어린것이 따라서던
네거리에서는
누구나 다름없는
평범한 걸음이였다

레사롭게 시작된
위훈의 그 발자취를
땅속에서 더듬는 이 마음
막장이 깊어지니
생각도 깊어지는가

가볍게 옮기던
내 걸음도 무거워지누나
땅우에서 미처 몰랐던
조국의 크기와
무계를 느끼며...

후더운 가슴에
풍성한 탄밭을 안으면
맥이 통하고
심장이 뛴뛰는
그것은 돌이 아니여라
그것은 불붙는 검은 금!

착맥의 크나큰 기쁨을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며
바위같은 가슴들이 서로 부여안고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던
그 지점은 어디나

희미한 간데라불에
위훈의 그 발자취는
좀처럼 눈에 띄이지 않아도
실려가는 저 검은 금과 함께
얼마나 빛나는 자욱으로
땅우에 아로새겨지는것인가

순간도 멈춰세울수 없는
공업의 뜨거운 숨결을 안고
언제나 앞서 나가며
온 나라를 따라세우는 그 걸음

쇠물이 사품치는 철의 기지에
위훈으로 빛나고
해빛밝은 창가에
아이들의 웃음으로 피어나는 그 자욱

한치한치 배밀이로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가듯
땅속을 헤쳐가도
전진하는 조국을 받들어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거니

아, 하루에 한 걸음을 내짚어도
그렇게 가고가리라
남들이 한생을 걸어도 못다 느낄
보람과 기쁨을
걸음마다 누리며
떨치며...

제대군인 외 1 편

권강일

어디서나 다정히 불러주더라

출근길 먼발치에서

나를 본 갱장도

거리가 들썩하게 반기며

-제대군인, 제대군인동무

어디서나 웃으며 맞아주더라

탄자를 물고가는 운전공처녀들

먼 굴길에

노래처럼 남기는 목소리도

-제대군인동무

사랑으로 믿음으로 불러주는

그 미더운 눈길

채탄장 돌격대의 첫머리에

내 이름을 적어주던 뜨거운 마음들이여

아, 제대군인

불타는 전선길을

헤쳐온것도 아니건만

조국의 초소에서 돌아왔다고

병사의 영광으로

그리도 친근히 받아들여주는구나

어디서나 부르며 받아들여주는

그 마음을

다시금 다시금 세겨보는 그 이름

제대군인

락동강 불타는 물결에 단가슴을 적시며

불길만리를 넘어온 사람들

불붙는 고지를 지켜 끝까지 싸우며

목숨으로 조국을 안아지킨

헐치 않게 차려진 그 이름

죄여 맨 군화끈을 풀새도 없이

초연에 끄는 배낭을

철의 구내에 내려놓고

일떠세운 용광로

동해기슭에 높이 세운 비날론탑들

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대건설의 기념비들을

조국땅 가는곳마다에 세웠던가

조국을 위훈의 령마루에 받들어올리며

변함없이 바쳐온 충성의 길우에

그들이 받아안은 영광을

나는 오늘 받아안았구나

병사의 배낭은 벗어놓았건만

가슴은 달아오른다

수령님을 위한 그 불같은 충성을

피땀은 심장속에 새긴

병사의 걸음새로

내 언제나 정보로 걸어가거니

아, 제대군인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가는

성스러운 나의 길에

바치는 힘이 진할수 있으랴

강산을 울리는

총진군의 북소리

날마다 기적을 낳으며 솟아오르는

조국의 그 무수한 위훈의 봉우리들이

나를 부른다

나를 세워준다

아, 제대군인의 이름으로!

청년분조원들에게

이슬젖은 발두렁에 첫자욱을 찍으며
그대들 걸어가는 발자욱 따라
농장의 새날이 밝는다
해종일 들판에 어우러지는
그대들의 웃음소리에 실려
별이 푸르려진다

즐겁다
저물도록 발머리를 떠날줄 모르며
넓혀갈 기계화포전을 두고
불같이 주고받는 그대들의 목소리에
별이 웃는다 노을이 불란다

배움의 교실에 울리던 종소리
오늘은 전야의 동음소리로 들으며
고향별에 함께 뿌리내린
그대들은 오늘도 다정한 한반

은하리에 돋은 별을 생각하며
희망의 갈림길에서
푸른 꿈이 손짓하는 푸른 들을 향해
웃으며 떠들며
어깨걸고 온 날은 언제였던가

큰 열매를 주렁지워
고향땅에 더 풍요한 가을을 불러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리라
하나의 불타는 그대들의 마음

얼어드는 령상모 애어린 잎을
우등불로 녹이며 지새우던 밤이여
과학농사, 기계농사의 새 두렁을 지으며
진눈까비 날리는 벌에서 맞은 새벽은 얼마였던가

새벽이슬을 털며 울려퍼지던 웃음소리
저 벌 끝까지 찍어간 그 무수한 발자욱
아, 하늘높이 치가린 로직가리를 바라보며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대들의 어깨는 땅과 함께 실팍하게 자랐구나

자랑차다
부푸는 청춘의 희망을 대지우에 펼쳐놓고
뜨거운 땀방울로 가꾸며 주렁지우며
은혜로운 조국에 황금난가리를 바쳐가는
그대들은 청년분조원!

온 나라가 그대들을 바라본다
포기마다 이랑마다 벌 가득히
기계농사 과학농사의 새날을 펼쳐가는
그대들의 노래를 듣는다

아, 조국의 대지는
얼마나 성실한 새 주인들을 맞았느냐
그대들 몰아가는 트랙포르 차창너머
푸르싱싱 젊어지는 들이 비껴온다
찬란한 미래가 마주 웃는다

귀 향

백의선

그립던 고향 향구-

다정한 손길에 받들린듯

노을 물든 물결우에 두둥실

나의 선단 돌아왔어라

어찌하여 이 시각

어머니를 부르며 트랙으로 뛰어들던

어린시절 철부지 마음이 앞서는것인가

은빛 물머리 높이 쳐들고

기슭으로 달려가는 저 파도되어

어서 안기고싶어라 오, 조국의 기슭이여

수없는 날과 날

수없이 해돋이를 맞으며 온 길

정든 거리 한복판에

우리러 높이 모신 수령님의 동상이여

해돋이 그 지점에 내 지금 서있구나

대양길에 가꾸고 가꾼 조국의 진달래를

아름안아 수령님 앞에 드리고싶어라

내 어찌 잊었으랴

이국의 먼 기슭에 닳을 내릴 때

어머니의 손벽에 맞춰

첫걸음마 떼던 정든 옛집을

딩굴며 꿈을 키운

따스한 모래불우의 나의 작은 발자국을

이보다 더 귀중한곳 나는 몰랐어라

어디를 보아도 대양의 파도소리 높았건만

내 가슴엔 못건디게 울려왔노라

저 산기슭의 시내물소리

낮선 땅 불야성은 내 쉬이 잊었건만

두고두고 못잊었노라

고향바다 낙지배들의 초롱불빛들은

조국이란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이 땅에서는 가장 평범했고 레사롭던 날도

멀리 가면 가장 빛나는 추억으로 살아나는것인가

한줌의 흙에도 한떨기의 꽃에도

나를 키우신 수령님의 사랑 깃들어있어

세상은 한없이 넓고넓었어도

그보다 더 넓은 사랑의 세계가

나의 조국이였구나

대양우에 길은 수천갈래

수없는 등대불 길을 밝혀도

우리를 이끈 오직 하나의 등대불은

내 조국의 사랑이었나니

내가 보라는듯

향기로운 열매 설레이는 과일

나를 부르는듯

활짝 열린 은빛 창문들

내가 들으라는듯

울려오는 노래소리 웃음소리

조국이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나라여

못견디게 보고싶던 그 모습

참말로 눈앞에 솟아오르니

가슴 후련히 볼수 없구나

앞이 흐려지여

앞이 흐려지여

멀고먼곳에서도

조국의 진달래로 피어나던

변함없는 하나의 마음

수령님을 우리러 끝없이 설레이나니

아, 파도를 헤친 우리의 길 이 순간을 위해

있었노라

아들에게

리근지

맑은 하늘가 아득한 덕우에서
나는 발을 간다
올해에 중학을 졸업하고
프락포르운전수가 된 아들과와 함께

보습끝에 물결치는 살진 밭이랑
이랑우에 서려오르는 봄아지랑이
프락포르 물아 한굽이 돌아드니
마주오는 또 하나의 프락포르, 아들의 맑은
눈동자...

생각나누나 노래 즐겁던 너 유치원시절
내 앞에 그림책을 펼치던 그날이
풍요한 벌 달리는 프락포르며 제초기
눈빛을 반짝이며 너는 물었다
우리 마을 뒤산 밭들엔 프락포르가 왜 없는가고

나는 아들의 생각이 철없어서
손가락으로 불우물을 꼭 찢어주었다
프락포르가 보습날을 델수 없는
험한 산경사, 비탈진 밭이랑
나의 눈앞엔 첩첩한 산발만이 다가섰더니

아, 철부지 부푸는 꿈이 아니였구나
그 어느때든
프락포르가 못오르리라던
이 산촌 다락밭에도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기계화의 새봄이 왔거니

내 아버지에게서 넘겨받은건
비좁은 비탈밭, 땀젖은 가대기였다만
너는 로동의 첫걸음부터

종합적기계화가 꽃피는 이 등판에
그림책속의 프락폴을 끌어내다 물고있구나

봄하늘가에
은방울을 굴리는 새무리들과
그 무슨 즐거운 이야기라도 나누느냐
환희에 찬 그 마음
황홀한 꿈길을 날아가느냐
또 한굽이 돌아서는 나의 아들이
네 모습 안아보는 내 가슴 뜨거워오는구나

네가 그림책을 펼치던 그날
대답조차 찾을수 없었던 이 아버지를
탓하지 말아다오
아득한 이 덕우에
프락포르발동소리 울릴줄 어찌 알았으랴

아, 산촌에 묻혀
가대기를 끌며 자란 내 어릴적
산은 첩첩
그들도 첩첩
구름만이 넘놀던 이 막바지에도
아버이 수령님의 사랑은
위대한 전변의 세월을 불러오셨거늘

환희에 넘치는 봄날이다
해빛은 이 산촌에 가득했구나!
아들아
더 힘있게 운전대를 틀어줘여라
프락프르를 몰아가는 너의 앞에
다시 펼쳐진 이 땅의 미래는 얼마나
황홀한것이라!

어머니의 마음

류정옥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동안 이제는 만시름을 놓으며 다 키웠다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나역시 자식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이런 집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아보는 때가 있다.

물론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시름씩 놓는다.

않지도 기지도 못하던 하나의 생명이 걸음마를 떼고 제손으로 숟가락질을 하게 되면 어머니는 그만만 해도 다 키웠다고 한시름 놓는다.

유치원을 거쳐 중학교를 졸업할 때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한다.

(저만하면 다 키운셈이지.)

그러나 그것은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다심한 녀를 해야 하는 때가 지났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생각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나는 자식들이 또 어머니로 되고 아버지로 될때면 그들에 대한 근심을 놓아도 될것이라고 믿어왔다.

나에게 있어 그런 시절은 앞에 있다.

그때면 그들은 사회성원으로 자기 몫을 당당히 차지하고 혁명에 리익을 주는 성실한 일군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다.

자식들이 이처럼 성실한 사회성원이 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머니로서의 기쁨은 한량 없을것이며 이제는 자식에 대한 근심이 없어지리라 믿어온 나였다.

나의 이런 생각이 짧은것이였음을 깨달게 해준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생활에서는 때로 하나의 사소한 사건속에서도 충격을 받고 자기자신을 돌이켜보는 때가 있으며 자기가 세운 생활의 목표를 검토하여보는적이 있다.

나도 바로 얼마전에 전혀 예견하지 않았던곳에서 심각한 충격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과 생활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그때 받은 충격을 나는 지금도 잊을수가 없다.

나는 얼마전에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는 어느 한 공장에 나간적이 있었다.

봄도 이제는 며칠 남지 않은 더운 날이었다.

신록이 짙은 공장구내는 공원처럼 아름다웠다. 곳곳에 꾸러진 화단들에는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눈앞으로 시원하게 뻗은 아스팔트로 포장한 길 좌우편에 서있는 나무들도 무성한 잎새로 덮여있었다.

산뜻하게 칠을 한 공장건물들에서는 소음이라기보다 걷는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은은한 음악이 들려오고있었다.

일새 무성한 나무들속에 잠긴 공장건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걷는 나의 머리속에서는 감회깊은 추억이 떠올랐다.

소년단넥타이를 매고 이곳에서 폐허를 메꾸느라 소랭이를 머리에 이고 깨진 벽돌이며 흙을 나르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때가 있어본적이 없는것 같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장구내길을 걸었다.

넓은 구내에는 이 공장 로동계급의 자랑찬 성과를 그대로 말해주는 대문짝같은 속보들이 나붙어있었다. 나는 그 속보들에 실린 소식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다.

그 속보의 대부분에는 공장의 령장고직장에서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소식들이 실려있었다.

공장관리성원들은 물론 공장주변 인민반 아주머니들도 공장의 생산을 지원하고있었는데 그들도 대체로 령장고직장과 생필직장으로 쏠려있다.

나를 안내하던 공장신문주필은 그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2배로 늘인 이달 계획을 마감하기 위해 온 공장이 들끓고있다는것이다.

바쁜 대목에서는 어느 공장에서나 볼수 있는 생활이지만 나는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으리라는 흥분이 앞섰다.

《참 좋은 때에 오셨습니다. 요즈음 우리 공장엔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나의 속심을 알아보았는지 신문주필은 앞질러가며 부추겼다.

《령장고직장으로 말하면 10여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 터전을 잡아주시고 설계방향까지 주

신 직장입니다.》

신문주필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원래 하나의 뿔장고작업반에 불과하던것을 현대적설비들을 갖춘 년산 만여대가 넘는 생산능력을 가진 직장으로 훌륭히 꾸려주시였고 현지지도를 나오실 때마다 생산품을 보아주시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였다.

인민생활의 구석구석을 해아려보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번에 또다시 공장책임일군들을 부르시여 뿔장고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걸리고있는 모든 문제들을 신속히 풀어주도록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여기에 가슴뜨거워진 노동자들은 네일 내일이 따로 없이 모두가 떨쳐나서 련속적인 혁신을 이룩하고 있었다.

신문주필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으며 뿔장고직장 쪽으로 가는 길모퉁이를 에돌다가 나는 눈앞에 다가드는 하나의 속보판을 보고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지배인동지의 어머니가 뿔장고직장을 도와 매일과 같이 공장으로 나온다는 내용이었다.

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있는 나를 의미있게 바라보던 신문주필은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아들인 지배인이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뿔장고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한 과업을 받고 현장에서 침식을 하다싶이 하자 어머니는 말없이 매일과 같이 <출근>을 한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소행에 벌써부터 가슴뜨거워짐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지배인의 어머니라면 년새가 적지 않겠는대요?》

《예순이 지난 어머니지요. 하지만 아직 정정하시답니다.》

나는 많은 공장들을 다녀보았고 지원자들도 적잖게 알고있지만 기업소를 책임진 지배인의 어머니가 아들을 도와 현장지원을 나오고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된때문에 어머니에게 더 큰 관심이 쏠렸다.

《부도만한 자식은 없다더니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념려가 보통이 아니군요.》

《그렇만도 하지요.》

신문주필은 어머니의 래력에 대해서까지 간단히 말해주었다.

《젊은 홀어머니로 외아들을 키웠지요. 화전민이던 남편을 일제놈들의 <토벌>에 빼앗긴후 철부지외아들을 기둥삼아 살아온 어머니입니다. 해방

을 맞아 땅을 분여받고 아들은 중학교에 보냈지요...

포화에 그슬린 배낭을 메고 전선에서 돌아온 아들은 대학을 나와서 기사로 됐고 직장장으로부터 부기사장, 기사장, 지배인으로 자랐지요. 밑에 실정을 잘 알고 풍부한 경험과 체험을 쌓은 빈틈없는 기술자이며 실력가랍니다.

지배인이 된후 전기일용품생산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수차례 받았으며 그 관철에서는 언제나 헌신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랄데 없는 지배인이며 어머니로서야 외아들 키운 보람을 가슴부풀게 느끼며 자랑할만한 아들이지요.》

정말로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아들이였다. 그런 아들을 두고도 마음을 쓰는 어머니의 깊은 심중을 들여다보고싶은 새로운 충동을 느끼며 나는 물었다.

《이제 가면 어머니를 만날수 있겠지요?》

《아마 한참 찾아야 할겁니다.》

《무슨 일을 하시길래요?》

신문주필은 의미있는 미소를 짓더니 대답했다.

《사실 어머니 뿔장고부속 이름 하나도 제대로 받아외우지 못하십니다. 무슨 기술이나 기능 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작업장이나 안가시는데가 없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알수 있는 일은 다 찾아 하신답니다.》

나는 신문주필의 말을 들으며 생각되는바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넌로하신 어머니로선 너무 과중하지 않으세요. 보고만 있는 공장일군들에게 책임이 있는것 같군요.》

《허허... 책임이 있습니다... 참 딱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자청해나오는것을 억지로 막을수 없어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전동기 절지들이나 접으라고 《분공》을 해도 잘 안된다는것이다. 처음 얼마동안은 딱해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원래 한자리에 앉아배기지 못하는 성미라우.》 하고 대수롭지 않게 밀어놓곤했다는것이다.

《그런대로 며칠이 지난후 그만 쉬기를 다시 권했을 때 어머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대답을

<내가 자네들을 돕는데야 얼마나 돕겠나. 실은 내가 자네들을 도우러 나오는게 아니야, 털어놓고 말하면 지배인을 감독하려는 마음이지>...》

나는 신문주필의 말을 끊으며 물었다.

《지배인을 감독하다니요?》

《글쎄말입니다.》

주필은 빙긋이 미소를 지어보였다.

《랭장고직장으로 가시면서 마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야 나는 아직 속보판앞에 서있다는것을 깨닫고 걸음을 떼었다.

《지배인을 감독한다는게 무슨 말인가고 내가 물었더니 어머니는 대답하시기를 <지배인이라구 결합이 없겠나?> 하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음 말을 하시더군요.

<있어두 큰 결합이 있다우. 자네들은 모를거요.

그 결합은 그 사람을 키운 나만이 잘 아는것이 라우.>...

나는 점점 뿔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못 심중한 어조로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내 탓이기두 하우. 애비 없는 외아들이 라구 있는 사랑 없는 사랑 다 쏟으며 그 하나만을 떠받들어 키웠다우... 사랑을 받는데만 익숙했지 사랑을 주는데는 부족점이 많다우. 물론 당에서 하 교양을 잘하니 별루 파오같은걸 저지르는 일이야 없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대하는 일군으로서야 부족한 사람이지.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가는 사람이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없이야 자기 책임을 다 할수 없지.》

나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요구에서 보면 우리 일군 누구에겐들 결합이 없겠습니까.》

신문주필은 동감을 바라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옳은 생각이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며 자기 사업에 구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버이수령님께 충직한 일군이 될수 있으며 인민의 총복자로 될수 있겠는가.

나는 깊은 감동에 잠겨 머리를 끄덕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하는 길에서 아들을 끝까지 보살피려는 우리 시대 어머니의 심정앞에 나는 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이 제일 오래 기억하고있는것은 어머니가 해준 말씀, 어머니의 모범입니다. 어머니가 준 인상은 사람들의 성격과 습관을 이루는데 중

요한 영향을 줍니다.》

어머니는 지배인을 걱정한다.

지배인, 그는 준비된 책임일군이다. 수천명의 종업원들과 방대한 나라 살림의 한부분을 책임진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흔히 청년시절에 가질수 있었던 자유주의와 기본주의, 주관주의 같은것도 다 눌러대린 수양된 사람이며 당이 이끌고 가리키는대로 일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배인을 걱정한다.

열을 주시고는 백을 주시고싶어하시고 백을 주시고는 천을 주시지 못해 애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우리 인민에 대한 사랑을 받들어가야 하는 아들의 사업에서 사소한 흠집이라도 생길가보아 걱정한다.

어머니로서는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 아들의 약점, 사랑을 받는데만 습관된 그가 아래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나 한대의 랑장고를 대함에 있어 뜨거운 애정 없이 대하지나 않는가를 녀려한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녀려, 그것은 본능적인 것이면서도 보다는 크게 자식이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의 한길을 걷고 또 걷기를 바라는 웅심깊은 마음에서이리라.

그것이 우리 시대 어머니들의 본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느 어머니가 만사를 놓고 자식을 다 키웠다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어머니로서 나의 본분이 일정한 시기에 끝날수 있으리라던 나의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것이였다.

어머니로서의 나의 과정은 정할수 없는 기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계획에도 없었고 예견하지도 않았지만 지배인의 어머니를 먼저 만나보고싶은 충동으로 걸음을 빨리했다.

우리는 어느덧 랑장고직장앞에 이르렀다. 꽤 넓은 마당에는 포장된 랑장고들이 몇줄로 늘어섰고 한쪽에서는 이미 랑장고를 실은 자동차가 부르릉거리며 떠나고있었다.

나는 떠나는 자동차가 굽이길을 돌아설 때까지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싣고 인민들에게로 떠나가는 그 자동차에는 어머니의 사랑도 함께 실려가고있었다.

조국의 미소

리계심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그저 보고만싶어 그 자리를 뜰수가 없었다.

사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살아움직이는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예술적화폭이라 아니할수 없었다.

평양녀자옷공장에 현실체험 나갔던 나는 이 공장에서 만든 봄철 녀학생복을 학생들에게 입혀본다는 소식을 듣고 녀자옷상점으로 찾아갔다. 옷입어보는 칸에서는 고등전문학교와 대학의 녀학생들이 날아갈듯한 새 양복차림으로 서있었고 이 공장일군들 여럿이 품평회를 하듯 둘러서서 전문가특유의 눈으로 간간스레 살펴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활문화를 세우는데서 근로자들이 옷차림을 문화적으로 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전에없이 양복의 깃과 앞기슭에 흘러간 우아한 곡선에서 풍겨오는 세련미가 나의 첫눈을 끌었다. 밝은 곤색양복밑에 하늘색, 연두색, 감색 등 류달리 고운 색깔의 이쁘장하고 맵시있는 적삼을 받채입고 나선 녀학생들은 흡사 봄비를 맞고 갓 피어난 꽃처럼 청신하고 아릿다웠다. 함박꽃같이 복스러운 얼굴들이 거울앞에서 새옷을 입은 제 몸매를 비춰보며 얼굴가득 피어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어쩌면 저리도 환할가! 저 눈은 어쩌면 저리도 맑고 저리도 기쁨의 빛을 뿌리는것일가! 얼굴이 기쁨인지 기쁨이 얼굴인지 가려볼수 없는 그 미소는 사랑하는 막내딸의 응석처럼 내 가슴에 안겨왔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흐린 눈동자를 보지 못했고 설음으로 굳어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라난 새세대들이거니 너희들에게 차례지는 오늘의 이 기쁨이 어떻게 되어 해마다 폐사로운 년중행사처럼 찾아오는지 너희들은 아마 다는 모르리라...

핑그르 피여오는 이슬어린 눈길로 나는 그네들의 실하고 균형잡힌 튼튼한 몸매를 줄곧 쓰다듬어주고있었다. 구김새없이 마음껏 자란것은 그들의 건강한 체구뿐이던가, 그들의 슬기의 재능은 또 얼마나 자유로이 날개를 폈는가!

봉긋한 앞가슴의 품이며 힘있게 뻗어간 어깨의 선이며 잘룩한 허리품들을 바늘 한뜸 실 한오리 치수를 다루어가며 꼼꼼히 따져보는 피복일군들의 요구가 어찌나 높은지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나의 놀라움에 대답하듯 이 공장의 고급기능공 박수옥동무는 웃음을 머금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것이였다.

《이렇게 꼼꼼히 하노라 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그 높이에 이르자면 아직도 멀었는걸요.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교복견본을 죄다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학생들의 마음에도 맞고 발육에도 알맞게 학생복의 길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생각을 하면 그저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그 언제나와 디름없이 주체의 조국에서 창조한 문명을 제일 먼저 우리의 미래에게 안겨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에 가슴뜨거워 목메는 감정에 찾아온것은 끝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이였다.

그저 감사하다고 매양 덩석덩석 받아안기만 하는것이 제할바를 다 못한 어머니의 렬치없는 행동처럼 생각되였다.

나는 아이를 몇몇 길러왔지만 탁아소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기간에 걸쳐 단 한번도 학비를 근심해본적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옷에 대해서도 근심해본적이 없는 세상에 다시없는 행복한 어머니라는데 대해 세삼스레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첫아이를 처음으로 인민학교에 입학시킬 때조차 집에서 새옷을 해입히기 위해 특별히 마음써본적이 없었다. 우리 나라 그 어느 아이에게나 학교가 기다리고있듯이 그 언제나 철따라 새 교복이 아이들을 기다리고있었기때문이다.

대대로 우리 조상들은 가난을 타고난것으로 알고 누데기만 입는것을 팔자탓으로 여겨왔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번만이라도 무명옷이나마 새옷을 입어봤으면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을 그대로 가슴에 품은채 살아온것이 우리 인민이 아니였던가?

그러던 우리 인민이 언제부터였던가.

길가의 돌처럼 발부리에 채여 덩굴던 우리 어

린것들을 철따라 제일 좋은 명절옷차림으로 내세우게 된것은...

그 사랑의 역사를 더듬는 나의 가슴엔 전류와도 같은 짜릿한 아픔이 흘러가고 흘러왔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제를 타승한 우리 인민을 전후복구건설에 힘차게 불러일으키시면서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고계시었다. 로동자지구의 후방공급정형을 료해하시려 상점에 들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눈바람속으로 걸어오는 한 아이를 보시었다. 여러문살되는 아이가 입은 옷은 솜포단을 두른것 같은 후렁후렁한 솜옷이었다. 그것은 전선에서 싸운 아버지가 입고 돌아온 솜옷이라는것을 초연에 끄는 자리가 밀해주고있었다. 그 아이를 눈여겨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색은 흐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길로 강선중학교를 찾으시여 공부하는 아이들이 옷차림을 한아이 한아이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현지지도를 끝마치고 돌아오시는 차안에서도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실수가 없으시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 밀림의 눈보라만이 휘몰아치는 그 엄혹한 마안산골짜기에서도 혈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혔는데 아무리 폐허가 됐다 한들 나라가 있고 강토가 있고 인민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새옷을 못해입히다니... 바로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비날론의 연구성과를 그토록 목마르게 기대하지 않았던가! 오느르이 이 힘겨운 복구건설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것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이들에게 새옷을 해입히지 못한 어머니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였고 가정부인들의 마음의 부담과 바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하여 천으로 주지 말고 나라에서 모든 아이들의 옷을 만들어 공급해줄데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었다.

제 아이 하나의 옷도 못해입힌 그 사소한 일로 해서 복구와 건설의 거창하고도 장엄한 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그토록 심려를 끼쳐드린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교복을 받아안고 눈물에 젖어 어버이수령님을 부르고 또 불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눈부신 천리마의 대비약이 일어났고 사회주의 대건설로 폭풍같이 내닫는 주체의 우리 조국은 나라의 부강한 재부를 쌓아올리면서 그 강력한

경제력으로 세상에 부럼없는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추어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일 좋은 천과 옷모양으로 백두고원에서부터 분계선마을까지 한아이도 빠짐없이 여름이면 산뜻하고 시원한 옷을, 겨울이면 털목도리로부터 외투와 털신발 등으로 따뜻이 감싸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아이들이 입은 옷이 아이들의 마음에 들고 몸에도 꼭 맞는가를 매번 친히 알아보시기 위하여 저택정원에서, 사무실에서 때로는 몸소 학교에 나가시여 아이들의 옷대무시를 살피주시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것을 보시면 못내 기뻐하시던 어버이수령님! 해마다 철따라 내주는 옷의 색깔이 미처 날기도전에 보다 더 좋은 옷을 마련해주시려, 더 큰 기쁨만을 주시려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에 안겨있는것이 어찌 아이들뿐이라...

깊은 사색에서 깨어난 나는 새로운 눈매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제 차례를 기다리던 녀학생들이 거울앞에 다가서며 아름다운 차림의 제 몸매를 요리조리 비쳐보며 웃고있었다. 너희들의 그 기쁨의 빛을 뿌리는 눈동자, 얼굴에 물결치는 그 기쁨의 미소가 해빛같이, 공기같이 이 땅에 깃들게 하시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바쳐오신 그 로고의 자욱자욱을 너희들이 다 알기나 하는지...

인류사가 아직 모르는 그 중중첩첩한 가시덤불길을 한몸으로 헤치시며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그 어려운 역경속에서 안아오신 행복이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푸시는 각별한 사랑을 받아안을 때마다 이리도 목이 메고 이리도 송구하고 어떻게 보답했으면 좋을지 몰라하는 우리 부모들의 이 심정을 너희들이 얼마나 느끼는지...

너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새세대! 수령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미래를 사랑하시는분! 너희들의 오늘의 행복뿐만아니라 너희들의 래일의 행복까지 생각하시며 조국을 만년대제로 다져가고계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자애로운 태양의 품이라는것을 너희들도 날이 갈수록 더더욱 심장으로 느끼게 되리라.

애오라지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 충성이 해바라기로 피어나는 저 새세대들의 밝고밝은 웃음에서 조국의 모습, 조국의 미소를 보는 나의 눈에서는 그 무엇이랴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굴슬져내리고있었다.

편지에 대한 시

송명근

비, 비, 비...

전호우에 앉은 재가루

파헤쳐진 황토를 씻어내리며

그 언제 끝나려나, 고지우의 장마비...

폭탄과 폭우는 뒤엉켜 쏟아져

다리는 다리마다 무너앉고

길은 길마다 끊어지고

포연에 싸인 고지는 외진 섬인듯

폭풍을 안은 고지는 조용하다

비물이 가슴에 차는 전호속에서

제 이름 석자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맹세문에 엄숙히 적은

전사들

마지막 수류탄고리를 뽑아들고...

주먹밥을 씹으면서도

고지는 탄약, 탄약을 찾았다

야전전화기를 두드리며

소대장의 거센 목소리로

탄약, 탄약을 찾았다

때마침 도착하였다

우장을 덮은 자동차 한대

기쁨에 떨며

엎어질듯 전사들이 달려갔을 때

거기엔

우장포 열어제낀 거기엔

탄약과 후방의 위문편지가 한차...

손에서 손으로

참호에서 참호로

소년단원들의 정성어린 꽃봉투가 돌아다

고향집 어머니와 안해의 부탁이 왔다

장군님 주신 땅을 통채로 떠이고

장군님 주신 행복의 5년세월을 통채로 떠안고...

연필로 박아쓴 서툰 글발우에

목청높던 문맹퇴치의 밤이 어리고

편지의 글줄을 따라

기름내 물씬 풍기는 고향의 밭이랑이

물결쳐오고...

어느 전사는 주소를 다시한번 뜯어보며

꽃봉투를 군복설에 소중히 간수하였다

무엇으로 회답을 써야 함을 되새겨보며...

터지는 함성, 대드는 총창-

고지는 부르르 떨며 솟아오른다

파도처럼 밀려오던 미제 고용병들은

고지에 부딪쳐 물거품처럼 흩날려가고

시뻘건 진흙을 문채 꺼꾸러졌거니

그 누가 알았으랴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

강원땅에 전권위원을 파견하시며

위문편지를 조직해주셨음을!

무수한 어깨에, 마음에 받들려

끊어진 다리, 끊는 강물을 넘어온 한대의 차에

실어

온 나라 인민들을 고지우에 세워주셨음을!

이, 한치의 끄덕없는 고지-

사단이 지켰던가, 군단이 지켰던가

수령님에 대한 충성으로 하여 불굴한 전사들과

함께

줄지 않는 탄약과 지원병이 대오가

참호속에 있었다!

포화속을 헤쳐온 기발앞에서

리 봉

이젠 취재도 적지않게 한터여서 것처럼 많은 호실들의 전시품들과 사진, 그림들에 이르기까지 어느때든지 방불히 그러볼수 있게 되었고 적기에 갖는 불멸의 이야기들에 끝없이 흥분하여 밤이 지새도록 모태기군하지만 나는 여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자주 찾아오군한다.

무엇인지 많이 보고 듣고 알아야만 좋은 글을 쓸수 있다는 신조에서 생긴 직업적의무감에서만은 결코 아니다.

생활에선 흔히 보면 볼수록 더 보고싶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싶은 때가 많다.

그러나 내가 늘쌍 보고싶거나 듣고싶은 이 이야기는 그 어느 한때가 아니라 항구적이라 할것이다.

때문에 나는 자주 여기를 찾아 한곳에 오래 머물러 있군한다.

여기에 바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351고지는 내줄수 없다》고 지껄이면서 《철벽의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로 믿고 도사리고있었던 미제승냥이놈들의 머리에 보복의 징벌을 안기고 고지를 단숨에 탈환할 때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진두에 날리던 공화국기발이 있다.

기발은 총탄과 파편에 갈가리 찢기고 포화에 끄슬려 말할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기발앞에 섰노라면 항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조선의 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했던 인민군용사들이 피로써 새겨놓은 슬기로운 영웅서사사가 그대로 울려나오는듯 싫어진다.

또한 김인택, 김룡택, 이정수 등 불사신처럼 싸운 수많은 영웅들과 전투원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 한없이 숭고해진다.

뉘라 없이 같은 심정이겠지만 나의 경우 더욱 절절하다.

얼마전까지 나는 그들이 빼앗은 고지에서 그들이 겨누었던 목표를 겨냥하고 영광의 초소에 서 있었다.

했기에 나는 351고지에 자라는 풀 한포기와 나무 한대, 조약돌 하나에서도 그들의 숨결을 뜨겁게 느낄수 있었으며 초소를 옮긴 지금에도 이러한 자주 기념관을 찾아 이 기발앞에 오래도록 머

물려있는것이 습관으로 되었다.

그러면 자신이 지난날 한 일을 두고 심심히 자책도 하게 되고 마음의 신들메를 더욱 든든히 조이게도 된다.

과연 람홍색 찬란하던 공화국기발이 이렇듯 총포탄에 끄슬릴 때까지 우리 인민군대 전사들이 이 기발을 휘날리며 온 수천수만리 길우에는 얼마나 영광찬란한 위훈과 업적이 빛나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장병들이 전투에서 발휘한 허다한 영웅성과 용감성은 그들이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니고 있는 자기들의 성스러운 의무를 철저히 자각하고 있으며 그것을 빛나게 수행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351고지의 김룡택영웅》하면 원쑤의 불구멍을 가슴으로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고 고지우에 공화국기발을 높이 날리게 한 불멸의 위훈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있을것이다.

그러나 영웅의 가슴속에 간직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의 깊이까지는 다 모를것이다...

전투에 앞서 전투원들에겐 하루 폭 휴식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수십일에 걸치는 모의훈련과 전투준비에서 피로한 전투원들은 휴식이 선포되자 은폐호의 잠자리에서 샘뽕종계 코를 끌기도 했고 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룡택영웅만은 전호가에 나가 배를 땅우에 대고 적들이 도사리고있는 351고지너머 저멀리 남녘의 하늘가를 바라보고있었다.

편지를 써야 갈길조차 막혔고 아무리 잠을 청해도 눈앞만 새록새록해지는것이였다.

이제 밤만 되면 고지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니 흥분부터 앞서는것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그의 고향은 351고지를 넘어 얼마 못미처 있는 삼척군의 한 농촌마을이다. 고향에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다.

고향을 그러볼수록 영웅의 가슴엔 혈육의 따뜻한 정이 한없이 습배여들었다. 하긴 11살 어린 나이에부터 어머니, 동생들과 떨어져 살지 않으

면 안되었던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혈육의 정을 나누어본것은 잠깐 사이였다.

어느해 겨울 밥벌이를 떠났다가 병을 만나 돌아온 아버지를 위해 끈 빗때문에 영웅은 아버지가 돌아가자 지주 양가놈의 집에 머슴으로 끌려갔었다.

날이 갈수록 새끼치기 마련인 돈 20원을 도저히 갚을길이 없었던것이다.

소나 말보다도 더 천대하며 뼈빠지게 부려먹는 양가놈의 착취적비행도 비행이지만 기한을 다 살고도 다시 종신머슴이 되어야 했던 기막힌 그 일들을 어떻게 잊 으랴!

룡택영웅이 양가놈집해서 한 일은 마당안팎을 청소하고 뿔나무를 해오고 소뎌지를 먹이는 등 주로 잡일이였다. 때문에 그만큼 더 고달팠다.

바로 기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그해 여름이였다.

사랑하는 어머니, 동생들과 굶어도 같이 굶으며 의지하여 살게 될 그날이 가까와올수록 룡택영웅의 마음은 마냥 날듯싶었다.

룡택영웅의 마음을 알아차린 지주놈은 가슴이 아팠다. 이젠 나이도 적지 않게 든 상일군을 놓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밥맛마저 잃어졌다.

머리를 싸매고 며칠간 끙끙 앓던 그놈은 그럴듯한 일을 고안해냈다.

어느날 사위에 땅거미가 깃들 때였다.

꼴을 베느라 정신없이 땀을 흘리던 룡택이가 소를 찾으려 하니 없었다.

영웅은 온 벌을 찾아 헤맸다. 대답못하는 집집승인줄 번연히 알면서도 《누렁아, 누렁아!》하고 목이 터지도록 불러보며 마을이며 산골짜기를 방황했으나 소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있을리가 없었다.

기회를 엿보던 양가놈이 룡택이가 소를 놓고 풀베는데만 정신이 팔린 그 사이에 소를 몰래 끌어다 팔아치웠던것이다.

그리고도 양가놈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룡택영웅을 운신 못하도록 때리고도 성차지 않아 재판에까지 걸어 소대신 종신머슴을 살도록 하였다.

지주놈이 소를 판것을 룡택영웅이 알게 된것은 얼마후였다.

그러나 어쩔수 없었다. 재판소에 송사했으나 놈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재판소의 일제놈들은 이 일이 있기전에 양가놈으로부터 목돈을 먹었던것이다.

그렇듯 우리 인민은 눈을 가지고 번히 보고도

못본것으로 되어야 했고 입을 가지고도 말할수 없었다.

나라가 없었고 주권이 없었던 탓이였다.

그것은 일제놈들이 망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일제놈들을 대신하여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은 더욱 포악했다. 얼마동안 기가 죽었던 지주놈 또한 더욱더 미쳐날뛰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광명의 해발이 비쳐들었다.

우리 인민군대에 의하여 고향이 해방되자 그도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기게 되었던것이다.

룡택영웅은 비로소 지주놈집에서 풀려나와 어머니와 동생들과 땅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혈육들과 누린 그 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으며 보람찼던가. 이 크나큰 행복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셨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목숨도 청춘도 두려울것이 없다.

때문에 그는 인민군대에 탄원하여 총을 잡았다.

그 행복을 영원히 지켜야 했던것이다.

그런데 고향은 다시 미제승냥이놈들의 피묻은 구두발밑에 무참히 짓밟히지 않았는가.

했기에 그는 돌격으로 부르는 붉은 신호탄이 하늘높이 포물선을 긋자 그 어느 전투원보다 먼저 출발선을 차고 일어나 앞장에서 내달렸다.

놈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놈들은 조명탄으로 고지일대를 대낮처럼 밝혀놓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쏘아대는 포사격의 지원을 받아가며 벌동지처럼 만들어놓았던 화점들에서 불줄기를 내뿜치기 시작했다.

은폐되어있던 철조망마저도 불쑥 나타나 전사들의 돌격로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전투원들은 추호도 굴하지 않았다.

철조망이 나타나면 즉시에 자기 몸으로 덮여 다리가 되어 전우들을 등우로 건네보내는가 하면 화점이 막아서면 수류탄으로, 그것도 안되면 육탄이 그대로 폭탄이 되어 화점을 부시며 대오의 진군로를 열어주었다.

김인택영웅이 벌써 가장 요진통의 화점을 그렇게 박산내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피로써 열려지는 돌격로를 따라 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비호처럼 전진하던 분대장이 문득 그 자리에 었드렸다.

은폐되어있던 비밀화점어 바로 코앞에서 돌연히 나타났던것이다.

그대로는 한치도 전진할수 없는 다급한 정황이

였다.

분대장을 따라 었드린 전투원들의 머리우에선 우박으로 쏟아지는 총탄아래서도 공화국기발만이 거연히 나뭇기고있었다.

정수분대장의 바로 옆에 었드린 룡택영웅의 시선은 기발에 머물렀다.

그의 마음은 조금해지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중대전투원들의 진두에서 힘있게 나뭇기던 이 기발이 여기에 머물러있어야 한단말인가.

기발의 전진은 그대로 고향으로 가는 길을 그만큼 줄여주었고 사랑하는 혈육들과의 상봉의 그날을 앞당겨왔었다.

저 공화국기발이 자기 고향마을의 하늘가에 나뭇겼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목메어했던가. 서로 열싸안고...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러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해방의 감격을 뜨겁게 나누지 않았던가,

고향의 그 사람들, 아니 남녘의 그 형제들이 이 기발을 얼마나 기다리고있으랴, 기발을 우리르던 영웅의 눈길은 언뜻 분대장의 시선과 부딪쳤다.

불이 펄펄 일고있는 분대장의 눈동자에서 룡택영웅은 단신 적화구제로 육박할 단호한 자세를 읽고도 남았다.

그 화점을 결코 분대장에게 맡겨둘수는 없었다.

《분대장동지, 분대장동지에게는 고지우에 공화국기발을 꽂을 임무가 있습니다. 동무들! 돌격, 앞으로!》

금시 몸을 솟구려는 분대장의 앞을 박은 룡택영웅은 이렇듯 불같은 웨침소리를 남기고 맹호처럼 몸을 날려 적화점을 향해 련속 수류탄을 뿌렸다.

그러나 화점은 계속 살아있었다.

수류탄도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한단말인가.

등잔불의 심지처럼 속이 바질바질 타오르기만 하던 그의 마음은 갑자기 평온해지였다.

하늘땅을 뒤덮을듯 날아와 터지는 포탄소리를 비롯한 그 모든 전투의 소음을 누르며 그의 눈앞에는 오직 해방된 조국에 장군님을 높이 모시기 위해 한몸을 서슴없이 바친 항일빨치산영웅 김진동지의 모습과 함께 남녘해방을 위해 위대한 수

령님께 가장 충직했던 수많은 영웅들의 군상이 승엄하게 살아났다.

(나도 그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할 때는 이때가 아닌가?)

《김일성장군 만세!》

룡택영웅의 뜨거운 심장에서 우리나라 만세소리는 전우들을 용맹스러운 돌격으로 호소하며 멀리로 메아리쳐갔다.

고지에는 다시 돌격의 함성이 높아졌다.

김룡택영웅이 피끓는 가슴으로 원쑤의 화점을 꺾어버렸던것이다.

이리하여 푸른 물결 출렁이는 천리동해의 한 기슭에 거연히 솟아있는 351고지령마루우에는 영웅의 넋을 담은 오각별 찬란한 람홍색 공화국기발이 높이 휘날리었다.

실로 공화국기발은 전사들을 위훈으로 부르던 힘의 화신이였으며 용맹의 나래였다.

그러나 혁명의 준엄한 불바다를 뚫고 전사들의 손에손을 거쳐 이어받으며 달려오던 기발은 아직 휘날려야 할 어머니조국땅의 한부분을 앞에 놓고 여기에 전시되어있다.

때문에 이 기발은 무시로 나를 이곳으로 불러오는지 모른다.

그렇다, 영웅은 비록 쓰러졌어도 영생하는 삶의 노래를 천만사람들의 심장에 새기고 갔으니 그 노래와 더불어 한생을 살리라는 충만된 결의가 우리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은 이 기발앞에서 영웅이 겨누었던 혁명의 파력을 다시한번 똑바로 겨냥해보며 영웅이 달려가던 곧바른 그 길을 두고 마음의 신들메를 조이고 또 조인다.

기발이 없고 주권이 없었던 그날에 사무치게 겪어야 했던 쓰라린 노예살이의 운명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어찌 그대가 피흘려 지킨 이 땅우에서 행복만 행복이라고 누리고있으랴.

영웅이 잡았던 그 총을 잡은 우리가 영웅이 남기고 간 숭고한 뜻, 조국통일의 리념을 기어이 기어이 꽃피워야 한다.

그리하여 멀지 않은 래일에 온 겨레가 위대한 김일성원수님을 아버지수령으로 높이 모실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영웅적조선인민의 기상을 온 세상에 길이 빛내야 할것이다.

사과꽃이 만발할 때

탁숙본

어느날 평양-개성행 열차를 탔던 나는 차칸에서 우연히 병사시절에 낮을 익혔던 한 지휘관을 만나게 되었다. 지금은 중좌였다.

우리는 서로 마주앉아 달리는 열차의 단조로운 차바퀴소리를 들으며 지나온 생활의 이야기들을 더듬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들의 추억은 더욱 감회깊이 이끌려들어갔다. 차창밖으로는 봄날의 평범한 풍경이 흘러가고있었다. 20여년전, 우리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밀창이 거의 다 드러났을 때였다. 잠시 침묵을 지키고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중좌는 갑자기 몸을 반쯤 일으키며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의아하여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사과꽃이 흰 구름처럼 핀 파수원이 흘러가고있었다. 야산기슭으로부터 꼭대기까지는 길이 미치는곳은 온통 사과나무천지다.

나는 사과꽃이 만발한 그 파수동산의 풍치에 그만 반해버리고말았다.

나는 출장차로 여기를 여러번 지나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이 시각처럼 파원이 아름답게 느껴진 때는 아직 없었다. 하긴 그것은 파원에 대한 중좌의 감회깊은 추억때문인지도 모른다.

중좌는 말했다.

《전쟁때 우리는 저기 저 둔덕에서 싸웠소. 그 때 새빨간 불머리산이었는데...》

하면서 중좌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이고장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실로 조국땅 그 어데나 영웅전사들의 불멸의 위훈이 아로새겨져있지만 이제껏 자주 보면서도 무심히 스쳤던 이 파원에 그런 사연이 깃들어있을줄이야, 마침 기차가 역에 서게 됨으로 하여 나는 마음껏 파원을 살피며 생각에 잠길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인민민주주의제도를 피로써 지키려는 확고한 결의에 충만된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지도밑에 미제침략군을 조국강토에서 하루속히 몰아내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싸웠으며 무비의 영웅성과 불굴의 투지를 발휘하였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지금의 중좌는 빨간 견장을 어깨에 붙인 홍안의 전사였다.

준엄한 공방전의 나날에 한개 분대로 두개의 적중대를 막아내야 했던곳이 저기 사과나무 설레이는 둔덕이였다.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결사전으로 나가던 전우들이 몽당연필로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 토박토박 맹세문을 써올린곳도 바로 저 둔덕이였고 결사전의 그 시각 다섯명의 전우들이 적땅크를 향해 달려간곳도 저 사과나무꽃이 만발하 둔덕이였다.

힘겨운 전투였다.

아바이상등병과 홍안의 전사만이 남게 되었다. 그때 아바이는 전사의 부상당한 다리를 처치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전사는 몸부림쳤다.

《놓으세요, 아바이 놓으란말이에요. 개놈들이 오고있어요. 놈들의 땅크가 오고있어요!》

벌써 전사는 이 말을 몇번이고 입밖으로 뱉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름진 아바이 얼굴엔 엄하기보다 말로는 표현키 힘든 격렬한 감정이 어리군하였다. 사랑하는 자식과도 같은 어린 전사에게 아바이는 제 심정을 말하기엔 정황이 너무도 긴박했었다. 그러나 담배 한대를 붙여 문 아바이는 땀과 먼지로 얼룩진 내의를 찢어 아직도 피가 스며어나오는 전사의 부상당한 상처를 덧동여주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꼬마전사를 으스러지게 끌어안았는데 그때 전사의 눈에는 짜릿한 충격으로 하여 뜨거운 것이 피여올랐다.

그것은 제일 값진 삶을 느끼는 짧고도 짧은 순간이 야속했기때문이었던지 아니면 그것이 아바이와 마지막이라는것을 룡감으로 느꼈기때문이었던지 이윽고 아바이가 비호처럼 달려간곳에서는 요란한 폭음이 일었다. 《아, 아-바-아이-!》 전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아바이를 불렀다.

그런데 그뒤에 또 한대의 가증스러운 놈들의 땅크가 꿈틀거리며 다가오고있을줄이야, 조금전 전사가 가야 할 길을 행동으로 보여준 아바이전사며 전우들의 영웅적행동은 어린 전사의 심장에 힘과 슬기로 소용돌이쳐 도저히 몸을 움직일수 없었던 전사였건만 수류탄을 틀어쥐고 앞으로 한

치 또 한치 기여나가게 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놈들의 땅크를 향하여 수류탄을 뿌렸소.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는데 후에 나는 우리를 지원한 아군에 의하여 구원되어 정신을 차렸소. 그때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과실의 바다가 됐구만. 하긴 세월이 많이 흘렀지. 참 모든것이 놀랍게 달라진 현실이요.》

이렇게 말끝을 맺은 어제날의 전사는 깊은 감회에 잠긴채 차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나는 아무말도 못하고 중좌의 말에 온 넋을 빼앗긴채 앉아있었다.

차창밖에서는 좌- 좌- 하고 파원이 바다처럼 설레이고있었다.

종일 변함없이 따뜻한 해빛을 창가에 정답게 던져주던 해가 이제는 지쳐버리길라도 했는지 이름모를 산뒤로 얼굴을 감추어버리자 서쪽하늘엔 아름다운 노을이 배경판처럼 장엄하게 일떠선다.

아, 저 장엄한 정경을 배경으로 하여 아름다운 파원에서 웃는 얼굴들이 사파나무들 가꾸고있지 않는가.

꽃수건을 머리에 쓰고 사파나무를 에돌며 나무를 손질해가는 처녀들의 모습은 꼭 하나의 진한 그림과도 같이 눈길을 잡아끌었다.

얼핏 귀기울이면 파원의 창공으로는 처녀들이 뿔아올리는 고운 목소리들이 밝은 구름을 따라 들려오는것 같기도 하고 또 얼핏 눈을 들어 바라보면 부지런히 가지를 에도는 처녀들의 모습이 어느 가극에서 본 선녀들의 춤을 방불케도 했다.

아, 적땅크, 그것은 맞받아간단 아바이전사며 꼬마전사, 폭음, 파편, 먼지기둥, 그들이 흘린 피, 행복을 가꾸어가는 저 너인들, 붉은 빛 질은 장엄한 노을... 정녕 이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의의있고 소중한것을 뚜렷이 보여주며 또한 귀중한것을속삭여주는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느라니 지난 시기 수없이 오가면서도 레사로이 보아오던 과수원이며 저녁노을조차도 이 시각엔 어쩐지 전혀 평범히 보이질 않았다.

불에 타는듯한 저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노을은 결전의 시각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했던 전사들이 흘린 의로운 피로 하여 오늘도 저처럼 붉게 피어오르는것이나 아닐가.

가극의 한토막과도 같은 저 매력적인 현실은 눈송이같이 흰 꽃들이 만발한 저 아름다운 기슭에 지금도 잠들어있을 전사들, 이제라도 부르면 금시 몸을 털고 일어나 달려올듯한 아바이며 전

사들이 가슴속에 고이고이 간직되어있던 희망과 꿈이 아니였을가.

내 눈앞에는 분명 무엇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나무뿌리들이 통채로 드러난 파헤쳐진 둔덕, 놀란 하늘, 그 밑으로 수류탄을 틀어쥐고 미제침략자들의 땅크를 향하여 돌진하는 전사들,

찢긴 군복자락이 초연에 날린다.

그들은 생각하였으리라.

살아남을수 없다는것을.

그러나 그들은 결코 다른 길로는 가지 않았다. 조국의 존토를 지켜 목숨을 바쳐 싸우는 그 길만이 그대들의 심장이 가리키는 길이었다.

그네들은 그려보았으리라.

죽어도 잊을수 없는 조국의 찬란한 미래에 대하여, 변모될 도시며 농촌마을, 하늘과 바다, 강이며 들판까지를.

이처럼 신념에 찬 꿈이 너무도 가슴속 깊이 확고히 간직되어있던 그네들이였기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면서도 얼핏 다녀올 길을 가듯 것처럼 웃으면서 달려갔으리라.

도중역에서 중좌와 헤어진 나는 좀체로 흥분된 심정을 누를수 없었다.

그 까닭은 명백하였다.

중좌가 남긴 여운이 그토록 나에겐 강했기때문이다. 그는 나와 헤어질 때 내 손을 꼭 잡고 《잘가시오, 또 만납시다.》 하고 친절하게, 짙막하게 인사말을 남겼지만 나에겐 그 말이 여직껏 이야기한것보다 더 많은것을 이야기해주는것처럼 느껴졌다.

내 머리속에서 계속되고있는 그의 목소리에는 이런 말도 있는것만 같았다.

《젊은 친구, 오탁백과 무르녹는 풍요한 조국의 기름진 땅, 우리 사회주의농촌,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들, 공장, 용광로, 그 위에 드리운 끝없이 높고도 밝은 하늘, 시원한 바다 그 모든것을 무심히 스쳐보지 말라구, 거기엔 그 어디에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어려운 길을 헤쳐간 선배들의 피와 땀이, 그네들의 꿈과 희망이 속속들이 배여있다는것을 부디 잊지 말라구.》

물론 그것은 내가 모르는것은 아니였지만 고상한 사상은 심장으로 느낄수록 더욱더 좋다고 절절하게 말하고있는것만 같았다.

렬차는 여전히 좌- 좌 하고 바다같이 설레이는 파원의 숨결소리를 들으며 두줄기의 은빛 철길 위로 기운차게 달려가고있었다.

오늘의 행복을 떠실고...

당일군의 전형적성격형상

박연경

혁명적문학작품이 자기의 인식교양자적, 사회동원자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 잘 보여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비약하고있으며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졌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가 전례없이 거창한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사업방법과 사업작용을 개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적령도를 확고히 견지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당적령도의 기본요구는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당정책관철에 적극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당의 사명과 당적령도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며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것은 당일군들의 본신임무이며 근본활동방식으로 된다.

혁명적작품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옹계 보여주기 위한 사상미학적과제는 구체적인 작품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속에 놓여있는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창조에 의하여 예술적으로 실현된다.

최근의 성과작들인 영화문학 《이 세상 끝까지》, 장편소설 《평양시간》, 중편소설 《불바람》은 당일군의 형상창조에서 좋은 경험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당일군들은 투쟁의 기수. 인민의 총복으로써 높은 당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거울이 되고있으며 본보기로 되고있다.

당일군의 형상은 그자체로서도 의의가 크지만 작품에서 인간관계의 설정과 거기서 차지하는 형상의 몫이 크며 주제사상적지향을 뚜렷이 바로잡아나가는데서 중요한 형상작원칙을 담당한다는데 그 미학적의의가 있다.

《이 세상 끝까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께 충성다하는 여기에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 때 삶의 참다운 가치가 있다는 의

의있는 종자를 훌륭하게 꽃피웠다.

이 예술적성과는 리당위원장의 성격창조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작품의 중심주인공인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가정과 마을을 혁명화해나가며 반당종파분자들과 몇몇이 맞서서 당의 축산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간다.

이러한 어머니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이끌어 나가는것은 리당위원장이다.

리당위원장은 당정책을 좀먹고 혈뜰으려는 나쁜 놈들과 역세계 맞서 싸워나가는 어머니의 가슴에 당의 뜨거운 숨결을 줄기차게 이어주며 수도의 하늘을 지켜싸우던 정철이로 하여금 계속 혁명의 꽃을 피워나가도록 용기와 의지를 북돋아 준다.

참된 삶과 낡은 인습의 갈림길에서 안타깝게 모태기는 옥성의 가슴에도 리당위원장의 도움에 의하여 당정책이 깊이있게 심어져 삶의 기쁨과 행복이 피어난다.

언제나 틀과 격식이 없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정책관철에 불려일으키며 어렵고 험한 길에서 이신작척할줄 아는 리당위원장의 형상은 얼마나 친근하고 진실하게 안겨오는가.

《옥성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산 사람이 일생을 잘산 사람이겠소? 남보다 오래 산 사람일가? 아니면 남보다 편안하게 호의호식한 사람일가?》

《아니야, 하루를 살아도 값있게, 빛나게 산 사람!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고 그속에서 행복도 미래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루 일생을 사람답게 산 사람이야!…》

정철이가 바로 그렇게 살고있으니 옥성이라도 그런 인생을 보내리라고 믿는다는 당위원장의 말이 옥성의 얼굴에도 참된 삶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넘쳐나는것이다. 옥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제1생명으로 여기고 그이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길에서만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된다. 사람과의 사업에서의 이러한 성과는 리당위원장의 당적인 사업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주체의 정책적의의를 강조한다고 하여 정치적의의를 생경한 론리, 선언, 구호로 강조할것이 아니라 정책적인것과 예술적인것을 결합시켜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표현해야 한다

고 가르치였다.

당일군이 임의의 극적정황에서 명령과 지시로써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대신하거나 선언이나 호소로써 정치사업을 다한것으로 그린다면 그것은 형상이 아니라 역지로 될것이며 설교로 되고 말것이다.

《이 세상 끝까지》에서 리당위원장은 생경한 논리를 설명하는것이 아니라 형상의 몫을 가지고 구성에서 응당한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그는 주인공여머니를 비롯하여 정순, 정철, 옥성 등 여러 인물들을 작품의 기본사건선에 련결시키고 이야기줄거리를 끌고나가는 중요한 매듭들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으로 묘사되었다.

작품에서 당일군의 형상적위치와 그 사상미학적의의는 그가 문제해결에서 얼마나 주동적이며 결정적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물론 리당위원장은 작품에서 번잡하게 자주 나타나거나 이러저러한 사건에 무턱대고 개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확고한 당적원칙과 견결한 립장, 주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혁명과 반혁명간에 조성된 준엄하고도 시련에 찬 극적사건에 공부정인물들이 얹히게 하였으며 심각한 대립과 충돌, 투쟁을 거쳐 마침내 새것, 긍정적인물들이 승리하는것으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작품에서는 주인공여머니일가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당의 축산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생활과정을 통하여 긍정적인물들의 성격의 아름다움을 생동하게 보여주었고 바로 이것으로써 것처럼 아름다운 성격을 가꾸어나가는 리당위원장의 성격적특징을 보여주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결코 당일군의 형상이 작품의 구성에서 많은 지면을 차지한다거나 여러곳에 자주 나타나야 주제의 정치적의의가 강조되는것은 아니다. 이야기줄거리발전에서 꼭 나와야 할 대목, 형상적으로 빈틈없이 맞물린 극적정황에서 나와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빛을 낼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속에 놓여있는 당일군의 개성화된 성격의 논리를 통하여 복잡한 사건이 정책적으로 명백하게 풀려나가는 매듭을 보여줄대신에 당일군을 자주 등장시키는것으로 한 몫을 보려고 해서는 안될것이다.

축산을 하지 말고 농사나 제대루 하라는 《도의 지시》를 듣고 밤새 생각해보아도 도에서 왜 그런지시를 내렸는지 통 짐작이 안가서 혼자 새길수가 없다는 어머니에게 리당위원장은 단호하게 말한다.

《어머니 당정책에는 축산을 하라는것만 있지 하지 말라는건 없습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추호도 동요함이 없어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려는 충성의 전위 리당위원장의 높은 사상정신세계가 함축된 대사

에서 깊이있게 울려오고있다.

리당위원장은 상용할수 없는 갈등관계에 있는 어머니 일가와 반당종파분자들사이에 심각한 계급투쟁이 벌어질 때 부정에 대하여 추호도 타협하지 않으며 계급적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림으로써 문제를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그는 또한 인간관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인정세태적인 감정에 기울어지는 일이 없이 당적책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서의 고상한 품모를 갖추고 당정책관철에 어깨를 들이민다.

작품에 등장하는 당일군들은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으로 조직동원하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두려워함이 없이 맞받아나기면서 당적인것, 긍정적인것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선도적인물로 설정해야 한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인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믿는것보다 더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 하기에 그들은 남보다 험한 길도 더 견고 잡도 덜 자며 머리도 더 쓰면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

리일으키는것이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주체조선의 새로운 수도, 《평양시간》에 상정된 의의있는 종자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심고 가꾸어나간 사상예술적성과에는 당일군의 형상창조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도 포하되어있다.

작품에서 탁준범은 당의 건설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안일과 해이, 로쇠와 침체, 소극과 보수 등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반대 배격하고 건설자들이 왕성한 투지와 패기, 신심과 정열에 넘쳐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불러일으킨다.

어렵고 힘든 일을 본때있게 해제끼는것은 대중을 영웅적투쟁으로 이끌어가는 지휘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탁준범의 당일군으로서의 어머니다운 품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나게 유지하도록 그들의 오늘의 생활뿐만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며 도와주는데서 나타난다.

건설장이 마음에 없으니 본래 배치되었던대로 기계공장에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수진이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밖에 없는 손을 바지호주머니에 지르고 노기어린 목소리로 말한다.

그 벽찬 일터가 있거든 차라리 놀고먹으라고, 나는 두팔이 성한 동무들처럼 이 벽찬 건설의 시대에 짹짹 일하지 못하는게 분하다고 절절하게 말하는 탁준범,

안해가 지은 반토굴집 문턱이 높은탓에 아이들 이 번져지고 피를 흘려도 문턱하나 손질해주지

못하고 집하나 제손으로 지어줄수 없는 탁준범이다.

그가 건설사업소 당위원장으로 부임되어 《내심장이 뛰는 한 이 배려와 신임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하려오.》 하고 환희와 열정에 넘쳐 말할때 상철이네인들 얼마나 감동되었겠는가.

탁준범이 언제나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수진이와 상철이 등을 대하였기때문에 그들은 자식들이 자기 어머니를 대하듯이 탁준범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된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아글다글 애쓰며 아래사람들을 책임적으로 돌보기 위하여 노력하는 탁준범의 도움이 없었던들 상철, 수진 등이 오늘의 영웅적인 평양건설자의 대

렬에 것처럼 땀땀이 서있지 못할것이다.

탁준범은 사업소에 있는 적지않은 제대군인들과 청년들을 자각시키면 건설에서 큰 전변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상전의 포화를 집중시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설에서 대혁신을 일으키고 일대 전환의 국면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밤잠을 잊으시고 심려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 초소에서 전환을 가져오겠는가, 준범은 자나깨나 오직 이 한가지 생각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는 추호도 용납되지 않는것이였다.

그는 청년건설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길만이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길이라는것을 설득력있게 해설한다.

청년조직조같은것을 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상철이의 의견을 받고 《나보구 조직해달랄것 없이 상철이하구 수진이가 한번 조직해보는게 어떨소?》하고 고무추동하는 탁준범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당일군으로서의 그의 높은 조직적수완과 사업능력에 대하여 이해할수 있다. 탁준범의 형상은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이 하나의 세부에서도 항상 사업의 성과는 동지들과 군중에게 돌리고 결함과 부족점을 자기자신에게서 찾아 그것을 스스로 고쳐나가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성실한 일군의 생동한 모습을

보게 된다.

중편소설 《불바람》은 연공작업반 세포비서인 박진수를 중심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당일군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중편형식에 시대적지향을 폭넓게 일반화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중편소설 《불바람》의 주인공 박진수는 연공작업반 세포비서로써 사람과의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교양하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공업전선의 돌과구를 열어놓은 새형의 사회주의건설자이며 당일군이다. 그는 안착되지 못한 오염목이를 일깨워 모범로동자로 되도록 방조해주었으며 위험한 순간에는 맨앞장에 서서 당원들과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으로 불러일으킨다.

박진수는 140톤의 강철거물인 전로지지가락지를 세우기 위한 공사는 단순한 생산기술적문제가 아니라 경험주의, 보수주의, 소극성을 짓부시고 새것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사상개조운동과 통일되어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전로지지가락지를 세우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실천에 옮기는가 못옮기는가 하는 사상문제이며 혁명에 대한 립장과 태도문제로 제기된다.

보가 중력중심을 잃게 되어 공사가 위험에 처하였을 때 세포비서 박진수는 《당원동무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라고 웨치며 적의 화구를 막는 심정으로 천정에 뛰어오르고 당원들은 그의 뒤를 따라나아가 보의 평형을 보장함으로써 전로조립작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무조건 옮겨야 한다는 립장에는 서는데 무조건 아무것도 허물지 않고 옮겨야 한다는 립장에는 서지 못하는가? 이 두 립장은 얼마나 차이나는가. 아무것도 허물지 않고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 자체가 하나의 비약이 아닐

가. 당세포는 이 립장을 견지해야 한다.

<도덕적인 희생>이란... 무슨 소리인가? 다 허물어버리는게 무슨 도덕인가?... 견지해야 한다!

견지하자! 충성심에 기초한 립장만 튼튼하면 방법은 찾아질것이다.》

이것은 초대형탑식기중기의 운반과 관련하여 리호섭과 죄병하 사이의 대립되는 견해를 놓고 심사숙고하는 박진수의 심리묘사이다.

박진수는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기때문에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될수 있었으며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수 있었다.

박진수는 높은 책임성과 견결한 투지를 가지고 대중의 지혜를 모아 단합된 힘으로 제기된 과업을 밀어제끼는 혁명적전개력을 가졌기에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킬수 있었다.

제대군인, 당원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도가 그 누구보다 높은 박진수에게는 오직 하나의 신념,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 드리는 일이라면 그 어떤 초소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의 각오만이 있을뿐이다. 그러기에 그는 제대되어 연공작업반에서 일하게 된것을 영예롭게 생각하였으며 쇠집에서 생활하는것을 청춘의 보람으로 여기었다.

중편소설 《불바람》은 구성에서 주인공 박진수

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사건선에 사랑선, 가정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당일군의 고상한 풍모를 전면적으로 밝히낼수 있었으며 생활을 다방면적으로 풍부하게 그려낼수 있었다.

중편소설 《불바람》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도가 높을 때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 사상적알맹이, 종자를 쥐고 사회주의대건설을 추진시켜나가는 영웅적으로동계급의 집단적혁신운동을 기본문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제사상적과제는 중심주인공인 당세포 비서 박진수의 성격창조를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었으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확인 할수 있었다.

혁명적작품에서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옹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생활세부와 일화들을 정치적인의의가 있게 그려야 한다.

문학적묘사의 세포로서의 세부묘사가 모두 그렇게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특히 당일군의 성격창조에 이바지라는 세부와 일화들은 하나를 그려도 정치적인의의가 있게 세심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보여주어야 할 문학예술의 고유한 형상적요구에 맞게 묘사되어야 한다.

상철이의 병사시절에 첫 분대장이었던 탁준범을두고 《다시 분대장》의 일화를 상기시킨것은 얼마나 인상적인가. 그 유명한 일화들은 일화 그 자체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준범의 성격발전의 매듭을 뚜렷이 드러내고있으며 미래의 당일군으로서의 성격적바탕을 꾸려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신입병사들이 군사규율과 명령에 습관되기까지 엄격한 요구를 제기하며 열변 스무번 반복동작을 시킨것으로 하여 《다시 분대장》이란 별명이 붙은 이야기, 전략적후퇴시기 다리에 관통상을 입은 상철이를 등에 업고 수백리 산길을 헤쳐온 이야기, 탁준범이 립진강 뜨께나루에서 최후까지 혼자서 싸웠다 하여 《뜨께나루분대장》으로 병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인상적이며 내용있는 일화들은 탁준범의 성격을 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있을뿐아니라 주인공 상철이와의 연고관계가 더욱 공고한것으로 보여줄수 있었다.

또한 이 생동한 일화들은 제대후 당위원장으로 사업하는 탁준범의 생활을 뒤받침해주면서 그의 개성적인 면모를 지지코플 묘사하지 않아도 능히 독자들이 련상할수 있는 여지를 준다.

탁준범이 요긴한 대목에서 짚막하게 한마디 하여도 그 말이 무게있게 울리며 이야기줄거리에서 자주 얼굴을 내밀지 않아도 언제나 잊을수 없는 생동한 형상으로 인상깊게 안겨오는 정서적감흥은 바로 여기에 그 미학적근거를 두고있다.

이미 군복을 벗은 탁준범이 독자들의 앞에 나

타지만 군인시절의 그의 끝끝한 모습이 무시로 되살아오르기만 하는것이다.

영화문학 《이 세상 끝까지》에도 가치있고 빛나는 세부들이 많다.

광풍이 불어치고 비바람이 광란하는 들판에서 달구지를 끌고 진창길을 헤매는 어머니, 황소도 사납게 도리질을 하고 몸부림을 칠 때 들고오던 우산을 어머니에게 썩워주고 자기는 어머니대신 소고삐를 잡는 리당위원장, 이것은 얼마나 인상적이며 풍만한 사상정서적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세부인가!

이 하나의 세부묘사를 놓고도 많은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게 한다.

이 세부를 놓고 우리는 당일군의 사고방식과 행동규범을 예술적으로 집약한 세부묘사의 극치라는 말을 할수 있을것이다.

작품에 그려진 리당위원장이야말로 고결한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실속있게 해나가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묵묵히 바쳐나가는 고상한 품성을 지닌 당일군이다.

당일군의 형상을 진실하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그의 대사에 대해서도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소? 어떻게 몇 사람때문에 일터가 맘에 들잖을수 있소? 그 벽찬 일터가 싫거든 차라리 놀고먹지? 나는 두팔이 성한 동무들처럼 이 벽찬 건설의 시대에 팡팡 일하지 못하는게 분하오!》

이것은 건설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수진이에 대한 탁준범의 비판이다.

실로 짚막한 한마디의 대사에도 깊은 뜻이 담겨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한팔을 잃은 영예군인으로서 전후 벽차게 벌어지는 건설투쟁에 떨쳐나서 팡팡 일을 해제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과 계속 혁명의 꽃을 피워나갈것을 지향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당적량심의 호소가 활화산처럼 뿜어나오고있다.

정황에 따라 말은 짧을수도 있고 길어질수도 있다. 속삭이듯 은은하고 정겹도록 상냥할수도 있으니 호소적이며 격동적일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거나 당일군으로서의 성격적특징과 개성이 드러나야 하며 당의 숨결이 뜨겁게 느껴질수 있는 설득력이 있고 박력이 있는 말이라야 한다.

지난기간 우리 문학은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비추어볼 때 보다 큰 창조적탐구가 기울어져야 할 분야이다.

우리 작가들은 작품에서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시대적높이에서 더 잘 창조함으로써 당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생활의 교과서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소설의 형상성제고와 세부묘사

오정애

세부묘사는 소설의 형상성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인 하나이다.

그것은 세부묘사가 소설에서 형상을 이루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묘사로 되기 때문이다.

소설의 묘사대상인 인간과 그 생활은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소설에 그려지는 인간은 현실에서 보는 산 인간처럼 구체적이며 생동한 인간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생활세부는 그의 고유한 본질과 특성으로 하여 커다란 형상적기능을 수행한다.

생활은 무한히 다양하고 풍부하며 수많은 생활세부들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소설도 무수한 생활세부들로 구성된다. 얼핏 보면 그것이 비록 사소하고 스쳐버릴수 있는 적은것이기는 하나 바로 그것을 통하여 전체를 헤아리고 인간생활의 전모를 보여주는 여기에 세부묘사의 형상적기능이 있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하나를 통하여 하나를, 백을 통하여 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하나를 통하여 백을, 백을 통하여 천, 만을 보고 헤아리게 하는것- 이것이 문학예술작품에서의 생활세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서 인상깊게 묘사하는것은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하여 사람들과 정서와 감동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창조하며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으며 생활을 의의있게 보여주는데서 본질적인 생활세부들을 잘 골라잡고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생활세부를 잘 묘사하는것은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창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품의 형상성은 간결하고 명백할 때에만 생활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드러낼수 있으며 생활의 의의를 심도있게 밝혀낼수 있다.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하자면 생활을 일반적이며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이며 생동한 묘사를 통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이 추상적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이루어지고 표현되기때문이다.

헤아릴수 없이 많은 세부들로 이루어진 생활을

여러모로 깊이 파지 않고 그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다 묘사한다면 수풀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듯이 작품은 중심을 잃고 처지며 산만해진다.

몇마디의 말로써 자기의 사상과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줄 아는 능숙한 웅변가처럼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하며 예술적생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가는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 전반적인 연관속에서 세부들을 정확히 가려보아야 하며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골라잡고 인상깊게 그려내야 한다.

이와 함께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으며 생활을 뜻깊게 보여주는데서 생활세부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인간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세계는 오직 구체적이고 섬세한 생활세부를 통해서만 생동하게 표현된다. 그것은 인간들의 성격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며 미묘한 심리서정세계를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인간성격의 섬세한 부분들을 옹게 보여주며 그 미묘한 움직임을 생동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생활의 재부를 파고들어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열개의 술방울에 대한 묘사를 두고보자.

작품에는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이의 품에 안기려는 아동단원들의 열렬한 지향이 열개의 술방울에 대한 세부묘사를 통하여 감동적으로 그려지고있다.

작품에는 종파사대주의자들에 의해 버림받은 의지가 없는 아동단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찾아 장설이 덮인 밀림속에서 풀뿌리를 캐여 먹으면서 걷고 또 걷는 모습이 눈물겨웁게 펼쳐진다.

열흘후이면 장군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아동단지도원의 말을 듣고 응답이는 배낭뒤주머니에 열개의 술방울을 따넣고 하루가 지나면 술방울한 개씩을 우등불에 던져넣는다.

작품에 그려진 이 감명깊은 생활세부는 지난날 천대받고 버림받던 그들을 한품에 안아주시고 참다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아동단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품모와 충성심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데 크게 작용하고있다. 물론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그리는 아동단원들의 다양한 심리세계는 다른 여러가지 세부들을 통하여서도 보여줄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열개의 술방울에 대한 세부묘사를

좁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을 따르려는 그들의 끝없는 충성심을 감동적으로 보여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며 그의 품에 안기려는 맑고 깨끗한 어린 마음들이 술방울에 대한 세부에 얼마나 생동하게 비껴있는 것인가!

열개의 술방울에 비친 그들의 내면세계는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인가.

여기에 생활세부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린 예술적형상의 힘이 있는것이다.

이러한 세부묘사는 작품의 도처에서 찾아볼수 있다. 작품은 바로 이러한 세부묘사로 하여 인간과 그 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작품에서 곡절많은 권학식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얼어붙은 호수와 외로운 강대나무에 대한 세부묘사도 바로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일찍부터 당국의 쓰라린 비운을 체험한 권학식은 나라를 찾는 일이라면 마다않고 찾아다녔다.

3.1 운동때에는 《조선독립 만세》도 불러보았고 독립운동과 애국문화계몽운동에도 나서보았고 맑스주의에 심취되어 류치장생활도 하였으며 열렬한 공산주의신봉자로도 되었다. 그러나 순진하고 결백한 젊은 공산주의신봉자인 그는 《선배》공산주의운동자를 따르다 미처 제정신도 차릴새없이 파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어갔다. 이리저리 부대끼다 의지할곳도 찾지 못한채 헛되게 산 일생을 쓰겁게 돌아본 그는 사회운동자의 마지막 행색마저 벗어던지고 누이가 실고있는 화룡땅의 깊은 산속에 들어박힌다. 여기서 권학식은 기왕의 운동과 기성의 운동세대들을 통채로 부정해버리고 더는 바깥세상에 자기 마음이 유혹되지 않도록 마감의 문을 닫아건다. 작품에서는 그의 이러한 심정을 얼어붙은 호수에 비유하여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다.

두터운 얼음장이 마음의 호수우에 얼어붙은것처럼 굳게 닫긴 마음, 얼어붙은 호수와 같아 바깥세상과 담을 쌓으려는 권학식의 심리세계가 이 세부묘사를 통하여 얼마나 생동하게 안겨오는 것인가.

원래 얼어붙은 호수라는것은 얼음바깥의 드넓은 세상에서 해가 뜨건 달이 뜨건 바람이 불건 눈이 오건 하늘이 개이건 흐리건 상관없이 잔물결조차 일으키지 않고 고요히 자기나름대로의 안정된 세계를 유지해나간다.

작품에서는 바로 이 얼어붙은 호수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소란하고 변화무쌍한 바깥세상을 외면하고 조용히 살아가려는 권학식의 내면세계를 생동하게 그리는것이다.

세월의 오랜 풍상에 꺾이고 즐기만 남아 못나무의 설레임에 휩쓸리지 못하는 외로운 강대나무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그려보는 장면묘사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작품은 그닥 크지는 않으나 이 적은 세부들을

통해서도 권학식의 다양한 심리세계와 감정의 변화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생활에서 본질적인 세부들을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내면세계를 더 잘 드러내보일수 있고 따라서 사람들의 사상감정에 구체적인 정서적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인간성격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생활세부를 잘 골라잡고 그것을 깊이있게 그려야 하는것이다.

세부묘사를 잘하여 작품의 형상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생활세부들을 골라잡아야 한다.

현실은 무수한 생활세부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세부들이 다 생활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작가는 많은 세부가운데서 시대의 특징과 사회제도의 본질을 체험한 전형적인 세부를 골라 분석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수진이가 길가에 지나가다 얼핏 본 《알리는 말씀》은 비록 그것이 눈이 뜨이지 않는 사소하고 작은것일지라도 시대의 본질과 특징을 얼마나 명백하고 생동하게 느낄수 있게 하는가!

가게방주인이 생산판매협동조합에 가입했기때문에 거래하던 손님들중 청산할것이 있으면 조합사무실로 찾아오라는것을 쓴 《알리는 말씀》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던 1958년 우리 나라의 그 어디서나 들을수 있고 볼수 있는 평범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실재한 이 사실을 《알리는 말씀》이라는 생활세부를 통하여 감동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시대적특징이 확 안겨오게 하고있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활세부야말로 시대의 맥박, 시대의 숨결을 느낄수 있게 하는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세부이다. 이처럼 하나의 적은 세부에서도 시대의 본질을 포착하고 작품전반에 높은 사상성과 생활의 진실을 풍부하게 구현할수 있는것이다.

작품의 형상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본질적인 것과 함께 특징적인 세부를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특징적인것은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되게 하는 중요한 속성으로서 그 작품의 본질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게 한다.

작품은 특징적인 세부를 그릴 때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형상의반복성과 류사성을 극복하고 비반복성과 개성화, 심오성을 보장하게 한다.

사람들의 성격을 인상깊게 하는 특징적인 세부 의 하나로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귀덮개 올린 털모자에 대한 묘사를 들수 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보위하

며 그이의 신변을 호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서슴없이 바칠 줄 아는 친위성원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깊이있게 그리기 위하여 귀덮개를 올린 털모자에 대한 장면을 설정하고있다.

경위중대장 리복철은 멜피달린 군복에 권총을 차고 귀덮개를 올린 털모자를 쓰고있다. 항상 사령부호위에 신경을 쓰고있는 리복철은 어쩌다 눈무지속에 박혀 잠자게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추운 때라도 절대로 귀덮개를 내리워놓는 법없이 지내는 사람이다. 그의 별명과 같이 《밝은 귀》를 언제나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작품에서는 요란한 전투나 문구가 아니라 귀덮개에 대한 자그마한 묘사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안경을 더 잘 지키고 그이를 더 잘 받들어모시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리복철을 비롯한 경위중대원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한 혁명가들의 영상을 우리는 수많은 많이 알고있다.

그러나 귀덮개에 대한 묘사로 하여 리복철은 그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특징을 가진 인물로 우리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호위하기 위해 강추위에도 항상 귀를 내놓고 주위소리에 민감한 리복철,

얼마나 세심하고 다감하고 구체적인 인간심리에 대한 묘사인가,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 얼마나 절절하게 안겨오고있는것인가!

귀덮개에 대한 세부는 비록 작고 평범한것이지만 그것이 리복철의 혁명가로서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집중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가장 특징적인 생활세부로 되었다.

작품에서 혁명가를 그리면서 그의 정치적신념과 강의한 의지만 보여주고 구체적인 생활정황에서 나타나는 풍부한 정신세계를 그려내지 못한다면 그 인간형상은 매우 메마르게 된다. 작품은 귀덮개에 대한 특징적인 묘사를 통하여 리복철의 강의한 의지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심리와 감정까지도 섬세하게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현실에서와 같이 살아 숨쉬는 그렇듯 생동한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수 있었다.

새롭고 특징적인 세부묘사가 인간들의 성격을 얼마나 생동하고 개성적인것으로 되게 하는가 하는것은 장편소설 《평양시간》에서 구두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언제나 반들반들 윤기가 나는 림도식의 구두, 지어 구질구질한 진창길에서도 흙물이 발릴가보아 조심스럽게 끌라디디는 그의 구두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작품은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외교적이며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살아가고있는 그의 성

격을 잘 드러내고있다.

자기의 지위와 처지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저촉된다면 멀리 피해가며 몸을 사렸고 반면에 자기의 지위를 높일수 있고 《출세》를 도모할수 있는 기회에 맞다들리면 남들을 밀쳐내면서까지 앞장에 나서려는 인물이였다. 탐위욕과 출세욕, 이에 따르는 아침과 호령, 눈치놀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였다.

작품에서는 바로 그의 이러한 성격이 번쩍거리는 구두, 진창이 묻을세라 조심스레 끌라디디는 구두의 묘사를 통하여 얼마나 생동하게 그려지고 있는가.

번쩍거리는 구두에 림도식의 얼굴에, 그와 성격이 그대로 내비치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 구두에 대한 묘사로 하여 《처세술》이 능한 림도식의 부정적성격은 인상깊게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특징적인 세부묘사를 통해서만 인간들의 다양한 성격과 생활을 깊이있고 폭넓게 창조할수 있으며 류사성과 반복성을 없애고 새롭고 참신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이와 함께 작품의 사상주제적목적에 맞게 생활세부를 잘 골라서 옹골 있게 배열하며 언어적표현을 잘 구사하는것은 소설의 형상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이다.

세부묘사는 항상 그자체에 값이 있는것이 아니라 소설의 복잡한 구성요소로서 작품의 사상주제를 뚜렷이 하고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짓는데 그 가치가 있다.

조각가가 자기 주인공의 외모의 하나하나를 면밀히 다듬듯이 작가는 생활세부들을 작품의 사상주제적요구에 맞게 고르고 옹골 있게 배열하여야 한다.

아무리 흥미있는 생활세부라도 작품의 사상주제적요구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의를 가지지 못할뿐아니라 오히려 군더더기로서 예술적전일성과 작품의 간결성을 보장하는데서 지장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작품의 구성속에 들지 않은 생활세부는 아무리 흥미있는것이라도 대담하게 버려야 한다.

소설에서 세부묘사는 인간들의 성격과 생활을 다양하고 폭넓고 섬세하게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하나의 세부라도 소홀히 하거나 조잡하게 그리면 작품의 전반적형상에 큰 손상을 주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고 작가들은 인물들의 사상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낼수 있고 성격을 뚜렷하게 특징지을수 있는 생활세부들을 골라잡고 섬세하게 그려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인물선은 주인공선을 돌구는데 복종되어야 한다

김려숙

오늘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역사적위업에 복무하여야 할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습니다.》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은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논다.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이 주는 커다란 감화력은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형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학예술작품에서 받은 진한 사상정서적여운으로 끝없는 흥분과 격동 속에 잠기는 경우 우리의 눈앞에는 레외없이 먼저 주인공의 얼굴이 떠오르며 동시에 주인공과 연결된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 안겨온다.

인간성격, 구체적으로는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의 그의 생동한 모습이 안겨오지 않을 때, 주인공과 관계된 인물들이 제모습을 뚜렷이 드러내지 못했을 때 독자들의 기억속에서는 그 작품과 함께 작자의 이름까지도 가뭇없이 사라지고마는 것이 통례인것이다.

물론 이것은 주인공을 비롯한 모든 인물들이 작품에서 똑같은 비중으로 그려져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구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매개 인물형상의 몫이 뚜렷하게 인물배치를 잘하면서도 주인공의 선을 일관성있게 살려내는 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주인공선을 살리는대로 지향되고 일관되는 인물선문제는 성격창조과정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특히는 구성조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적문제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관계와 그들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인물선으로 옹계 살리는데서 근본요구로 제기되는것을 모든 인물선을 철저히 주인공의 선에 복종시키는것이다.

모든 인물선이 주인공의 선에 복종되는것이 구성에서 중요한 원칙적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인물선에서 주인공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과 관련된다.

주인공은 여러 인물들을 련결시키고 끌고나가는데서 언제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결국 인물관계의 명백성, 탄력성은 주인공의 선에 관계된다. 다른 모든 인물들은 오직 주인공의 선을 돌구는데 복무해야 한다. 주인공이 제자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인물들이 두드러지게 된다.

주인공은 형상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종자를 쏘아피우는 기본 담당자이다. 오직 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을 통해 종자가 형상적으로 밝혀지며 주제가 풀리고 작가의 사상이 흘러나온다.

주인공의 선을 명백하게 살리려면 작품의 기본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주인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놀게 하며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에 서게 하여 그가 움직이는데 따라 다른 인물들이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단편소설 《영원한 흐름》(로종익 《조선문학》, 1978년 8월호)은 주인공의 선이 명백하게 그려지면서 단편소설로서의 특성과 양상적특성을 잘 살리고있는 성과적인 작품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주인공인 지배인 립성백은 작품의 중심에 서서 기백있게 전진해나가며 기본문제해결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 지배인 립성백이는 특고압송 전선이 지나간 철탑공사를 전기를 끄지 않고 대담하게 해재질때 대한 영웅적로동계급의 충성의 반기를 놓고 단순히 그것을 지지하고 고무해주는 립장에 선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자신이 직접 그것을 해내려는 확고한 결심밑에 공사를 진척시키며 자기의 충성심과 영웅적희생성을 실천행동으로 보여주는것이다. 지배인은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혁명에 지연을 주는가, 아니면 자기 생명을 마치서라도 혁명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 희생적인 길도 있지 않는가 하는 심각한 인간문제해결의 직접적담당자로서 사건발전의 전체계에서 보다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관계에 있다. 이 경우 지배인은 최형진 비롯한 로동계급을 지지하고 고무해주는것만으로도 자기 위치를 지킬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것은 주인공인 지배인을 생활과 투쟁의 판조자, 단순한 지

지자로서가 아니라 이처럼 희생을 각오하는 투쟁의 앞장에 내세우고 투신하도록 함으로써 주인공으로 하여금 작품내용을 즐기치게 이끌어 나가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인물, 전진과 투쟁의 기수가 되게 한 것이다.

작품에서 주인공 림성백은 기술과장인 박준호나 오랜 산출공인 최형진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에 서 있다.

림성백의 움직임에 따라 최형진의 긍정적 성격도 부각되며 림성백의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역할에 박준호의 제동기적 역할이 따른다. 또 주인공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에 공감되어 때늦게나마 뉘우치는 박준호의 희생정신과 영웅적 행동도 지배인 림성백과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흘러나온다.

작품은 간단한 사건을 취급하면서도 의의있고 절실한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주인공의 위치와 역할을 높이는 원칙에서 깊이있게 풀어나갔다.

모든 인물선이 주인공의 선에 복종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선을 잘 살릴뿐 아니라 또한 목적 없이 인물선을 긋지 말아야 하며 모든 인물선을 철저히 주인공의 성격해명에 바쳐지도록 그어야 한다.

모든 인물선은 주인공의 선을 살리고 이야기의 폭을 넓히는 극적과제를 해결하는 조건에서만 의의를 가진다. 여러 인물들은 제각기 특색있게 두드러지면서도 산만하지 않고 알기 쉽게 뻗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의의있고 절실한 인간문제를 잡고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창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에 이바지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작가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을 높이 받들고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